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20. 9. 9. (수요일), 14:00 ~ 17:05

▣ 장 소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세미나실

▣ 출석위원 : 이재운, 강봉원, 김건수, 김문식, 김왕직,
서동철, 유재춘, 이경찬, 이순희, 이승용,
이영식, 진상철, 한숙영(이상 13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의정부지 사적 지정	(공 개)
2	거창 거열산성 사적 지정	(공 개)
3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공 개)
4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공 개)
5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주변 업무시설 신축	(공 개)
6	사적 제556호 인천 계양산성 보호구역 내외 탐방로 정비	(공 개)
7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내외 기존 고속도로 확장 및 정비	(공 개)
8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주택단지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9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주택 대수선 및 증축	(공 개)
10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내외 복문 경관조명 설치	(공 개)
11	사적 제426호 고성 문암리 유적 내외 상수관로 매설	(공 개)
12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내외 야간 관광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공 개)
13	사적 제114호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주변 건축물 신축 등	(공 개)
14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내 드라마 세트장 임시 설치	(공 개)
15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내 도로 확포장	(공 개)
16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 내외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 개)
17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 개)

【검토사항】

18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공 개)
19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내 대왕릉 정비계획 변경(안) 검토	(공 개)
20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 3호 건물 내 전시시설 리모델링 및 탐방로 정비 계획 (실시설계) 검토	(공 개)

【보고사항】

21	한국의 서원 둘레길 조성 보고	(공 개)
----	------------------	-------

22	사적 제117호 경복궁 내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및 광화문 월대 등 주변정비사업 추진 보고	(공 개)
2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공 개)

【 심의사항 】

안전번호 사적 2020-09-001

1. 의정부지 사적 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의정부지(議政府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의정부지(議政府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의 지정 가치 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함.
 - '20년 6차 위원회('20.06.10.) 보류 : 문화재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자료보완 후 재검토
 - '20년 7차 위원회('20.07.08.) 조건부가결 : 변경 3안(5필지/11,300㎡)으로 지정 검토
- 사적지정 예고 결과
 - 공고명 : 의정부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 공고일(예고일) : '20.07.20.(문화재청 공고-2020-231호)
 - 접수 의견
 - (서울시) 사적 예정지 내 국유지에 대한 관리전환(행정안전부→문화재청), 사적 지정시 현 도시계획 시설을 반영한 지적도 작성 등 요청
 - (행정안전부) 사적 지정시 문화재보호법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에 따른 협의 필요, 의정부지로 지정되지 않은 사적 예정지 중 서울시가 도로, 공원으로 활용 중인 국유재산(5047.6㎡)에 대한 서울시의 매입 필요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의정부지(議政府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외
- (3) 지정 명칭 : 의정부지(議政府址)
- (4) 지정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5필지 11,300m²
- (5) 관리단체(안) : 서울특별시
- (6) 신청사유
 - 의정부지(議政府址)는 조선왕조 5백년간 국가 최고위 행정기구로서의 역사적 가치와 조선 건국 초 문무 상대배치의 현장이 갖는 장소적인 의미, 원래 위치에서 지의 원형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물리적 가치를 지닌 사례임

라. 참고사항

(1) 추진경과

- 2012년 : 의정부터를 서울시(역사문화재과)에서 마련한 ‘4대문안 정밀 지표 조사에 따라 문화유적 보존방안’에서 역사성 회복이 필요한 역사문화지역으로 선정
- 2013년 : 서울시(역사도심재생과)에서 의정부터에 한글마루지 사업 상징조형물 건립 추진 이전 유구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해 문화재청 발굴허가를 받아 조사
 - 조사결과 의정부 관련 건물 3기의 기초부가 교란된 채 출토됨
 - 문화재청의 원형보존 조치에 따라 서울시 한글마루지 사업 상징조형물 사업 중단
- 2014년 : 광화문 앞 공원에서 발굴된 의정부 터 유구들을 활용하여 의정부를 복원하거나 역사공원화 하는 등의 활용방안 검토에 대한 서울시장 요청
- 2015년 : 의정부 터 정비 및 활용방안 마련 학술연구 용역 실시
- 2016년 : 제 1차 학술발굴조사(서울역사박물관, 시유지 약 3,200m²)
 - 의정부의 정본당과 협선당 온통기초 시설과 경기도청 관련 근대건물지 등 확인
- 2017년 : 제 2차 학술발굴조사(서울역사박물관, 시유지 한정)
 - 내행랑 건물지와 우물 1기를 확인
- 2018년 : 제 3차 학술발굴조사(서울역사박물관, 행정안전부의 토지사용 승인을 통해 11,300m² 전면 발굴)
 - 정본당과 석희당의 일부, 정자각과 연지에 대한 위치를 확인
- 2019. 2월 : 국가사적 지정신청 (서울시→문화재청)
- 2019. 3월~8월: 제 4차 학술발굴조사(서울역사박물관)
 - 의정부 외곽 담장 유구 확인
- 2019. 8월 : 4차 발굴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담장 선을 경계로 한 사적 구역 변경신청(서울시→문화재청)

- 2019. 10월 : 의정부터 종합정비 계획 수립 학술용역 실시('20.4월 준공예정)
- 2019. 12월 : 유적 정비 지침 마련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실시('20.5월 준공예정)
- 2019. 11월 : 서울시 문화재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심의
 - 사적 지정 심의 지연에 따라 서울시 기념물로 우선 지정
(면적 7,082㎡: 국유지 2,825㎡/ 사유지 4,257㎡)
- 2019. 12월 : 시 기념물 지정계획 시보 공고
- 2020. 1월 : 지정문화재 지정 예고에 따른 행정안전부 의견 제출
 - 문화재 지역 내 행안부 소유 국유지에 대한 매입 요구
 - 소유자 동의서 미첨부 및 사전 협의 없이 이행한 지정 절차를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요청
- 2020. 2. 26. : 서울시 기념물 구역 변경에 따른 문화재위원 현장조사
- 2020. 3. 20. : 서울시 문화재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심의
 - 사유지 한정 문화재구역 변경(면적: 4,257㎡) 지정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심의(2018. 12. 14.) : 사적 지정 신청 가결
- 지자체에서 실시한 관계 전문가 조사의견(2018. 11. 6. 및 11. 12.)
 - 의정부 터는 조선 건국 초에 도평의사사(의정부의 전신) 청사가 지어지던 때부터 조선 말기까지 육조거리에서 유일하게 그 위치를 온전히 지켜왔다. 서쪽과 북쪽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면적 감소가 발생했으나 현대식 고층 건물로 개발되지 않아 지하 유구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 2016~2019년에 걸친 학술발굴조사에서 고종 대 중건된 주요 전각과 행랑의 기반을

비롯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육조거리(현 세종대로)에 자리했던 최고의 관청이자 원위치에서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조선시대 관청으로서 건축사, 도시사, 조선시대사의 측면에서 의정부 터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2) 현지조사의견('20.01.21./문화재위원 ○○○, ○○○, ○○○, ○○○, 전문위원 ○○○)

1) 문화재위원 ○○○

- 의정부지는 청사, 관련 인물 등에 대한 관찬사료 뿐만 아니라 개인문집, 지지류, 일기류, 회화, 사진재료 등의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남아있다.
- 최근 실시된 발굴조사에서는 중심전각인 정본당과 그 좌우 석획당과 협선당의 건물위치가 확인되었다. 또한 정본당 뒤로는 연지와 함께 못가에 세웠던 정자의 흔적도 보여주고 있다.
- 따라서 육조거리 관청을 대표하는 의정부지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함은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문화재위원 ○○○

- 의정부의 위치에 관한 문헌 및 그림, 지도, 사진 등이 풍부하게 남아있고 여러 번의 발(시)굴조사 결과와도 잘 일치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보니 일제 강점기 이래 이곳에 여러 건물의 신축/철거가 반복되어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다.
- 그림에도 불구하고 발굴조사 결과 의정부 각 건물지의 기초와 원지, 우물, 담장과 배수로 등이 확실하게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향후 의정부를 복원할 경우 이들 고고학 자료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곳에서 수습한 유물들(일제강점기 및 근대 포함)은 의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래 조선의 최고 지배계층들과 그 이후 관료사회 물질문화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현 시점에서 우선 이곳을(필요하면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하여) 사적지로 지정하여 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후속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3) 문화재위원 ○○○

- 의정부는 조선시대 최고의 행정기관이었다. 광화문 앞 의정부 청사는 태조시대 경복궁과 같은 시기 초창된 뒤 조선왕조가 막을 내릴 때까지 중건이 이루어지면서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역사성을 갖는다. 불행하게도 일제강점기 이후 여러 차례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건물터의 교란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발굴조사에서는 의정부를 이루었던

5동의 건물지와 연지, 우물 등 관련 역사 기록에 부합하는 하부 구조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났다.

- 따라서 의정부 터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할 가치는 충분하다. 이 지역은 중학천과 백운동천이 자연해자를 이루는 곳에 왕궁(경복궁)과 행정관청가(육조거리)를 조성한 한양도성의 핵심코어다. 그럼에도 육조거리는 지금 옛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고, 복원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의정부 터 만큼은 역사성은 물론 육조거리의 출발점이라는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옛 터전 전체를 아우르는 사적 지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4) 문화재위원 ○○○

- 의정부지(議政府址)가 가진 장소성과 역사성, 그동안 이뤄진 발굴 성과를 고려할 때 이곳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번에 사적 지정을 신청한 구역은 그동안 발굴이 이뤄진 구역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아직 발굴이 이뤄지지 않은 구역까지 포함하여 원래 의정부가 있던 전 영역을 사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정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보존, 복원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종합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7명 / 원안가결 11명

의정부지(議政府址)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0.1.21(화)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의정부지(議政府址)를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의정부지(議政府址)로 신청되었으며, 14세기에 한양천도와 함께 세워진 이래, 현재는 터로 잔존하고 있으며, 지정명칭 부여원칙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의정부지(議政府址)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의정부지는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종로구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정치·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왔다. 종로구 내에는 조선시대 법궁인 경복궁을 중심으로 주변으로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주요 관공서들이 위치하고 있다.
- 의정부지는 북악산의 정면으로 경복궁 앞쪽 대로의 우측에 위치하며,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이 둘러싼 분지지형의 정중앙에 해당된다. 의정부는 조선의 최고 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에 맞추어 광화문 바로 좌측 첫 번째에 자리하였다.
- 의정부지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도로는 확장되고 주변은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당시 역사의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 물리적 시설로 경복궁과 광화문이 복원되어 있지만, 세종로가 조선왕조 최고위 관청들이 가로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점에서 이 가로의 북쪽 끝에 남아있는 의정부지라도 더 이상의 훼손 없이 보호 및 보존되어 이곳의 역사적인 의미를 알려야 한다.
- 의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5동을 비롯한 조선시대 건물지 8동과 부속 시설인 연지와 정자, 우물 등이 확인되었다. 각 건물지의 경우 전면기초와 적심 등을 통해 그 규모와 조성 기법을 파악할 수 있으며, 문헌자료 및 근대 도면 등을 통해 그 변화상을 추적할 수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연혁 유래

- 의정부는 조선시대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행정기관으로 그 위상에 맞추어 광화문 좌측 첫 번째에 자리하였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던 의정부를 고종 2년(1865) 경복궁 중건과 함께 중수를 시작하였고, 그 해 완공되었다. 그러나 1894년 12월에 의정부는 갑오개혁 당시 군

국기무처가 자리했던 경복궁 내 수정전으로 옮겨졌고, 의정부의 명칭은 내각으로 바뀌었다. 1896년 내각을 폐지하고 의정부로 명칭을 회복하였으나 1907년 다시 내각으로 고쳐졌다. 의정부 및 내각의 처소는 경운궁과 창덕궁 등으로 몇 차례 이전하기도 하였다. 의정부가 궐내로 이동한 후 의정부가 있던 자리에는 내부가 들어서는데 내부의 전신은 1895년 을미개혁 때 내무아문으로 설치되었다.

의정부 내부 청사는 1909년 6월 착공하였고, 1910년 8월에 벽돌조 2층 건물로 준공하였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서울이 경기도의 일개도시로 전략함에 따라 경기도청으로 사용되었다. 의정부로 사용되던 당시의 당상대청 등의 건물은 철거되지 않았으며, 육조거리에 면한 행각들과 일부 전각들만 철거되었다. 일제강점기에 가장 먼저 건축된 식민지 관공서였던 경기도청은 해방 후 한때 내무부와 건설부 등으로 사용되다가, 경기도청의 이전 후에는 치안국으로 사용되었다. 치안본부의 이전 후 한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되었으며, 1997년 현재의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의정부터 역사성 회복을 위한 복원 및 활용계획”의 일환으로 2016년 7월부터~2019년 8월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발굴을 실시하였다.

의정부지 연도별 주요 연혁

년도	기관 및 조직	내 용
1398	도평의사사 (의정부 전신)	· 국정 최고 의결기구인 도평의사사 청사 건립 (현 의정부지 주변으로 추정)
1399	-	· 송도로 도성 이전
1400	의정부	· 국정최고 의결기구로 의정부 조직 완성
1405	-	· 한양으로 환도
1592	-	· 임진왜란 발발 (의정부 청사 파괴된 것으로 추정)
1865	의정부	· 임진왜란으로 파괴된 의정부 중수
1894	내부	· 의정부는 경복궁 수정전으로 이전 · 이조 터에 있는 내부가 의정부지로 이전
1909	내부	· 내부청사 건물 착공
1910	경기도청	· 완공된 건물에 수원에 있던 경기도청이 이전
1945	미군정	· 경기도청 이전하고 미군이 사용
1948	경기도청	· 경기도청 내무부와 농무부가 의정부지로 이전 · 내무부 치안국으로 활용
1967~1977	정부 부처	· 경기도청 수원으로 이전 · 내무부, 중부지방국세청, 건설부 등이 혼재하며 청사를 사용
1977~1989	내무부	· 치안본부 별관
1989~1997	정부	· 정부합동 민원실
1990	-	· 국무총리실 청사 신축을 위해 전 경기도청 건물 철거
1997	시민열린마당	· 기존 건물 모두 철거하고 공모를 통해 공원 조성 및 활용
2016~2019	서울시	· 의정부지 역사성 회복을 위한 보존 및 활용계획의 일환으로 발굴 조사 진행

의정부지 연도별 발굴조사 결과

발굴경과	조사기간	조사일수	조사대상지	조사 결과
1차	2016.7.18. ~ 2016.12.20.	75	세종로 76-14(시유) 세종로 34-2(시유)	정본당, 협선당, 내행랑 일부 확인
2차	2017.3.15. ~ 2017.11.10.	101	세종로 76-14(시유)	정본당, 협선당, 내행랑 일부 확인
3차	2018.6.14. ~ 2018.12.20.	40	세종로 76-2(국유) 세종로 76-4(국유) 세종로 76-6(국유)	석확당, 연지, 내행랑 일부 확인
4차	2019.3.25. ~ 2019.8.22.	54	세종로 76-2(국유) 세종로 76-4(국유) 세종로 76-6(국유)	석확당, 연지, 정자, 내행랑, 담장지 등 확인

■ 의정부지 특징 : 본래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의정부지 장소가 갖는 의미

- 의정부지는 조선왕조 5백년 동안 의정부가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14세기 말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주산인 백악산 아래 궁궐이 들어서고 궁궐 앞 동편에 도평의사사가 들어선 이래로 이 자리는 조선 말기까지 줄곧 의정부가 위치하였으며, 영의정과 좌, 우의정 등 3정승이 수반이 되어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고르게 하며, 음양을 다스리고 나라를 경륜한다는 설립 목적을 수행해 나갔다. 비록 17세기에서 19세기 중반까지는 비변사의 위상에 눌려 정부 최고위 관청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시기를 맞기도 했지만, 조선왕조 중양 행정기구 최고위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내주지 않았다.
- 19세기 후반 고종이 즉위하면서 국정을 주도해 나간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고 아울러 의정부 청사를 일신하고 또 맞은편에는 옛 삼군부를 다시 세워 조선 건국 초기의 체제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흥선대원군은 궁궐 정문을 앞에 두고 문무 최고위 관청이 마주해 있는 모습을 조선왕조가 구축하고자 한 이상적인 통치 체제라고 판단하고 이를 재현하려고 했다. 비록 흥선대원군은 10년이 못 되어 권좌에서 물러났지만, 그가 구축하려고 했던 문무상대 배치의 형태는 의정부 청사의 중건과 삼군부 청사 복설로 구체화될 수 있었다.
- 의정부는 19세기 말 정치적 격변 속에서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일본에 의해 국권이 유린당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유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
- 특히, 서울의 중심지였던 광화문 육조거리는 운종가, 경희궁, 돈의문~서대문, 경복궁으로 이어져 있었고, 이 가운데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거리를 ‘육조거리’라 불렀다. 육조거리 좌측에는 의정부, 이조, 한성부, 호조, 기로소가, 우측으로는 예조, 병조, 사헌부, 형조, 공조, 장례원 등이 줄지어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현대에 걸쳐 정부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미대사관, 교보빌딩 등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서 현재는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없다. 특히 의정부와 대칭을 이루고 군사업무를 총괄하던 삼군부는 일제 강점기까지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

다, 현대에 정부청사가 들어서면서 대부분 훼손되어 대략적인 현황만 사진상으로 파악될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정부지는 6백년의 긴 역사와 그 사이의 정치적 굴곡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그 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이 터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1) 고려 건축형식을 계승한 상징성

- 1398년(태조7)에 지어진 의정부는 중앙에 지붕이 한 단 높은 중심 건물이 서고 좌우에 건물이 나란히 배치되는 3당 병립 형태로 지어졌다. 정도전이 지은 「도평의사사청기」에 의하면 고려 말의 도평의사사 청사는 높고 큰 집이 중앙에 있고 날개 같은 집이 손을 모으듯이 좌우에 있다고 하였는데, 조선 초 의정부 청사는 이런 형태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1865년(고종2) 청사 건물을 다시 지을 때에도 그 형태는 반복되었다.
- 3당 병립 방식의 건물 구성은 9세기 이전 신라의 절터에서도 나타나며, 고려시대에는 송악산 아래 궁궐의 중심전각은 물론 평양이나 파주 등 지방의 행궁은 물론 멀리 울주의 역원 건물에서도 반복되는 보편적인 형식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종친부나 의정부, 삼군부 등 1품 관청에서 채택되었고 서울 문묘 명륜당을 비롯해서 전국 군현의 객사에서 따랐다.
- 최근 실시된 의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중심 전각인 정본당과 그 좌우 석확당과 협선당의 건물 위치가 확인되었다. 정본당 뒤로는 연지와 함께 못가에 세웠던 정자의 흔적도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고종 때 다시 지어진 3당 병립 형식의 의정부 중심 전각 모습은 1901년 이전에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발굴조사는 사진자료와 일치하는 건물 배치를 보여주고 있다.
- 3당 병립 형태의 건물 배치는 고려시대부터 궁궐이나 주요 관청 등에서 채택해 온 형식이며 조선왕조에서도 중앙 관청을 비롯해서 사묘나 지방 객사에서 수용해 왔다. 객사 건물은 20세기에 들어와 도시 중심부가 변화하면서 거의 다 사라지고 몇몇 도시 변화가 뒤늦었던 곳에만 잔존해 있다. 의정부를 비롯해서 종친부나 삼군부 등 서울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서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던 3당 병립 형식의 건물들은 모두 사라졌다. 종친부 건물이 최근에 와서 3당 중 2개 건물만이 복원되어 겨우 옛 모습을 부분적으로 회복한 정도이다.
- 의정부는 육조거리의 북쪽 으뜸 되는 위치에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3당 병립 형태의 전각이 가장 돋보이는 방식으로 서 있던 곳이다. 발굴조사를 통해서 3당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는 점은 이곳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를 한층 드러내 준다.

2) 조선 건국 초 문무(文武) 상대배치의 현상이 갖는 장소적 의미

- 경복궁 중건이 시작되고 의정부 청사를 새로 짓던 1865년(고종 2) 5월, 영의정 조두순은 삼군부를 복설하여 예조 자리에 설치할 것을 청하면서 “건국 초에 의정부와 마주해서 삼군부를 세운 것은 한 나라의 정령이 문사(文事)와 무비(武備)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제 터에 그리고 개별 건물의 배치도 국초를 따랐던 중건공사의 전모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경복궁을 완성하고 이어하던 날, 고종은 궁궐이 지어지고 그 앞에 의정부와 삼군부가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두고, “조종조의 원대한 제도가 오늘에 이르러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의정부지는 조선 건국은 물론 그로부터 470년이 지나서도 그 의미를 되새길 만한 큰 의미를 지닌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 고종 초에 중건된 의정부의 건물 형태는 중앙에 정본당이 우뚝 솟아 있고 그 좌우에 대칭으로 협선당과 석희당이 나란히 선 모습이였다. 이런 건물 형태는 정도전이 도평의사사 청사를 두고 설명한 ‘외중익공좌우(巍中翼拱左右)’ 즉 중앙이 우뚝하고 좌우가 손을 마주하여 받드는 모습을 그대로 건물로 형상화한 배치였다. 고종 초반 의정부의 중건은 단순히 문무 상대배치를 재현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고 건국 초기의 건축 형식까지를 재현해 내려는 의지를 담아낸 행위였다.
- 21세기에 들어와 의정부지가 갖는 의미는 한층 두드러진다고 하겠으며, 세종대로의 북쪽 끝에 자리하여 그 북쪽 경복궁 광화문과 함께 국가 상징거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 원 위치를 지닌 장소성

- 의정부는 1398년(태조7)에 경복궁 광화문 앞 동편에 지어졌다. 1394년(태조4) 정전과 내전 일곽을 갖추었던 경복궁은 4년이 지난 1398년에 와서 궁성을 축조했고 의정부 청사가 지어지던 거의 같은 시기에 와서 궁성 남문인 광화문이 완성되었다. 이때 광화문 앞 서편에는 군사업무를 총괄하던 의흥삼군부 청사도 지어져서 궁궐 앞에 문과 무를 상징하는 최고위 관청이 서로 마주하는 모습이 갖추어졌다.
- 의흥삼군부는 삼군부로 명칭을 고쳤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역할이 병조에 흡수되면서 사라졌다. 삼군부가 자리 잡고 있던 광화문 앞 서편 터에는 예조가 들어섰다. 비록 맞은편에 있던 삼군부는 사라졌지만, 광화문 앞 동편 가장 북쪽에 자리 잡은 의정부는 조선 말기까지 한 번도 그 자리를 다른 기관에 내주지 않고 위치를 고수했다.
- 광화문 앞길은 육조대로 또는 육조거리로 불리면서 조선시대 한양의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이 가로는 국왕이 궁궐 밖을 나갈 때 반드시 지나가는 곳이었으며 국왕이 궁궐로 돌아올 때도 이 길을 지났다. 국왕의 행렬은 다른 어떤 행차보다 성대하고 화려한 것이었으며 또한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3년상을 마치고 종묘에 선왕의 신주를 봉안하고 궁궐로 돌아오는 국왕의 행차는 특히 오랜 근신기간을 끝낸 휴가분하고 명랑한 것이었으며 이때는 가로변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광화문 앞에서는 산대놀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행사는 한양 도성민들에게도 큰 볼거리가 되었다. 중국에서 황제의 칙서나 조서를 지닌 사신이 오면 역시 광화문 앞에서는 중국 사신을 위해 놀이가 펼쳐졌다. 의정부가 서 있던 육

조거리는 다양한 행사와 구경거리가 벌어지던 한양의 가장 돋보이는 장소였다.

- 17세기 이후 경복궁이 복구되지 않고 창덕궁이 국왕의 시어소가 되면서 육조거리는 한산한 거리가 되었으며, 의정부도 퇴락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의정부 자체는 그 위치를 고수했으며, 육조거리의 머리가 되는 위치를 유지했다. 19세기 후반, 고종 즉위 후 경복궁 중건이 이루어지고 의정부가 다시 본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서 육조거리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고종은 경복궁으로 이어하고 나서 한동안은 1년에 15회 가깝게 도성 안팎 사묘와 능침을 찾았으며, 그때마다 반드시 광화문을 출궁과 환궁 경로로 삼았다.
- 경복궁 중건과 함께 의정부가 청사를 일신하고 또 맞은편에 삼군부가 다시 세워졌다. 건국 초 궁궐 앞에 문무 최고위 관청이 마주하던 모습이 재현되었다. 1882년(고종19)에 와서 삼군부가 폐지되면서 이런 양상이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의정부는 여전히 국정 최고 기관의 위상을 잃지 않았다. 광화문 앞길 육조거리는 여전히 한양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 가로로서 존재감을 이어갔다.
- 의정부는 20세기에 들어와 성격이 다른 관청이 들어서고 벽돌조의 새로운 시설이 지어지면서 본래의 모습을 잃고 말았지만, 이 장소가 갖는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육조대로가 세종대로로 이름이 바뀌기는 했지만 광화문이 다시 본래 위치에 지어지고 의정부지 역시 거의 본래의 모습대로 보존되면서 터가 갖는 장소적 가치는 새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4) 조선왕조 최고위 행정관청이 지닌 역사성

- 의정부는 조선왕조 중앙 행정관청 가운데 최고위급인 정1품 관청에 속했다. 조선 초기 정1품 관청은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의정부 외에 종친 관련 업무를 보는 종친부, 공신들의 업무를 보는 충훈부, 공주·옹주에게 장가든 부마와 관련한 의빈부, 왕의 친족과 외척의 업무를 다루는 돈령부였다. 이 가운데 의정부를 제외한 다른 관청들은 실제로 나라의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 아니었다. 의정부의 유일하게 정1품 최고위 관청으로 실제적인 업무를 다루는 기관이었으며, 그 업무는 백관을 통솔하고 제반 국정을 다루는 것으로 요약된다. 의정부의 처음 명칭은 고려시대의 체제를 따라서 도평의사사로 불렸다. 도평의사사는 정3품 관청인 6조에서 올라온 문서들을 가려서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국왕에게 올렸다.
- 태종은 도평의사사의 기능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꺼려서 6조 관청을 정2품으로 승격시키고 6조에서 직접 국왕에게 국정을 보고하도록 고쳤다. 아울러 이즈음에 도평의사사는 이름을 의정부로 고쳤다. 이로써 의정부의 위상은 건국 초기보다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6조에서 국왕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하는 6조 직계제는 세종 때 와서 다시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서 의정부서사제로 전환되었다가 세조대에 다시 6조 직계제로 바뀌는 등 시대에 따른 변화가 있었지만, 정1품 최고위 관청인 의정부의 지위가 흔들리는 일은 없었다.
- 17세기 이후 국방문제를 다루던 비변사가 국정 전반을 주관하는 상황이 전개되었

다. 본래 국방 문제를 다루기 위해 임시 기관으로 마련한 비변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그 역할이 강화되었다. 의정부의 3정승은 비변사 회의를 주관하게 되고, 국정 논의는 자연스럽게 비변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 자체의 역할은 소홀하게 취급되었다. 이런 양상은 19세기 후반 고종 즉위 후 비변사가 철폐되고 의정부의 위상이 다시 회복되면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비변사의 철폐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행정체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소산이었으며 국정을 다루는 최고 관청인 의정부의 위상은 회복될 수 있었다. 외세의 간섭이 커지던 19세기 말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정부는 한동안 내각으로 명칭이 바뀌고 경복궁 수정전에서 업무를 보는 일시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다시 원래 자리도 돌아갔다. 의정부는 1907년 통감부에 의해 관제 전반이 개편될 때까지 정1품 최고위 관청의 위치를 고수했다.

- 의정부는 조선왕조와 함께 5백여 년의 역사를 이어갔으며 최고위 행정기관의 지위를 유지해 나갔다. 역사적 부침을 겪었던 조선왕조와 마찬가지로 의정부의 역사도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왕조 국정의 최고위 관청이라는 위상을 잃지 않고 조선왕조와 함께 명운을 이어진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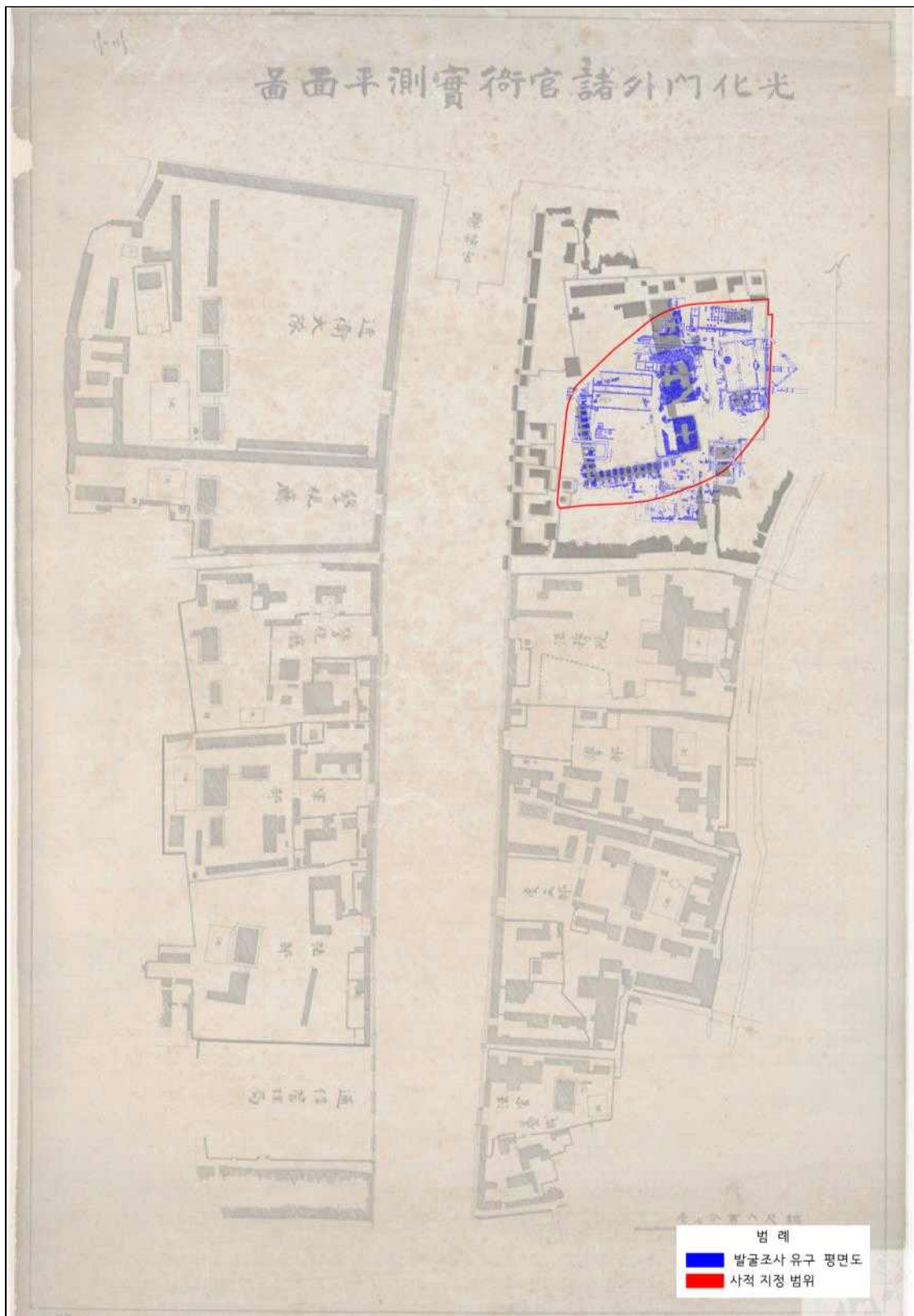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구역)

지정면적: 5필지 / 11,30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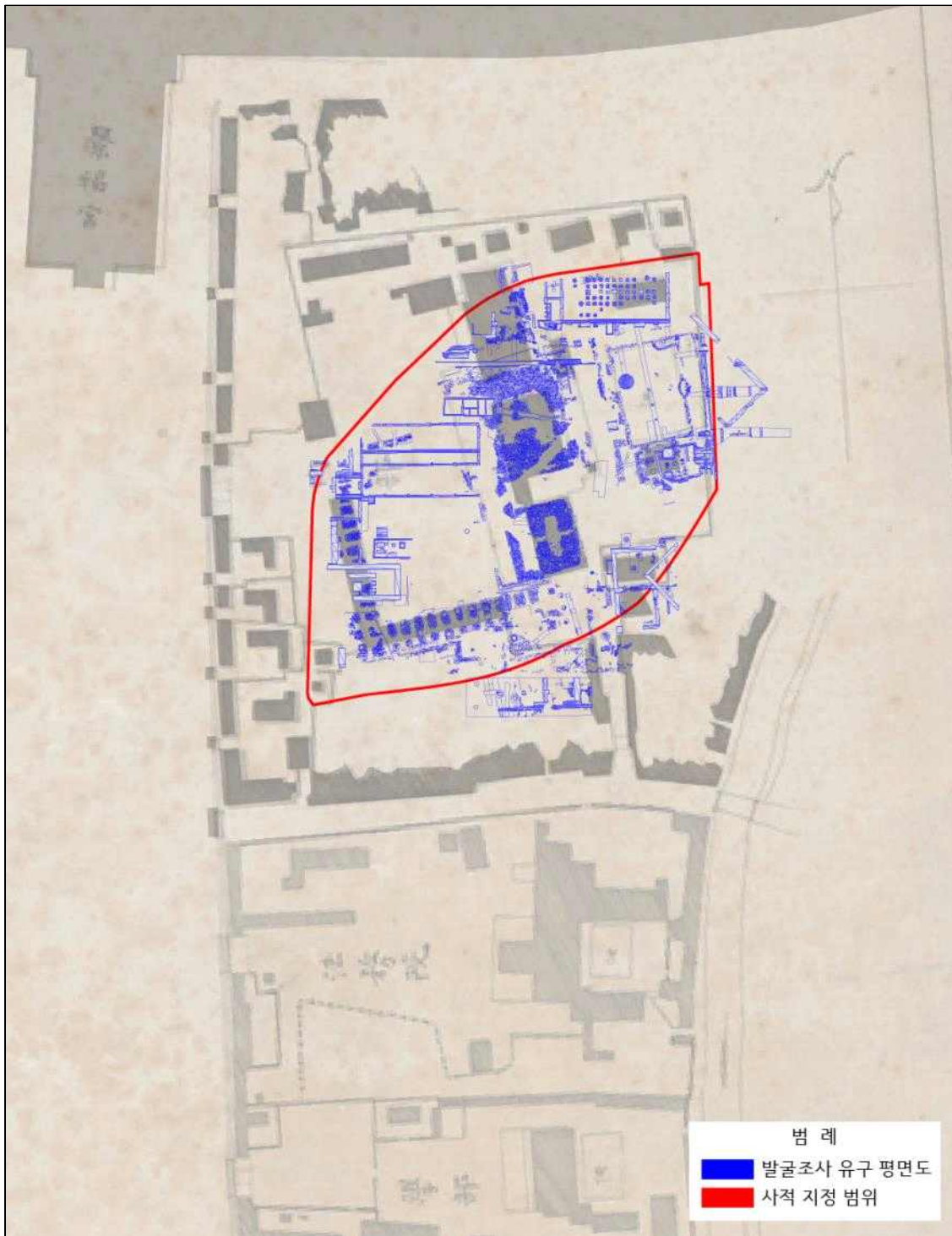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관리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6-2	대	2,492.6	2,492.6				
2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6-4	대	6,679	2,344.3				
3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6-14	공	6,438.5	6,438.5				
4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0	도	1,163	17				
5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4-2	공	7.6	7.6				
계				16,780.7	1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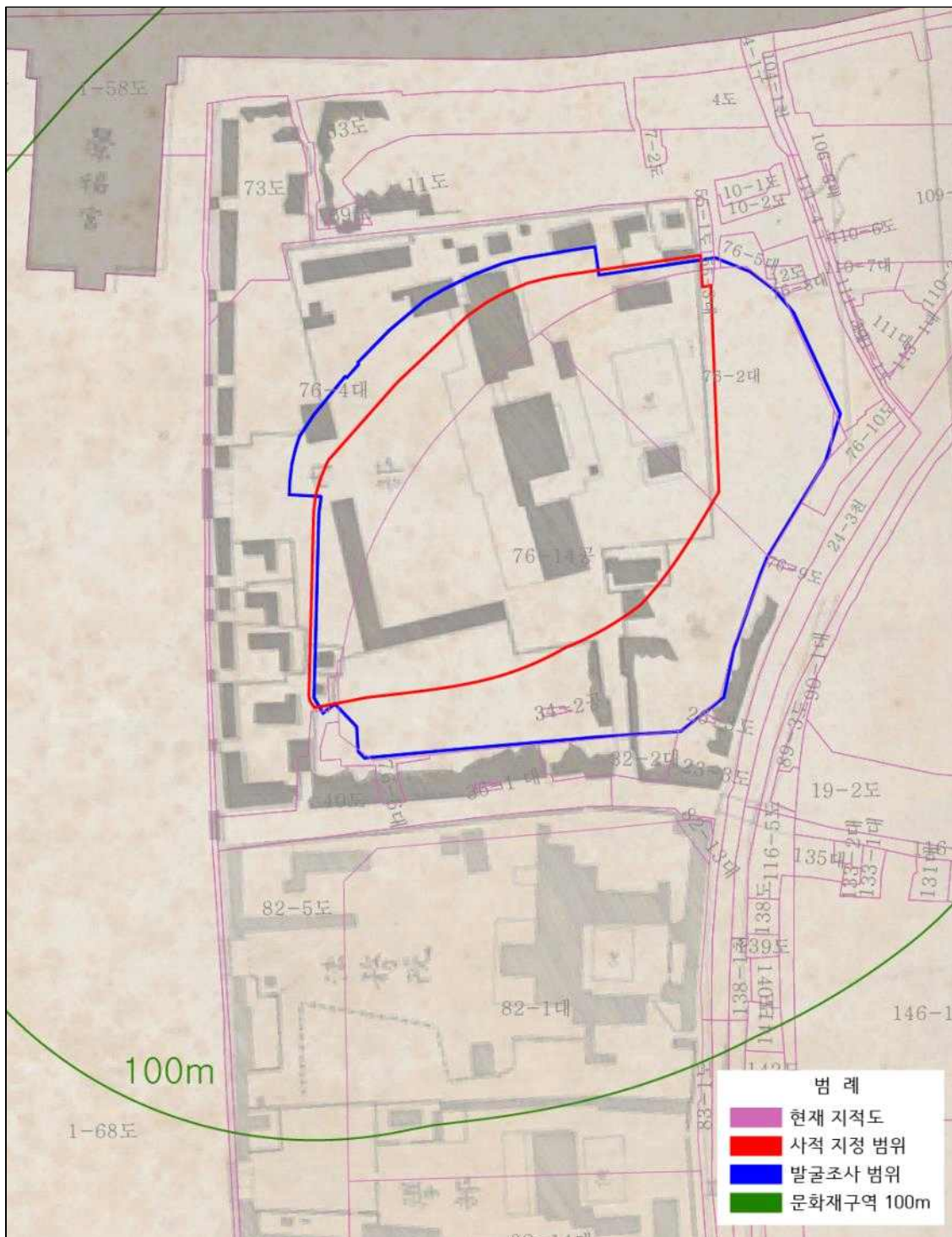
사적 지정 신청 면적 변경 결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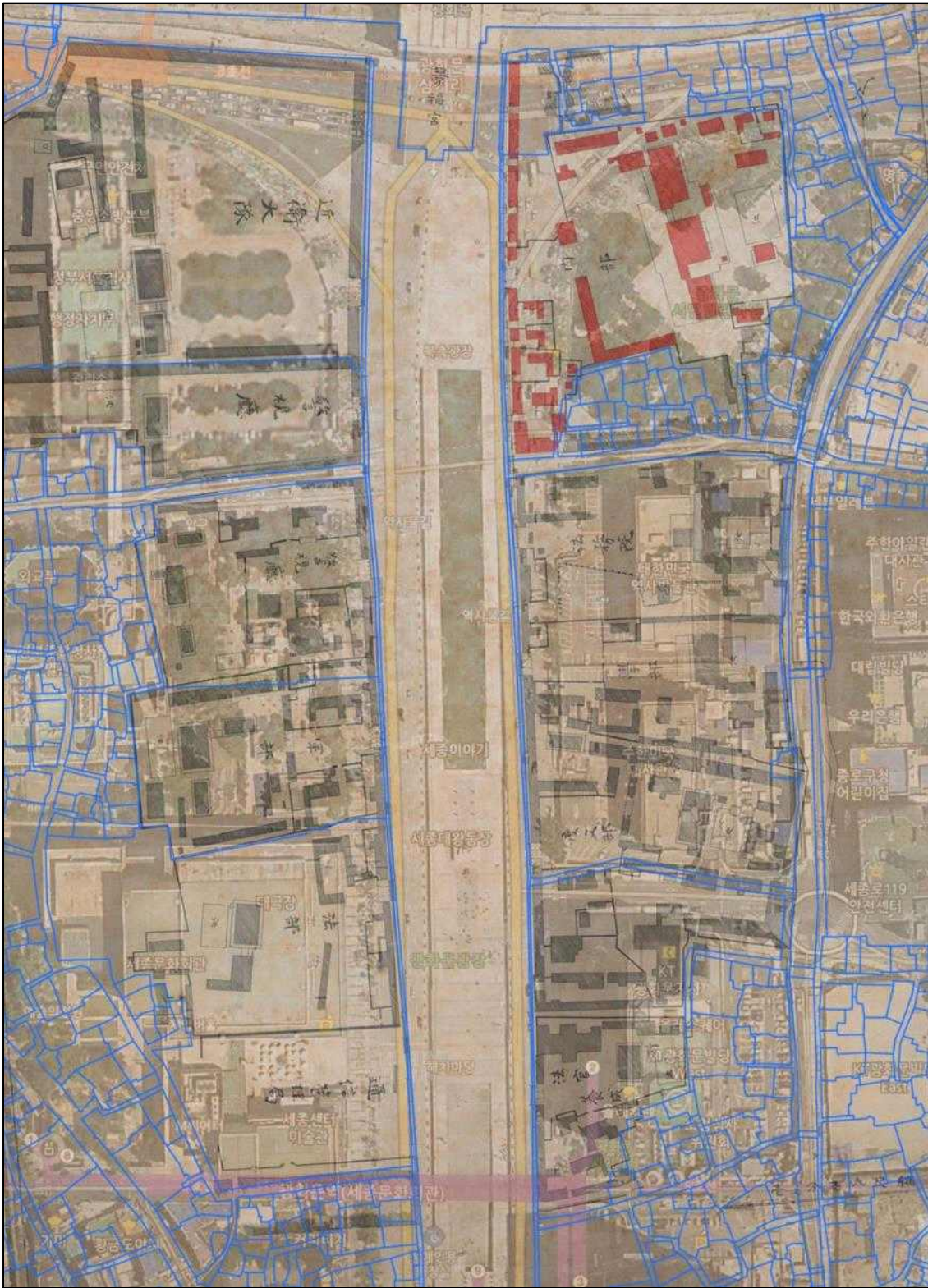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1907~1910년)+ 발굴조사 유구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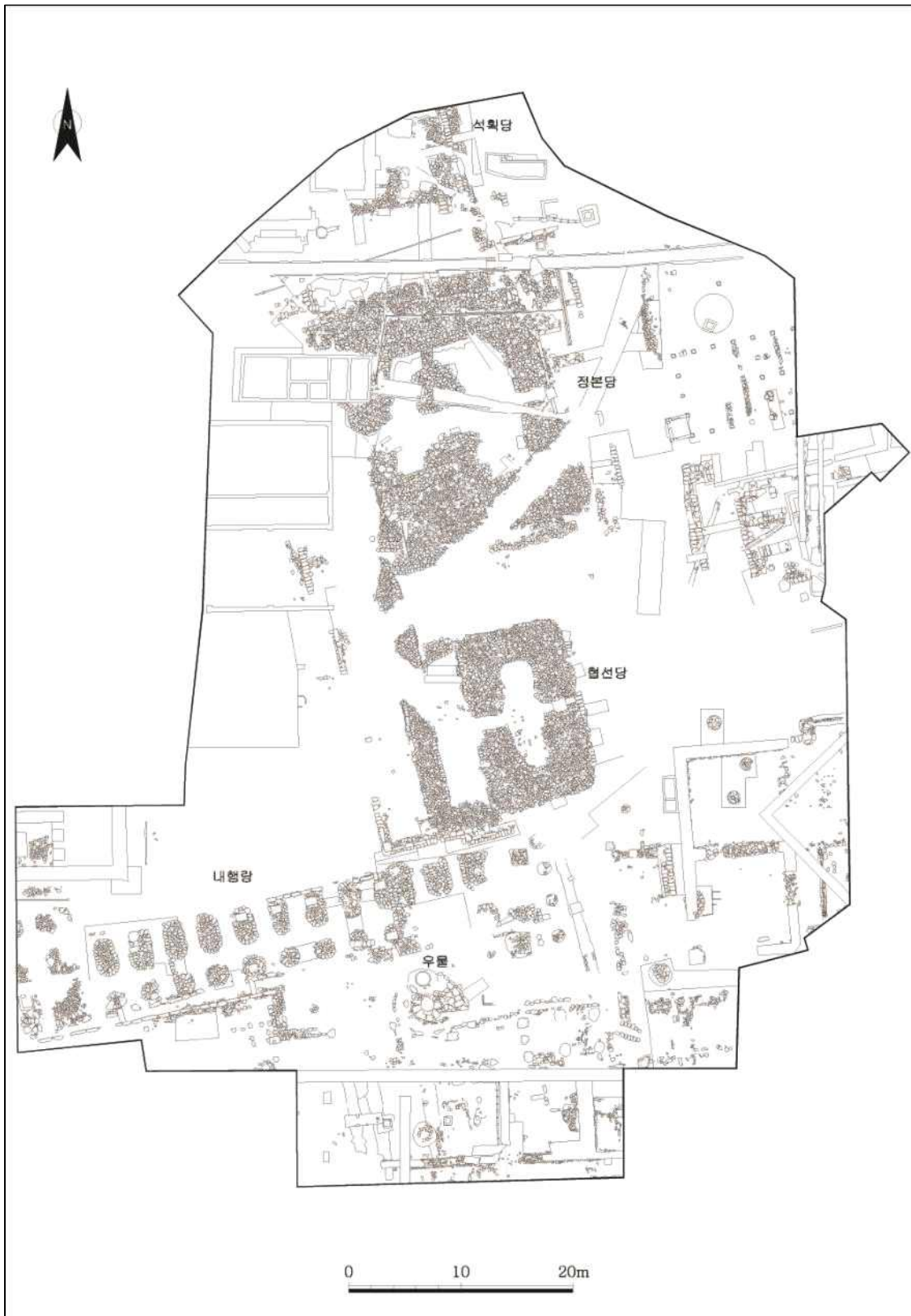
「광화문의제관아실측평면도」(1907~1910년)+ 발굴조사 유구 평면도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지적도+문화재구역100m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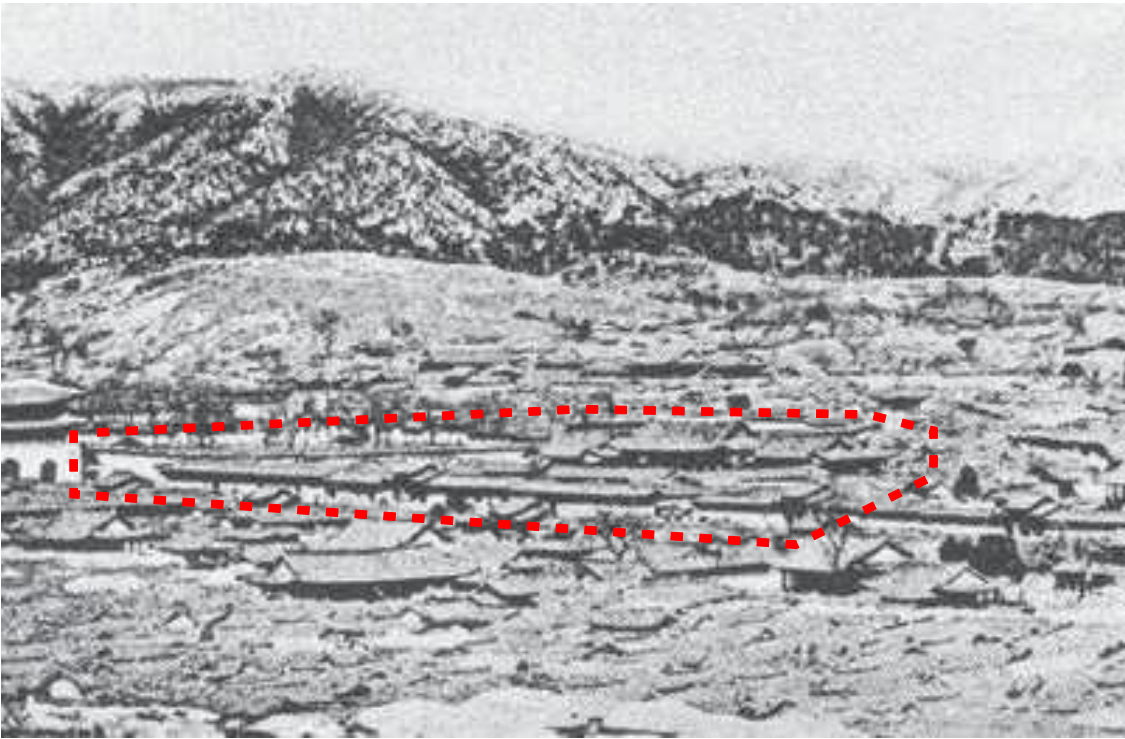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1907~1910년)+「지적원도」(1912년)+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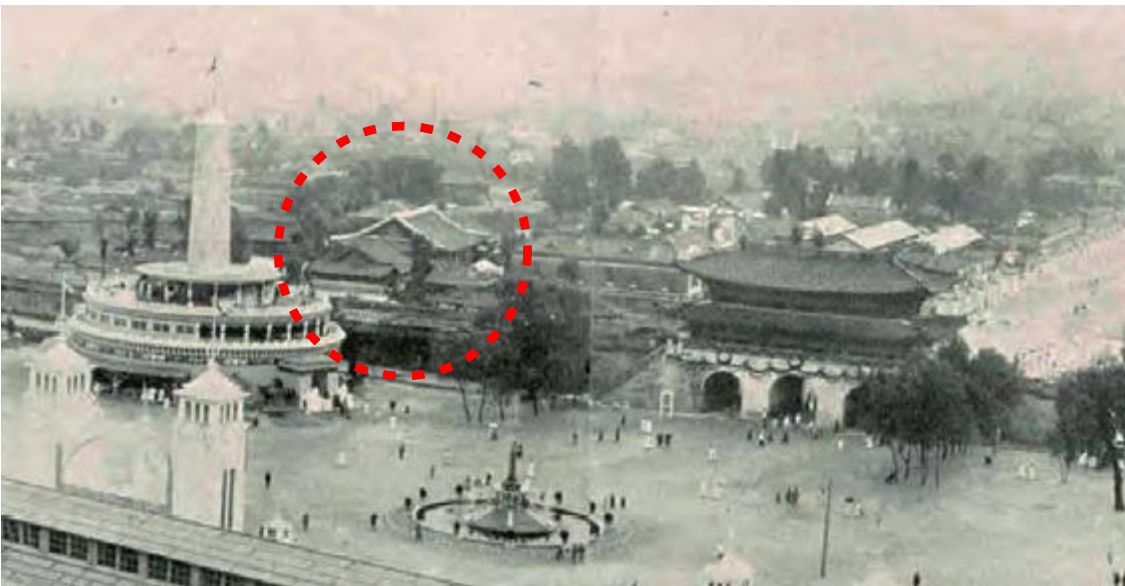


서울 의정부지 발굴조사 전체 평면도

□ 근대



모리스 쿠랑 촬영 사진 부분, 1890(서울역사박물관, 『모리스 쿠랑의 서울의 추억』, 2010)



시정오년기념조선물산공진회 당시 의정부터 전경, 1915



“war office”라는 표제로 수록된 정본당의 정면 모습
(Constance J.D. Tayler, Koreans at Home, 1904)



京畿觀察府宣化堂
(現京畿道廳本館の東方にあつたもの)

경기관찰부선화당(『경성부사』 권2, 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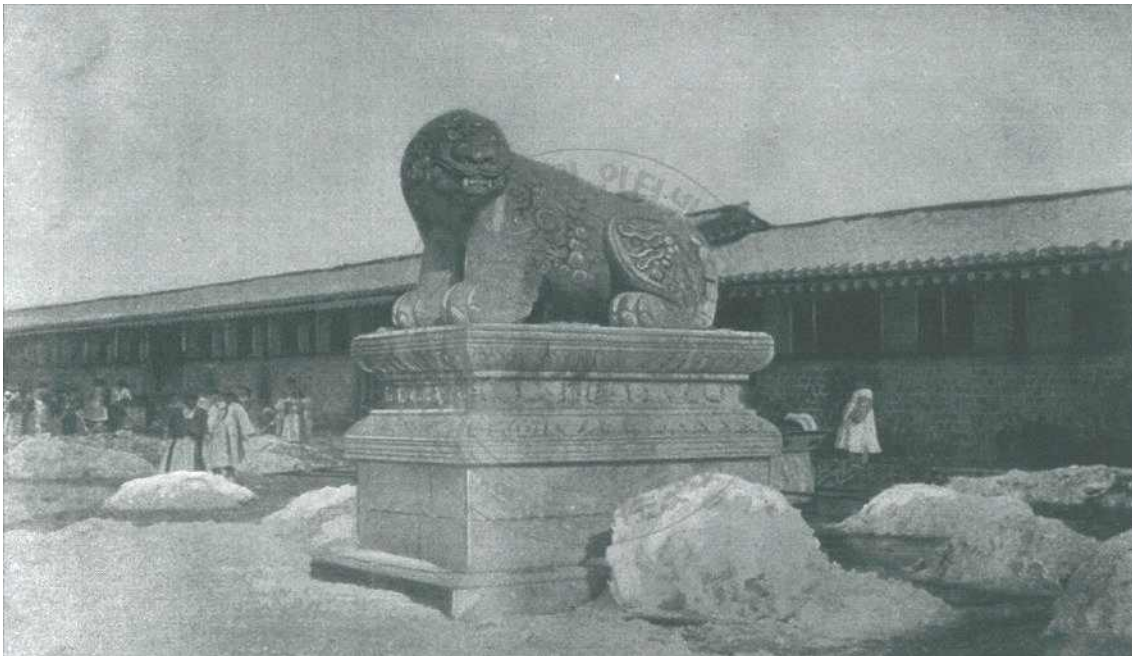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사진엽서, 장충단으로 옮겨진 의정부 정자(추정), 1926년 이후



오가와 이신 촬영 사진 부분, 1886, 스미소니언박물관 소장



이폴리트 프랑델 촬영 사진 부분, 1892~1893
 (이폴리트 프랑델, 「먼 나라 꼬레 : 이폴리트 프랑델의 기억 속으로」, 경기도박물관, 2003)



국가기록원 소장번호 CET0026206, 1883 추정



이사벨라 비숍 촬영 사진 부분, 1897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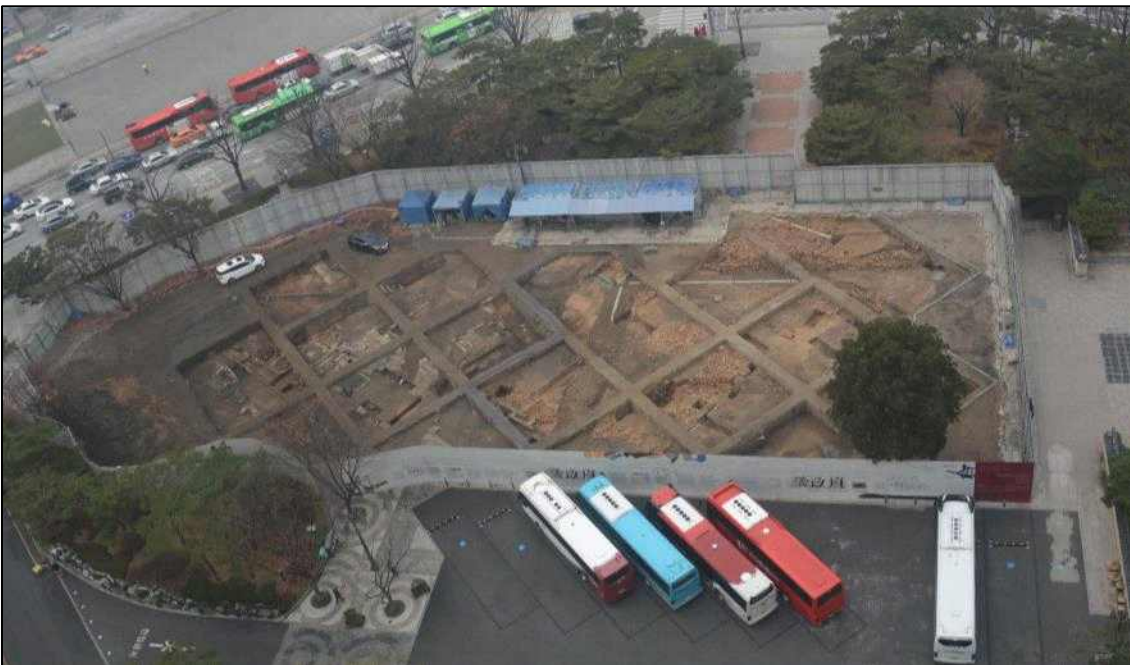


구 의정부 청사 남쪽의 외행랑 모서리 부분, 1927~1935,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발굴조사



조사 전 전경



2016년 1차 시굴조사 후 전경



2017년 2차 시굴조사 후 전경



N1E1Gr 시굴트렌치 세부



N2E1Gr 시굴트렌치 세부



1호 건물지(추정 정본당) 전경



2호 건물지(추정 협선당) 전경



S2W2 그리드 기반 석렬 근경



3호 석렬 전경



2018년 발굴조사 후 전경



1호 건물지(정본당-政本堂) 전경



2호 건물지(협선당-協宣堂) 전경



3호 건물지(석화당-石畵堂) 전경



4호 건물지(내행랑) 전경



5호 건물지(정자) 전경



연지 전경



6호 건물지 전경



7호 건물지 전경



우물 조사 후 전경



2019년 조사 전 현황



2019년 조사 후 전경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현 공원구역의 지정구역 확대가 필요하며, 도로 등은 경복궁과의 일체성에서 개별심의구역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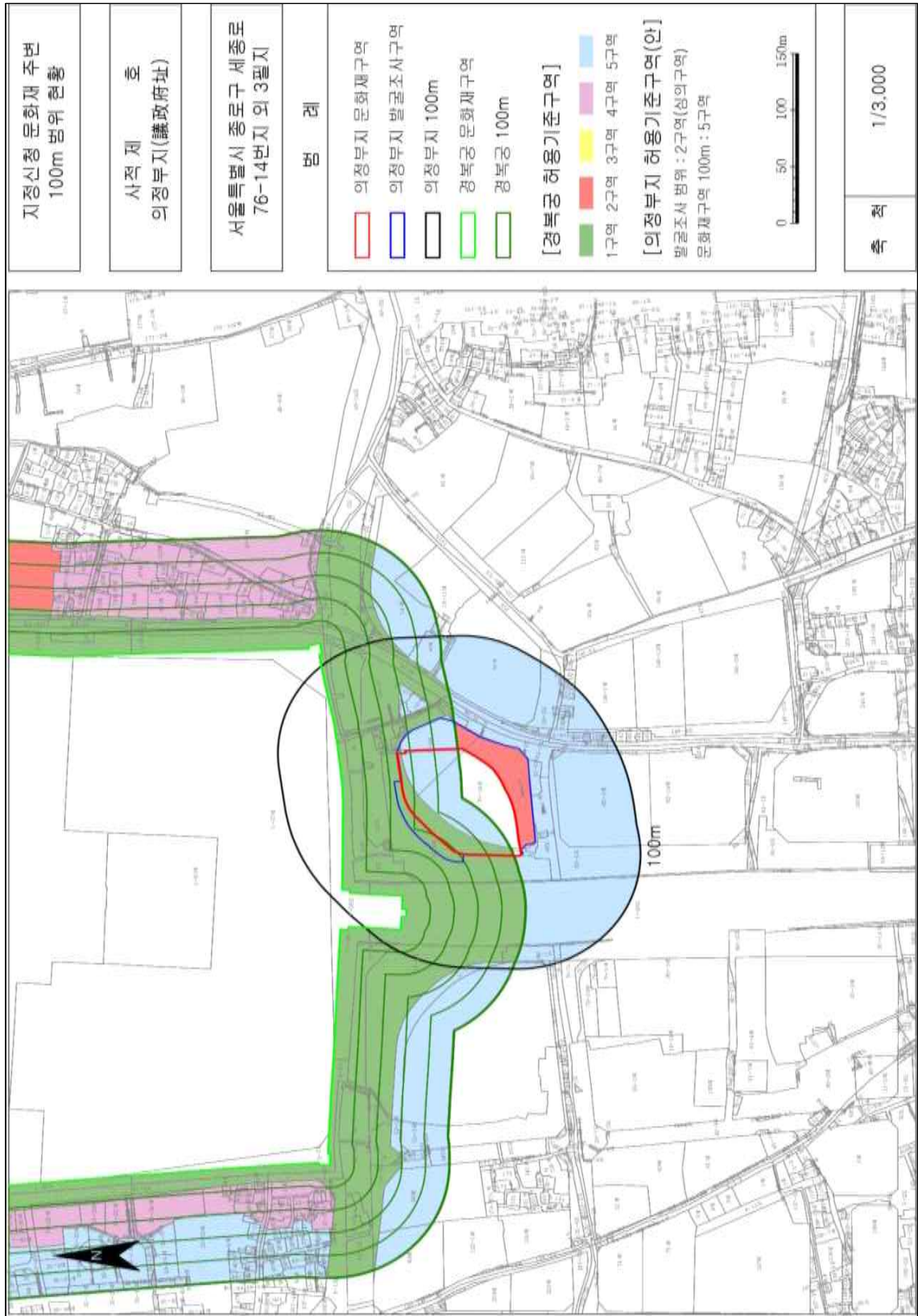
■ 현상변경허용기준

- 문화재 주변지역의 개발행위에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근거하여 문화재 지정구역 외곽 100m 이내로 설정되었다.
- 사적지정 대상인 의정부지의 경우,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사적 제117호 경복궁의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일정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제안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은 문화재 지정구역의 외곽 100m 안쪽을 기존의 사적 제117호 경복궁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설정하는 안이다.
- 사적 제117호 경복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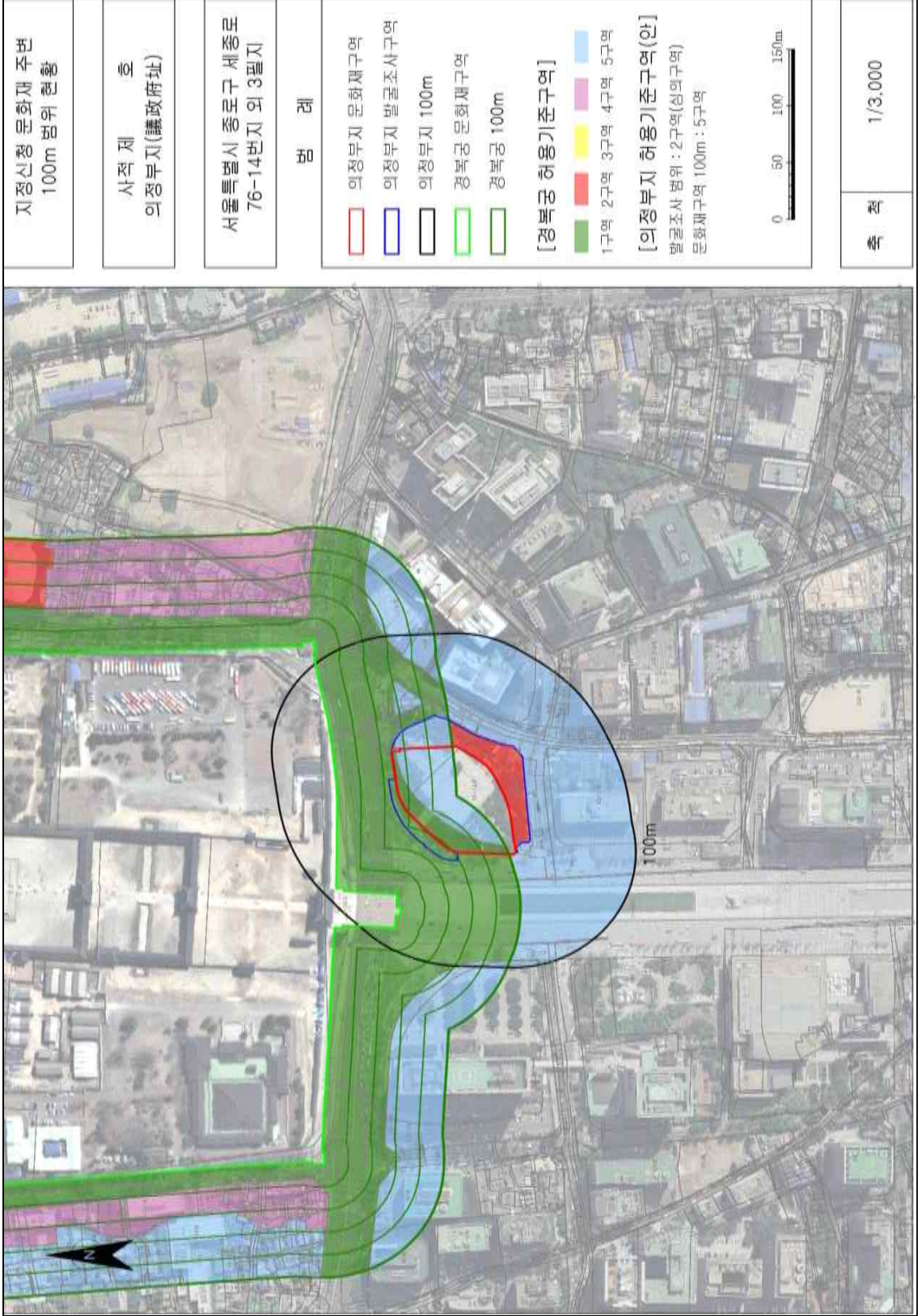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17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의정부지의 경우, 4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부 유지가 비교적 양호하게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 유지가 잔존하는 곳까지 범위에 포함시켜 문화재구역을 설정하였다. 다만 의정부지 북쪽은 사적 117호인 경복궁 문화재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보호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경복궁 보호구역을 근거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적용한다.
- 의정부지 현상변경기준(안)은 의정부지 남쪽 일원 가운데 향후 유적 보존을 위해 기존 발굴조사지역까지 2구역(심의구역)으로 설정하여 유적을 보호한다. 그러나 의정부지 주변지역의 경우 도로 및 소규모의 미개발지를 제외하고 기 개발된 대형 빌딩들이 들어서 있어 별도의 구역설정은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의구역 외곽 100m까지 5구역으로 일괄 설정하여 주변 지역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구분	<의정부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발굴조사구역	○ 심의구역		
100m	○ 건축물 최고 높이 53.6m 이하	○ 건축물 최고 높이 56.6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서울 의정부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지적도



서울 의정부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지적도+위성영상도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의정부지 정비계획(안)

구분			내용	연차
발굴조사 계획안			발굴조사 및 현장공개	단기 (1~2년차)
유구정비 계획안	1안 유구 자체 정비	①1-1안	복토 후 상부 형상화	중기 (3~5년차)
		②1-2안	복토 후 상부 건물요소 부분 복원 (기단, 월대, 초석 등)	
		③1-3안	노출 후 보호시설 설치	
	2안 유구 위 건물 복원	④2-1안	의정부 주요건물 복원 : 실내 제한 활용	
		⑤2-2안	의정부 주요건물 복원 : 실내 적극 활용	
		⑥2-3안	의정부 건물 전체 복원 (육조거리 원형 회복과 연계)	장기

1) 1-1안 : 유구보존조치 집중+유구형상화

- 1-1안은 유구 상부를 복토한 후 복토한 대지 위에 유구의 평면상 경계나 기둥 자리 등을 표시함으로써 유구의 위치, 크기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안이다. 형상화의 방식은 공간 활용의 목적에 따라 원 부재의 형태를 적절히 따르는 방식에서부터 새로운 재료와 형태를 이용한 적극적인 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

2) 1-2안 : 건물 요소 부분복원+유구형상화

- 고증과 발굴 유구 해석을 바탕으로 기단, 월대, 초석 등 건물의 일부를 복원하는 안이다. 기단부의 복원은 관람객에게 건물의 전체 규모와 배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초석이나 기둥 일부의 복원은 가구 구조의 짐작을 돕는다. 내행랑과 외곽담장으로 구획된 의정부 영역은 바닥 패턴을 이용한 형상화 등을 통해 내외 경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도록 한다.

3) 1-3안 : 유구 노출 전시+보호시설물 설치

- 발굴된 유구를 노출시켜 전시하고, 보호시설물로 유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유적을 볼 수 있게 하는 안이다. 정본당, 협선당, 석회당 등 중심건물과 연지, 사인사, 내행랑, 내삼문 등의 발굴 유적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보존처리나 보호시설물 건축 등의 방법으로 보호하여 방문자가 유구를 관람할 수 있게 한다. 발굴된 상태를 유지한 채 겹겹이 쌓인 시간의 켜를 관람객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 발굴 유구의 잔존 상태에 따라 외부로 노출시킬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어떤 방식의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결정한다. 발굴된 유구에 대한 부분적인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의정부지 유구 전체에 대한 보호각을 씌우는 방식 2가지가 검토될 수 있다.

4) 2-1안 : 주요 건물 복원+실내공간 제한 활용

- 정본당과 좌우 협선당, 석회당을 비롯한 중심건물과 내행랑, 후원 정자, 사인사 등 현재 의정부지의 상황에서 복원이 가능한 건물들까지 복원한다. 정본당·협선당·석회당 내부의 수장을 고식으로 복원하여 방문객의 상시 진입을 막고 밖에서 감상하도록 한다. 실내는 비워두거나 인물 모형, 가구와 소품 전시 등으로 하여 바깥에서 들여다보게만 하거나 조성한다. 의상 체험이나 행례 재현 등 일시적인 행사 때에만 제한적으로 실내에 들어가 감상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고증이 가능하다면 조선시대 의정부의 행례를 재현한 행사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2안과 다르게 건물 내부에서도 행사 재현이 가능하다.

5) 2-2안 : 주요 건물 복원+실내공간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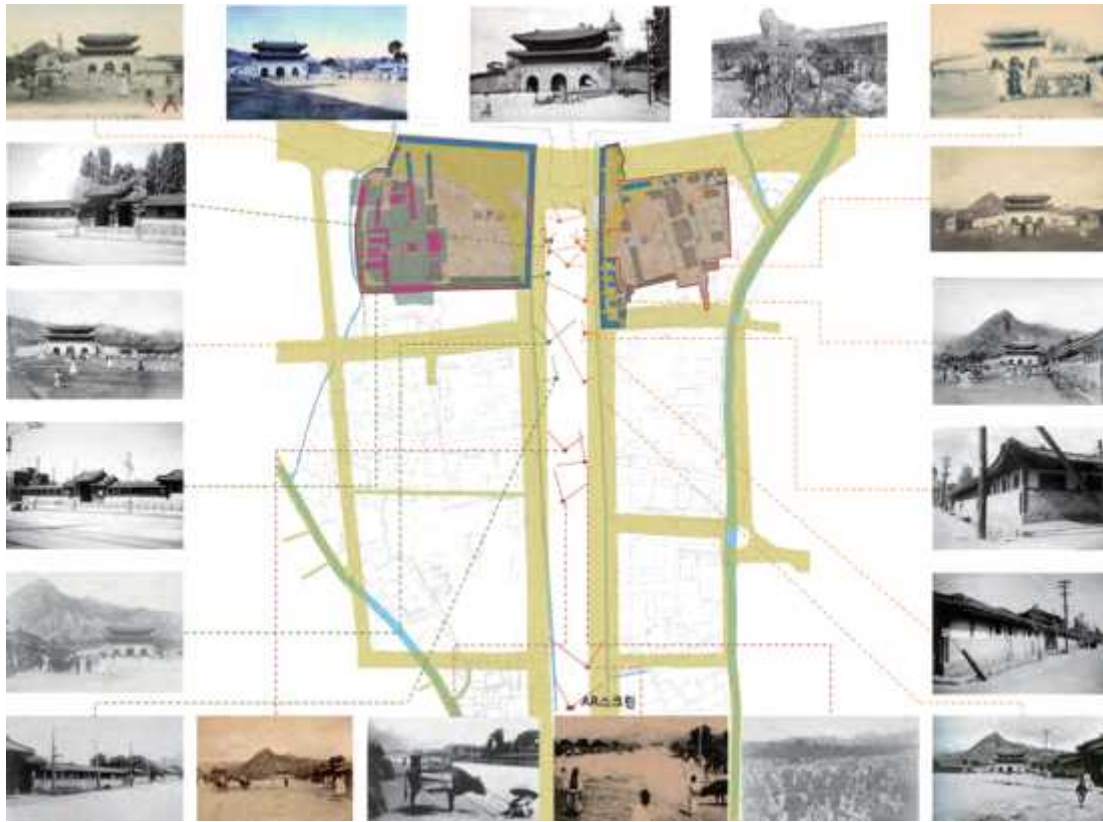
- 정본당과 좌우 협선당, 석회당을 비롯한 중심건물과 내행랑, 후원 정자, 사인사 등 현재 의정부지의 상황에서 복원이 가능한 건물들까지 복원한다.
- 2-2안은 복원된 건물의 내부 수장을 현대적 쓰임에 맞게 변경하여 부분적으로 전시실 등으로 활용하는 정비안이다. 이럴 경우 방문객들은 복원된 건물의 운영 시간 동안에는 상시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용 가능하다. 건물의 가구 구조와 외부에서 보이는 수장은 가능한 한 고증과 유구 해석을 통해 도출된 복원안을 그대로 따르고, 내부는 활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부가적인 수장이나 시설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성한다.

6) 2-3안 : 최대 범위의 복원

- 육조거리의 원형 회복 사업이 추진되어 주변 도로가 지하화 혹은 우회되고 도보화가 이루어진다면 담장과 부속사, 외행랑 등 의정부지 영역 내 모든 건축물을 복원할 수 있다. 관리, 안내, 전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광화문광장 가까이에 배치하여 의정부지의 장소성을 알릴 수 있는 접면을 넓혀 소통을 증대시킨다.
- 의정부에 속한 모든 건축물을 완전하게 재현하기 어려운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주요 건축물과 시설을 최대 범위, 최대 원형에 가깝게 재현하여 육조거리 전반의 역사와 상징성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복원된 의정부 청사는 실내뿐만 아니라 고증을 거친 의례와 관청의 실상을 재현하는 공간으로서도 그 이용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의정부지 활용계획(안) : 의정부와 육조거리 증강현실 활용방안

고사진을 이용한 증강현실은 의정부지를 비롯하여 의정부 서쪽 삼군부 등 육조거리 전반에서 응용 가능하다. 육조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이 다수 잔존하며, 대부분 촬영위치 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광화문광장 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한다. 콘텐츠 제작은 고사진과 해당 장면, 해당 관청에 관한 음성안내를 포함한다. 육조거리의 증강현실 콘텐츠 역시 의정부와 마찬가지로 시범 운영하고 차차 정식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9. 종합의견

- 의정부지는 1398년(태조7)에 경복궁 광화문 앞 동편에 지어져 조선 500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경복궁과 함께 장소적 가치를 가진다.
- 또한 의정부지는 조선왕조 국정의 최고위 관청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의정부의 건축 양식은 중앙에 지붕이 한 단 높은 중심 건물이 서고 좌우에 건물이 나란히 배치되는 3당 병립 형태로 지어졌다.
- 최근 실시된 의정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는 중심 전각인 정본당과 그 좌우 석회당과 협선당의 건물 위치가 확인되었으며, 정본당 뒤로는 연지와 함께 못가에 세웠던 정자 유구도 확인되었다.
- 고종 때 다시 지어진 3당 병립 형식의 의정부 중심 전각 모습은 1901년 이전에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9년도까지의 발굴조사는 사진자료와 일치하는 건물 배치를 보여주고 있어, 사적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의정부지를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 그러나 현 지정 신청 구역은 발굴지를 중심으로 한 구역만을 지정구역으로 신청하고 있어 의정부지의 장소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현 공원부지 전체를 지정구역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거창 거열산성 사적 지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거창군 소재 「거창 거열산성(居昌 居列山城)」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거창 거열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치 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함.
 - '15. 6월 지정 신청, '15.8.31. 현지조사, '15.9.14. 보완요청(거열성의 명확한 시대 규명을 위한 고고학적 발굴조사 필요), '20.5.28. 현지조사
 - '20년 7차 위원회('20.07.08.) 조건부가결 : 명칭은 '거창 거열산성'으로 검토
- 사적지정 예고 결과
 - 공고명 : 거창 거열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 공고일(예고일) : '20.07.20.(문화재청 공고 2020-230호)
 - 접수의견 : 개인소유주 토지매입 요구 1건(대상필지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164)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거창 거열산성(居昌 居列山城)
 - 소재지 : 경남 거창읍 상림리 산54-2 외
- (3) 지정신청 명칭 : 거창 거열산성(居昌 居列山城)
- (4)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면적 : 문화재구역 11필지 68,746㎡
- (5) 관리단체(안) : 거창군
- (6) 신청사유
 - 거열산성은 축조시기와 축조기법을 달리하는 1차성과 2차성이 확인됨.
1차성은 삼국항쟁기 신라와 백제의 영토확장 각축장으로 문헌기록에서 실체가 확인되고, 백제 멸망 이후 백제부흥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역사의 현장임. 2차성은 1차성의 체성부를 활용하여 증축하였으며, 1차성과 2차성 각 계곡부에서 집수지가 확인되어 성곽연구사 및 수리사를 규명할 수 있는 특별한 사례임

라. 참고사항

(1) 추진경과

- 1997.08 : 거열성 지표조사(체성 축조기법, 전체길이 측량 및 건물지 확인)
- 1997.12 : 거열성 남벽 1차 복원공사
- 2000.09 : 거열성 남벽 2차 복원공사
- 2003.11 : 거열성 서벽 복원공사
- 2004.11.~2005.02. : 거열성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시굴조사(체성 현황, 축조시기, 축조방법, 북문지, 성내 건물지, 체성 전체길이 GPS 정밀측량)
- 2008.11.~2009.02. : 거열성 서쪽 계곡부 체성과 집수시설 발굴조사(체성 현황 및 퇴수구, 집수시설 2기, 내부석축)
- 2015.05. : 거열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거열성의 역사적 가치 조명)
- 2014.11.~ 2015.05. : 거열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용역
- 2015.11.~ 2016.01. : 거열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 시발굴조사(1차, 2차 이중성, 6세기 중엽 1차성 축조 후 7세기 후반 2차성 수축, 2차성 동쪽 집수지 확인)
- 2015.05.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국가사적 신청(거창군⇒경남도)
- 2015.06. : 제2회 경상남도 사적매장분과위원회 원안 통과
- 2015.06. : 문화재청 사적지정 신청(경남도⇒문화재청)
- 2015.08. : 문화재 위원 거열성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현지심사
- 2015.09.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자료보완 요구(거열성 시대규명을 위한 고고학적 발굴조사 필요)
- 2015.10.~2016.01. : 거열성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시굴조사(시기 및 축조 기법을 달리하는 1차성과 2차성으로 구성된 이중성, 동쪽 곡부 2차성 집수지 확인)
- 2016.11. : 거열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자문회의
- 2017.03~11. : 거열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출토유물 분석 학술연구용역
- 2019.04~09. : 거열성 집수지 학술발굴조사(동쪽 곡부 2차성 집수지 1기, 배수시설, 수거시설, 축대)
- 2019. 11. : 거열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 2020. 05. : 문화재 위원 거열성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현지심사

(2) 현지조사의견('20.05.28./문화재위원 ○○○, 토지주택박물관 ○○○, 전문위원 ○○○)

1) 문화재위원 ○○○

- 거창 거열성은 1974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거창지역의 대표적인 고대산성으로, 그간 5차례의 시발굴조사와 2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하여 그 역사적 성격이 대체로 밝혀진 성곽임.
- 1호집수지의 출토유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초축은 신라에 의해 6세기 경에 축조되어 일시적으로 백제에 점령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신라에 의해 경영된 산성으로, 특히 이 산성은 <삼국사기> 문무왕 13년(673) 기록에 나타나는 '거열주 만홍사산성'으로 비정되는 바, 이 시기는 신라가 당나라에 대항하여 기존 성곽을 대폭 증축하거나 새로운 성곽을 축조하는 시기로, 거열성이 드물게 <삼국사기> 기록과 부합하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나당전쟁시기 거열성 2차 성벽을 축조한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축성법 연구에서 시기적 기준지표가 되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고 판단됨
- 또한, 2차 성벽 안에 축조한 집수지는 급경사지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력 댐과 유사한 집수지 보호 석축시설을 시공하였는 바, 이는 다른 성곽유적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한 공법의 집수지임.
- 따라서 상기의 몇가지 학술적 측면에서의 가치로 볼 때,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할만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2) 토지주택박물관 ○○○

- 거열성은 거열주의 치소성(治所城)으로 추정되고 있음
 - 신라는 통일기 말까지 주군현의 치소가 산성에 있었으며, 주-군-현의 치소성은 축성시점부터 중요도와 규모를 달리하였음
 - 거열성은 거열주의 治所城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성곽이며, 9주의 치소성 중 삼랑주(신기리산성), 한산주(이성산성), 웅천주(공산성)가 사적으로 지정된 상태임
- 거열성의 외성(2차성)은 문무왕 13년(673) 축성된 만홍사산성임
 - 문무왕 13년 대당전쟁에 대비하여 신라는 전국에 10개의 대형 산성을 쌓았으며 그 중 하나가 거열성의 외성(2차성)으로 추정되는 만홍사산성임
-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명칭이 실제 유적으로 비정되는 성곽임
 -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축성기록은 70건 정도이며, 거열성은 축성기록과 함께 흙순과 천존관련 일화가 남아 있으며 역사속의 명칭이 실제 유적으로

- 비정되는 소수의 유적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축성시점의 차이로 인한 축성법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음
 - 거열성 내성(1차성)은 6세기 후반 편암계 세장방형 석재로 협축식으로 구축
 - 거열성 외성(2차성)은 673년 화강암 가공성돌과 지대석을 사용하여 편축식으로 쌓아 신라 성곽 축성법 변화의 실체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유적임
 - 사적지정 가치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거열성은 1990년대 후반 외성(2차성)이 고증없이 복원되면서 원형의 상당부분이 변형되었으나 유적의 학술적인 중요성과 관리와 보존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고려할 때 사적지정가치와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거창 거열성(居昌 居烈城) 사적 지정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0. 5. 28.(목)
- 조 사 자 : 문화재위원 ○○○, LH토지박물관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경상남도 기념물 제 22호(1974년 지정)인 거창 거열성(居昌 居烈城)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 신청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거창 거열성(居昌 居烈城)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 사적의 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인 지역명+문화재명을 고려해 볼 때, 문헌상의 거열성 명칭이 명확치 않으므로 “거창 거열산성(居昌 居烈山城)”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거열성¹⁾은 거창분지의 북서쪽에 위치한 건흥산(乾興山 ; 572m)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건흥산은 거창군의 진산(鎭山)에 해당하는데, 건흥사(乾興寺)라는 절이 있었던 것에서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전한다. 건흥산은 삼봉산(三峰山 ; 1254m)의 남쪽 지류로, 삼봉산은 경상북도 김천시와 거창군의 경계지점에 위치한다. 건흥산은 행정구역상으로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산45-2번지, 거창읍 가지리 산156-2번지, 마리면 영승리 산87-2번지 일원에 해당한다. 위도는 35°42' 07.21" 북이며, 경도는 127°52' 40.59" 서부근이다. 건흥산은 거창읍(거창분지)과 마리면(마리소분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거창읍과 마리면을 모두 조망권에 두는 지리적 요충지이다. 거열성의 남쪽으로는 위천천이 마리소분지 방향에서 거창분지 방향으로 흐르면서 감입곡류(嵌入曲流)하여 협곡을 형성하고 있다. 협곡의 공격사면에는 단애가 형성되어 통과에 어려움이 있으나, 마리소분지와 거창분지를 연결하는 교통로 중 유일

1) 현재 건흥산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는 산성의 공식명칭, 즉 경상남도기념물 지정명칭은 거열성(居烈城)이며, 이외 거열산성·건흥산성·만흥사산성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어지고 있다. 현재 건흥산에 조성되어 있는 거열성은 백제멸망 후 663년까지 백제 부흥운동이 전개된 삼국사기 문헌기록 상의 ‘거열성’으로 비정되어 1974년 12월 28일 경상남도기념물 제22호 거열성(居烈城)으로 지정된바 있다. 한편 문헌기록상의 ‘거열성’을 거창읍 소재 ‘분산성’으로 파악하고, 경상남도기념물 제22호인 거열성을 삼국사기에서 673년 쌓았다(築)는 거열주 ‘만흥사산성(萬興寺山城)’으로 비정하는 “견해 《우리문화재연구원, 2011, 『居昌 居烈山城』, 학술조사보고서 제33책, p.111 / 박성현, 2009, 「신라 尙·良·康州郡縣城의 양상과 형성 과정」 『한국고대사 연구』 p.183》”가 있다.

그러나 2015년 거열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 시굴조사 결과, 거열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축조된 이중성임이 밝혀졌으며, 외성을 먼저 축조 한 후 내성을 축조하는 일반적인 축성 사례와 달리 거열성은 6세기 중엽에 내성을 먼저 축조한 후, 7세기 후반에 이르러 내성의 자재를 재활용하여 대규모로 외성을 증개축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내성과 외성은 축조기법과 규모, 출토유물에서 뚜렷한 차이를 지니고 있어, 오늘날 ‘거열성’의 내성은 663년 백제부흥운동이 전개된 문헌기록상의 거열성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특히 외성은 내성의 일부를 뜯어내어 대규모로 증개축 되었고 축조기법에서 7세기 후반 신라 석축산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673년 거열주에 쌓았다는 만흥사산성으로 비정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건흥산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는 산성을 역사용어이자 경상남도기념물 지정명칭인 ‘거열성(居烈城)’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하게 고개를 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협곡은 마리분지 방향에서 거창분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주요 교통로에 해당하여, 오늘날에도 협곡을 따라 국도 3호선이 위치하고 있다. 위천천을 사이에 두고 거열성의 남쪽으로는 망덕산(望德山 ; 681m)이 위치한다. 망덕산의 정상부에는 망덕산성(望德山城)이 축조되어 있으며, 그 아래 산줄기에도 운정산성(雲亭山城)이 축조되어 있어 북쪽의 거열성과 함께 교통로에 해당하는 위천천을 감싸는 형태를 띤다. 거열성의 북동쪽으로는 금귀산성(金貴山城), 동쪽으로는 분산성(盆山城)과 월곡산성(月谷山城)이 조망권에 위치하고 있다.

- 거창지역에서 확인되는 산성은 대부분 산의 정상부를 감싸는 테피식 형태의 산성으로 분산성과 황사산성을 제외하고는 대개 험준한 산의 정상부를 배경으로 고지에 축성된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성곽은 거창지역에서 무주 및 김천방면, 함양방면으로 넘어가는 교통로와 고령·합천지역에서 가조면을 거쳐 거창방면으로 이동하는 교통로에 다수 소재한다.

이처럼 거창지역에 분포하는 산성의 위치는 주변의 분지들과 분수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창분지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다. 즉 거창분지의 북쪽은 웅양면을 거쳐 김천시 대덕면 관기리, 지례면을 지나 김천으로 연결되고, 거창군 고제면을 거쳐 소백산맥 분수계 중 안부에 해당하는 신평령을 지나 전북 설천면과 무풍면을 거쳐 무주읍을 통해 논산, 대전, 옥천, 영동 방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 거창분지의 동쪽으로는 살피재를 통해 가조분지로 연결된다.

거창분지의 서쪽으로는 위천소분지, 마리소분지, 안의소분지와 같은 소형분지들이 분포하며, 이를 통과하면 함양분지에 이른다. 안의분지 북서쪽으로는 육십령을 지나 전북 진안을 거쳐 전주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함양분지를 지나서는 팔령치를 지나 전북 남원 및 섬진강 상류로 갈 수 있다. 남쪽으로는 황강과 연하여 만들어진 통로를 따라 남동쪽으로 합천군 봉산면 반양에 이르고, 이곳에서 동쪽으로 합천군 묘산과 야로면·고령군 쌍림면을 지나 고령군 고령읍에 이른다. 봉산면 반양에서 남쪽으로 황강을 따라 계속 나아가면 합천군 삼가면에 이르고, 여기서 산청군 생비령을 통해 진주시와 연결된다.¹⁾

이처럼 거창지역은 신라와 백제간의 주요 교통로에 해당한다. 거창지역에 21개소에 이르는 산성이 집중적으로 축조되어 있는 분포양상 또한 거창지역이 지니는 지정학적·군사적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거열성은 거창지역 최대 규모의 산성으로 이러한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1) 기록에서 확인되는 삼국통일 공간의 실체

- 거창지역은 삼국항쟁기와 백제부흥운동기에 신라와 백제가 각축을 벌이던 곳으로 거열성은 거창의 진산인 건흥산(乾興山)에 조성된 입지, 거창지역 삼국시대 산성

1) 황상일, 2004, 「고대 거창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할」 『거창의 역사와 문화』, 거창군·경북 영남문화연구원.

중 최대의 규모를 볼 때 거창군을 대표하는 산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거열성은 『삼국사기』 기록에서 백제멸망 후 3년간 백제부흥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다 663년 신라 장군 흠순(欽純)과 천존(天存)에 의해 성이 함락되어 700명이 전사한 ‘거열성’으로 비정되어, 1974년 12월 28일 경상남도기념물 제 22호 거열성으로 지정되었다. 거열성은 5차에 걸친 학술조사를 통해 6세기 중엽에 조성된 1차성과 7세기 후엽 이후 1차성에 증축된 2차성으로 구성된 석축산성으로 독특한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이 중 1차성은 입지 및 규모·체성부의 협축기법·세장방형의 면석형태 및 축조기법·장방형의 집수지 형태 및 축조기법·출토유물¹⁾ 등을 통해 6세기 중엽 신라가 가야지역으로 서진하는 과정에서 거창지역에서 최초로 축조되었고, 백제멸망 이후에는 거창지역 내에서 백제부흥운동군이 활동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산성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 거열성은 『삼국사기』 제6권 신라본기 문무왕 3년 조에 의하면,

「二月 欽純天存 領兵 攻取百濟居列城斬首七百餘級 又攻居勿城沙平城降之又攻德安城 斬首一千七十級」

“음력 2월 흠순과 천존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 거열성을 공취하여 7백여명의 목을 베고 또한 거물성, 사평성을 공격하여 항복을 받았고, 덕안성을 공격하여 1천 7십 명의 목을 베었다.”

라고 기록되어 역사적 실체가 명확하게 확인되며, 특히 663년 거열성 함락 이후 백제부흥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여러 성이 차례로 신라군에 진압되어 실제적인 백제멸망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거열성이 지니는 역사적 상징성은 매우 크다.²⁾

2) 통일신라 9주의 하나인 거열주(居列州)의 치소성

- 주(州)는 통일신라 군현제(郡縣制)에서 위계상 가장 상층부에 속하는 치소(治所)로 거열성은 문무왕 5년(665)에 세워진 거열주의 치소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문무왕 5년 신라는 하주(下州)의 영역을 동서로 나누어 동쪽을 삼랑주라 하고 서쪽을 거열주(居列州)라 삼았으며, 이후 신문왕 5년(757)에 거열주를 나누어 완산주와 청주를 뒀으로써 비로소 9주가 완성되었다.
- 거열주의 주성(州城)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거열주성은 기존의 성곽을 치소성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열주의 치소성은 거열주가 설치되기 3년 전에 등장하는 ‘거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663년 신라 장군 흠순과 천존은 백제부흥군이 농성하고 있는 거열성을 함락시키고 700명의 목을 베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가 백제로부터 공취한 거열성을 거열주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³⁾

1) 『삼국사기』 문헌기록을 통해 백제가 신라의 서쪽변경에 해당하는 거창 및 함천지역을 642년에 공격하여 660(663)년 까지 점유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현재까지 이곳 일원의 관방유적, 생활유적, 생산유적 등 다량으로 축적된 발굴조사 자료에서 백제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 지역적 특수성을 지닌다.

2) 심정보, 2016, 「거열성 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전문가포럼 회의록」.

이러한 치소성은 삼국시대에는 대부분이 산성에 입지하고 있으며, 치소는 지방관이 공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공해(公廨) 또는 관아(官衙)라 한다. 치소성은 치소를 보호하기 위하여 쌓거나, 치소를 설치한 거점성에 해당한다. 9주의 치소성들은 신라의 성곽 중 최상위 등급에 속하는 성곽에 해당하므로 거열성은 뛰어난 상징성을 지닌다.

3) 산성의 축성시기와 명칭, 위치를 알 수 있는 희소가치

- 거열성은 축성시기와 축성기법을 달리하는 1차성과 2차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창지역 최대 규모 삼국시대 산성에 해당한다. 이 중 2차성은 입지 및 규모, 출토유물, 문헌기록 등을 통해 거열주 만흥사산성(萬興寺山城)으로 비정하고 있다.
- 현재 남한지역에 있는 성의 숫자는 2,182개에 달한다. 그 중 축성당시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은 극소수다. 게다가 축성 연도가 기록되어 있고 위치비정에 이견이 없는 성곽은 더욱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삼국사기』에 축성 내용이 기록된 성곽의 숫자는 대략 70개 정도다. 축성기록은 축성시점과 축성목적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축성기록에 부합하는 성곽을 특정하게 되면, 해당 시기 축성법을 파악할 수 있다. 거열성이 문무왕 13년(673)에 축성된 만흥사산성이라는 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적지정 가치를 충족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역사적 가치가 크고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희소성 때문이다.

- 『삼국사기』 권 제7 신라본기 문무왕 13년조에는,
「築國原城古藪長城北兄山城召文城耳山城首若州走壤城一名迭巖城.達含郡主岑城居烈州萬興寺山城敵良州骨爭峴城」

“673년 9월에 국원성 옛날의 완장성이다. 북형산성, 소문성, 이산성, 수약주의 주양성 (또는 질암성이라고도 하였다.) 달함군의 주잠성, 거열주(居烈州)의 만흥사산성(萬興寺山城), 삼랑주의 골쟁현성을 쌓았다.”

라고 문무왕 13년에 거열주에 만흥사산성을 축성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어, 산성의 축성시기 및 명칭을 상세히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이 때 거열주의 만흥사산성 축성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은 당나라와의 통일전쟁 대비와 거열주 치소성의 확충을 위해 대대적인 축성사업을 펼쳤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거열성이 1차성에서 2차성으로 대대적인 증축이 이루어진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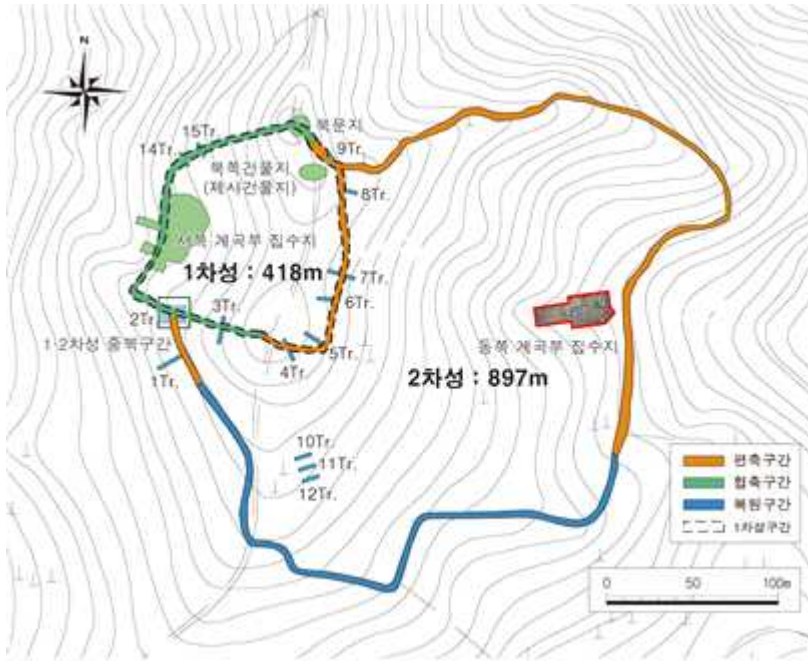
- 『대동지지』 거창군 성지(城地) 조에는,
「城地 乾興山古城 新羅文武王十三年 築居列州萬興寺山城 周三里. 加祚古縣城 稱金貴山城新羅婆娑尼師今王八年七月築加召城周一千五百八十尺泉二. 古城北五里平岡山 周三里. 月谷山城遺址」
“건흥산고성 신라문무왕 13년(673) 거열주 만흥사산성으로 쌓았고 둘레는 3리이다. 下略”

3) 심광주, 2019, 「거창 거열성의 사적지정 가치와 중요성」, 2019 거열성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라고 고성의 축조시기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견훤산고성이 신라 문무왕 13년에 거열주에 만홍사산성으로 축조되었고, 특히 산성의 둘레가 3리, 즉 1,178m정도 임을 밝히고 있어 현재 거열성의 전체둘레인 약 1,145m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견훤산고성이 만홍사고성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지금의 거열성으로 알려진 성 위치에 만홍사고성이 축조되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대목으로 보고 있다.

- 통일신라의 축성기록은 문무왕대와 신문왕대, 성덕왕, 경덕왕, 흥덕왕대에 집중되고 있다. 그중 문무왕대의 축성기록은 대당전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 중요성을 지닌다. 대당전쟁에 대비하여 쌓은 산성들은 국원성(충주), 주양성(춘천), 주잠성(강원도 고성), 만홍사산성(거창), 골쟁현성(양산) 등이다. 이러한 성곽의 위치는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강유역에서 도성으로 연결되는 길목을 몇 겹으로 차단하는 위치에 있다. 도성의 직접적인 방어나 도성민의 입보를 위해서는 서형산성과 북형산성을 증축했으며, 이 때 구축되거나 정비된 산성들은 기존의 거점성에 비해 규모가 대형화 되고 비교적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구축되었다. 즉 이시기 축성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대규모 성곽을 쌓아 유사시 군민들이 농성할 수 있는 입보용 성곽이 만들어진다는 점이다.¹⁾
 - 무엇보다도 673년이라는 정확한 축성시점을 알 수 있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축성은 토목건축기술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토목건축기술은 지리, 지형, 지질, 물리, 수학, 측량, 기하학, 건축, 토목 등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 또한 축성은 많은 기술자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이었다. 성곽의 크기는 축성 대상지역의 인구나 전쟁의 규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축성 목적에 따라 성곽의 입지와 분포양상도 달랐다. 기후와 자연환경의 차이도 축성의 유형을 다르게 했다. 축성에 필요한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해 왔다.
- 이런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축성법은 축성주체와 축성시기에 따라 모두 달랐다. 따라서 축성시기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축성주체와 축성시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술의 척도가 될 수 있다.

1) 서영일은 문무왕 12년(672) 8월 石門전투 패배 이후 김유신의 건의를 받아들여 요해처에서 맞아 싸우는 입보 농성전으로 전술이 변화되었다고 하지만(서영일, 2009, 「신라의 국가형성과 발전단계에 따른 방어체계 연구」 『新羅文化』 제34집,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p.25) 그 해에 이미 晝長城이 축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나당전쟁이 시작되면서 당군을 방어하기 위한 축성계획이 수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거열성 1차성과 2차성 위치도

4) 신라산성 축성기법 변화를 보여주는 핵심유적

- 거열성은 축성시기와 축성방법을 달리하는 1차성과 2차성으로 축조된 독특한 구조를 지닌다. 거열성은 1차성과 2차성의 축성시점이 다르지만 모두 석축(石築)으로 구축되었다. 1차성은 6세기 중엽, 2차성은 7세기 후엽에 축성되어 100년 정도의 시차를 보인다. 거열성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특징은 신라 석성의 축성법의 변화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거열성은 신라 석축산성의 축성법과 관련한 표준유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 1차성에 2차성을 덧붙여 쌓은 성곽은 전국 각지에서 확인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영월 계축산성, 고양 행주산성, 김포 수안산성, 화성 당성 등이다. 더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 성들은 대부분 1차성은 석성이고 2차성은 토성으로 구축되었다. 거열성처럼 시차를 두고 1차성과 2차성이 모두 석성으로 구축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신라의 석성은 견고하면서도 방어 효율성이 높았다. 신라의 초기석성은 세장방형 편암계 성돌, 높고 견고하게 협축식으로 쌓은 체성벽, 보축성벽, 현문식 성문, 성벽통과식 수구, 반원형치와 성 내의 석축집수지 등을 특징으로 한다.
-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고려할 때 거열성의 1차성은 6세기 중후반 신라에 의하여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62년 대가야를 공략한 신라는 뒤이어 함양-거창-고령 루트를 확보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성곽을 구축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거열성에서 확인되는 축성법도 6세기 중엽 신라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거열성의 1차성에서 확인되는 축성법의 특징은 협축식의 성벽과 편암계의 세장방형 성돌, 현문식 성문, 단면 삼각형 보축성벽, 성벽통과식 방형 수구 등을 특징으로 한다. 거열성의 1차성은 삼년산성으로 대표되는 5세기 후반의 성곽에서 100여년이 지난 뒤에 축성되었다. 그 사이에 신라 축성법이 어떻

게 변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삼년산성과 비교할 때 외벽의 높이는 현저하게 낮아졌다. 보축성벽도 높이가 낮아지고 필요한 곳에만 설치되는 양상으로 바뀐다. 반원형 치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여전히 협축식의 체성벽과 현문식 성문은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 통일 전쟁은 신라의 축성법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대당 전쟁으로 인하여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고, 고구려와 백제, 가야의 축성기술이 신라의 축성기술과 융합되었다. 토목건축 기술의 발달도 축성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통일신라 축성법의 핵심은 축성에 사용되는 석재의 변화다. 그 동안은 가공하기 쉬운 변성암이나 퇴적암이 성돌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석공 도구와 기술이 발달하면서 화성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화성암 석재가 화강암이다. 화강암은 매우 단단한 경암이다. 압축강도와 전단강도가 높고 정교한 가공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화강암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재였으므로 최적의 축성 재료라 할 수 있다. 성덕왕 21년(722) 관문성 축성기록은 통일신라에 화강암 가공 성돌이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거열성 1차성의 현문식 성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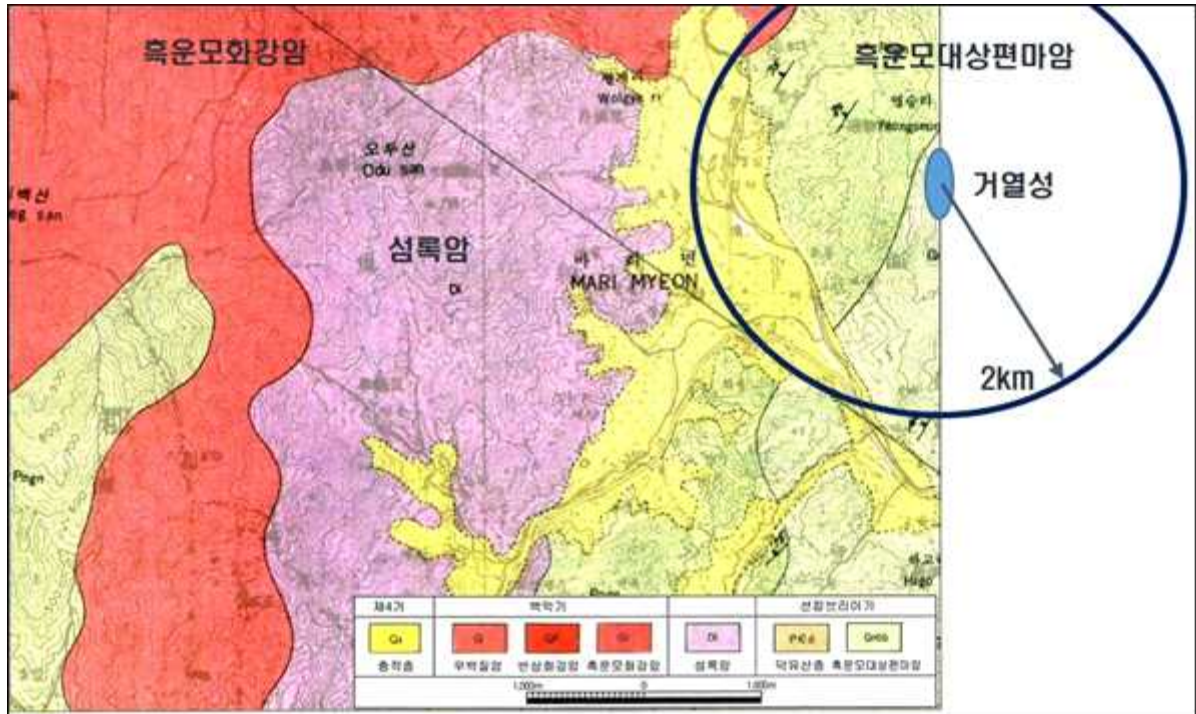
거열성 1차성의 보축성벽



거열성 1차성의 성벽 통과식 수구와 집수지

거열성 인근의 기반암은 흑운모편마암이다.¹⁾ 1차성 축성 성돌의 대부분은 이 흑

운모 편마암으로 축성되었다. 따라서 1차성 성들은 거열성 주변에서 공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차성 축성에 사용된 화강암은 인접지역에서 구할 수 없다. 거열성에서 최소한 2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2차성에 사용된 화강암 성들은 원거리에서 성돌을 운반해 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열성 인근의 지질도



축성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열성 1차성벽(좌), 2차성벽(우)

1) 거창군·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8, 『거창 거열성-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시굴조사』, p.15.



지대석, 퇴물림쌓기, 가공성돌, 편축쌓기가 확인되는 2차성(좌)과 집수지 외벽(우)

<거열성 1차성과 2차성의 축성법 비교>

구 분	1차성	2차성
규 모	418m	1,115m(897m)
축성시기	6세기 중후반	673년(만홍사 산성)
성 돌	흑운모편마암, 세장방형	화강암, 장방형
축 성 법	협축, 바른층 쌓기, 현문식성문	편축, 지대석, 퇴물림쌓기
기 능	거창지역 거점성	거열주의 치소성→거열군의 치소성

- 또 다른 중요한 축성법의 변화는 대형의 지대석 사용이다. 지대석은 성벽의 기초를 강화하고 상부의 하중을 분산시킨다. 성벽의 높이가 낮아지고 들여쌓기 방식으로 쌓아 삼국시대의 성곽에 비해 성벽의 경사가 완만해졌다. 보축성벽도 점차 사라졌다.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드는 협축식성벽 대신 편축식성벽이 일반화되었다. 내부를 성토하고 외벽만 석축으로 성벽을 쌓는 방식은 고구려 축성법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출입이 불편했던 현문식 성문 대신 개거식 성문이 구축되었다. 기존의 현문은 성문높이 까지 등성시설을 만들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했다. 거열성 2차성은 편축식 성벽, 대형의 지대석, 화강암 가공성돌, 퇴물림쌓기 등을 특징으로 한다. 체성벽의 높이도 1차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다. 편축식으로 구축되어 내벽은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내벽 상단을 따라가며 내환도가 조성되어 있다. 집수지 외벽에서는 보축성벽도 여전히 확인된다.

5) 계곡부 집수지 축조공정 및 변천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유적

- 거열성은 발굴조사를 통해 시기를 달리하는 1차성과 2차성의 계곡부 집수시설이 모두 확인된 매우 희소한 사례에 해당하여, 성곽연구사적으로도 의미가 높다. 일반적으로 계곡부 집수지는 퇴적이 용이한 곡부 경사면에 입지하여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또한, 수압 및 토압에 의해 파괴되기 쉬워 조사된 사례가 많지 않다. 거열성은 1차성에서 2기, 2차성에서 1기의 집수지가 확인되어 집수지의 축조공정 및 축조공법의 변천과정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유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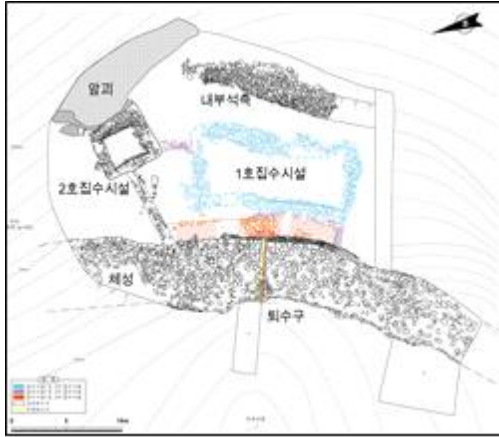


거열성 1차성-계곡부 집수시설

거열성 2차성-계곡부 집수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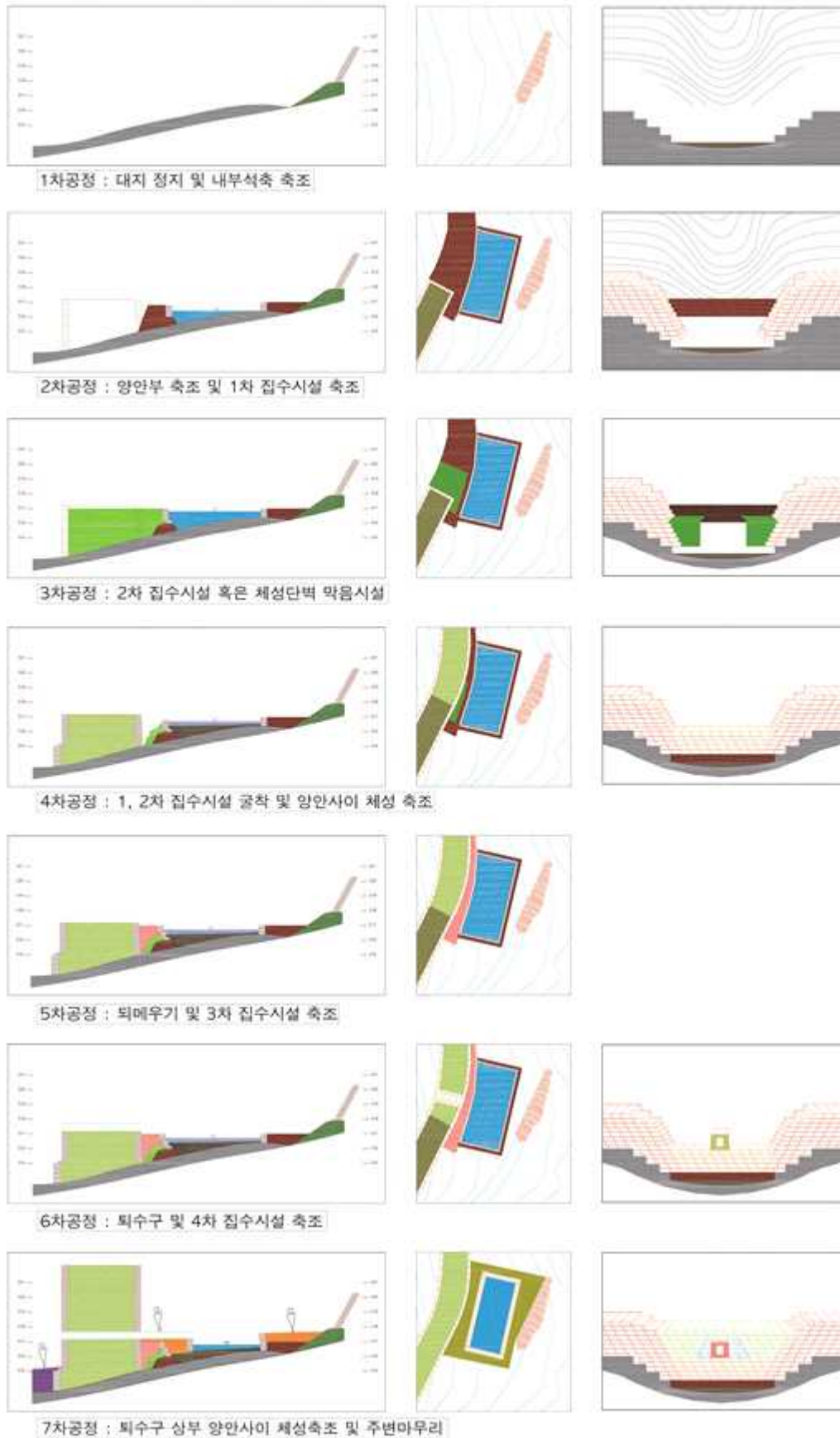
- 대규모 산성에서는 생활을 위해서 대량의 용수 확보가 필수적이며, 산성 내 대량의 용수를 쉽게 확보하고 저장할 수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계곡부이다. 산성에서 집수지를 조성하기 위해 계곡부를 포함하게 될 때에는 사면 내지 능선에 쌓는 체성과 달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 거열성 계곡부 체성과 집수시설을 통해, 계곡부 체성의 축조방법·축조공정상의 특징·횡압력의 감소 방안·퇴수구의 단면적·위치·용도 등 고대 토목 기술의 원형을 규명할 수 있다.
- 현재까지 조사성과에 따르면 1차성 서쪽 계곡부 체성 및 집수지의 축조순서는 다음과 같이 7차 공정으로 대별되어, 이를 통해 고대 산성의 집수시설 축조방법을 복원할 수 있다. 소요자재의 채취장소와 운반도로의 건설이 이루어진 후 본격적인 성곽의 축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축조공정은 다음과 같다(우리문화연구원 2011 인용).
 - ① 1차공정 : 대지와 내부석축 축조. 대지정지는 기반토 혹은 암반이 나오도록 절토한 다음 유기물이 많은 실트질사로 성토하여 체성의 면석을 쌓음. 성기(城基) 조성단계에 해당. 내부석축은 집수시설이 축조될 부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성.
 - ② 2·3차공정 : 2차 공정은 양안부의 체성축조와 1차 집수시설의 축조. 대지 정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체성의 면석을 축조. 면석은 계곡부 양안부터 시작하여 축조하고 이와 동시에 계곡부를 가로질러 막은 1차 집수시설을 설치.
3차 공정은 체성을 축조하기 시작한 부분에 기저부와 체성을 유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물막음 시설 또는 2차 집수시설로 추정되는 시설을 설치.
 - ③ 4차공정 : 1차 집수시설과 2차 집수시설을 절토하여 양안사이 퇴수구 하부 체성을 축조하는 공정. 체성이 완성되고 성내부의 물자, 장비 등의 반입과 반출이 완료되면 계곡부 양안사이에 체성을 축조. 이때 먼저 축조되어 있는 1·2차 집수시설의 체체를 굴착하여 쌓는데, 그 높이는 퇴수구 하부 높이까지만 쌓음. 이때 단면상에서 체성하부가 튀어 나와 궁형

(弓形)으로 쌓음. 그 다음 퇴수구 하부에만 흙과 돌을 교대로 쌓고 상부는 박석으로 마감하는 공정이 추가. 체성외벽은 성근부와 면석 하단까지 점성이 많은 흙으로 피복하여 체성의 하부가 유수에 의해 유실되는 것을 막음.



거열성 1차성-계곡부 집수시설, 체성 유구배치도 및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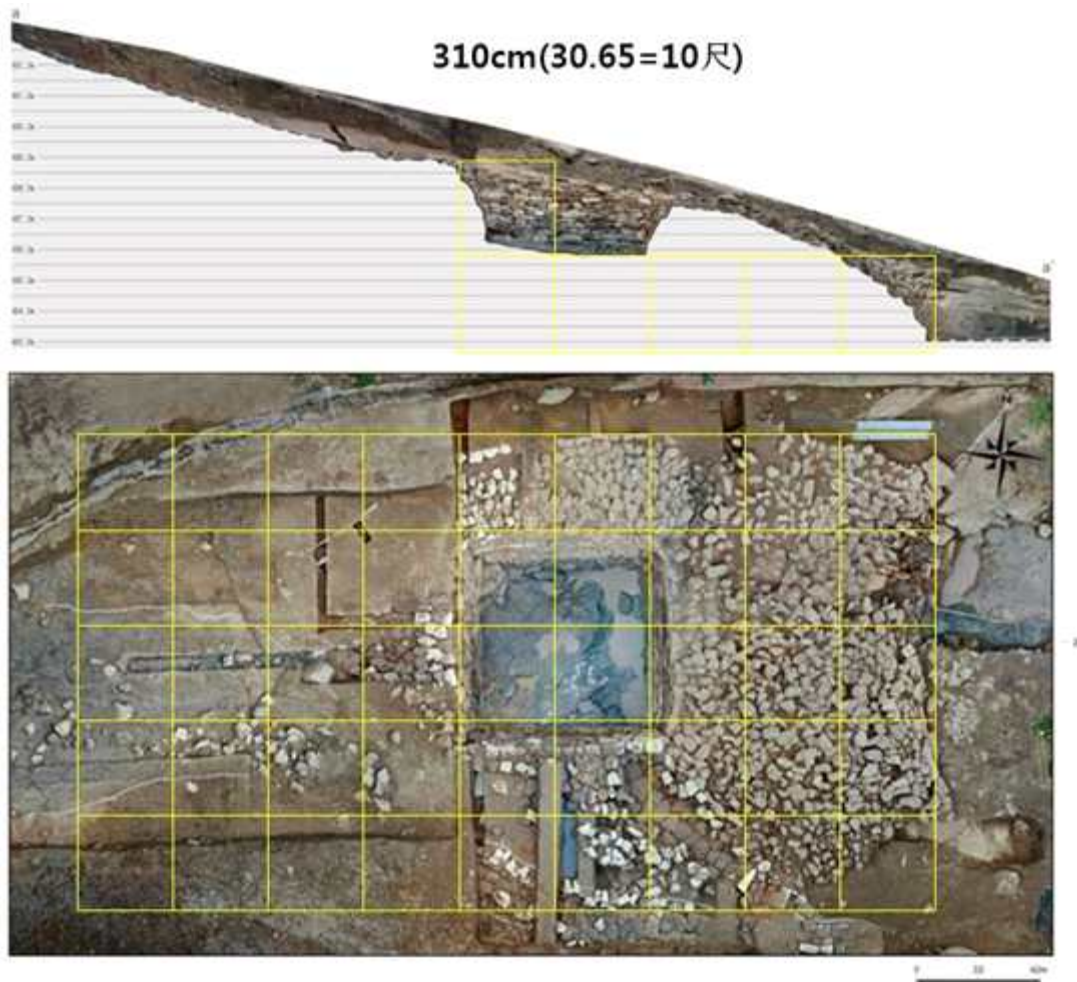
- ④ 5차공정 : 퇴수구 하부 체성축조가 완료되면 굴착공간을 되메우기 하면서 3차 집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정. 여러 번의 물막이시설의 축조를 통해, 직접 물을 가두어 저수량, 저수지의 규모, 여수구의 위치를 예측 - 수평 측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단계로 고대토목기술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음.
- ⑤ 6차공정 : 퇴수구 설치, 도수로, 최종 집수지 설치. 퇴수구의 높이와 면적이 정해지면 퇴수구를 축조. 이때 퇴수구의 높이는 3차 집수시설을 통해 예측된 저수시설의 저수량을 토대로 그 한계를 초과한 물이 쉽게 흐를 수 있도록 계획. 또한 4차 집수시설을 축조하여 성내의 물과 토사가 계획대로 잘 모이도록 완성. 물막이시설은 단순한 물막이시설이 아니라 최종 저수시설 이전에 설치하여 저수량, 저수지의 규모, 계획 홍수위 등을 예측하여 여수량과 여수구의 높이와 위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를 설정.
- ⑥ 7차공정 : 마무리 공정으로 퇴수구 상부 체성의 완성 및 주변의 마감. 퇴수구와 4차 집수시설의 배수에 문제가 없다면 체성 상부의 체성을 축조하여 완성하게 되는데, 축조순서는 상면 체성은 지상에서 축조하여 수직으로 쌓음.



거열성 1차성-계곡부 체성 및 1호 집수시설 축조 모식도

- 거열성 2차성의 집수지는 1차성 집수지가 조성된 서쪽 계곡부의 맞은편인 동쪽 계곡부에 조성되어 있으며, 1기의 집수지와 대규모의 축대시설, 배수시설, 출입 및 수거시설 등 부속시설물이 확인되었다. 2차성 집수지는 1차성 집수지와 평면 형태, 규모, 구조, 축조기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라성곽의 집수시설 변천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특히 여수로(餘數路)는 집수지 내 수위가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물을 외곽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사면 아래의 축대로 물이 넘쳐흘러 구조물의 유실 및 붕괴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오늘날 저수지의 여수로와 기능이 동일하다. 이러한 여수로는 현재까지 성곽유적에서 확인된 사례가 많지 않아 수리사(水利史) 연구에 있어서 중요 자료에 해당하며, 또한 집수지 조성에 10척으로 환산할 수 있는 310cm 단위의 영조척(營造尺)이 확인되고 있어 고대토목공법과 체계적인 집수지의 축조계획 및 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유적이다.
-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열성 2차성 집수지의 축조는 크게 5차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경남연구원 2019 인용).
 - ① 1차공정 : 기반암의 정지. 집수지가 조성된 계곡부는 지질적으로 섬록암에 해당하는 하나의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지조성을 위한 기반암 상부의 퇴적토 제거, 암반 정지 및 굴착을 통한 호안석축의 내부공간 확보 순으로 축조가 이루어짐.
 - ② 2차공정 : 동쪽 경사면에 대규모 축대조성, 2차성 집수지는 가파른 경사면에 조성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오늘날 저수지 및 댐과 같은 축조공정을 보임. 호안석축 동쪽은 경사면 아래에 위치하여, 경사면 상부와 함께 토압 및 수압에 가장 취약한 지점에 해당함. 따라서 동쪽에는 높이 약 5m, 길이 약 8m, 너비 약 15m의 대규모 축대를 조성하여 놓음. 대규모의 축대는 경사면에 가해지는 토압 및 수압에 의한 횡압력을 분산하기 위한 것이나, 높이 약 5m 규모의 석재 무게로 인해 강한 수직하중을 동시에 받음. 따라서 축대조성에는 횡압력 및 수직하중을 분산 및 보강하기 위한 지대석의 설치, 외벽보축, 퇴물림쌓기 등의 토목공법이 확인 됨.
 - ③ 3차공정 : 본격적인 집수지 호안석축의 조성. 호안석축은 평면형태 방형으로 상단부 너비 약 720cm, 하단부 너비 약 530cm, 최대 높이 약 270cm. 상단부에 비해 하단부의 폭이 작은 상광하협(上廣下狹)의 형태. 정지된 자연암괴를 제외하면 뚜렷한 굴광선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동쪽은 굴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지된 기반암 상부에 축대와 함께 벽석을 지상식으로 쌓아올림.
 - ④ 4차공정 : 여수로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배수시설의 축조는 호안석축의 벽석, 축대, 진입시설의 축조와 밀접한 관련되며, 집수지의 전체조성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됨. 호안석축은 벽석을 층단식으로 조금씩 들어 쌓아 단면형태 사선형을 이루며, 전체적으로 벽석을 2회에 걸쳐 약 10~15cm 정도로 들어쌓아 약하게 단을 조성하며 축조. 들어쌓기로 인해 단이 형성된 지점은 입수구의 바닥면에 해당하는 해발고도 약 487.5m 지점과 입수구 상단부 덮개돌이 놓이는 해발고도 약 488.2m 지점임. 이러한 들어쌓기는 벽석에 가해지는 횡압력의 분산과 벽석자체의 수직하중을 분산시켜 배수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됨.



거열성 2차성-집수지의 평면 및 입단면도 - 영조척 규격(□ : 10尺 단위)

- ⑤ 5차공정 : 수거시설 및 진입시설의 조성, 수거 및 진입시설은 집수지의 남쪽에 위치하며, 계곡부 상단부에서 내려오는 오수 및 토사가 호안석축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진입시설의 기능을 함께 지니는 것으로 파악됨. 집수지 상부의 또 다른 추정 집수지의 배수로일 가능성 있음.
- 이같이 거열성 1차성과 2차성의 집수지는 1차성과 2차성 체성부의 축성기법 변화에서 간취되는 축성기법의 변화만큼 커다란 변천과정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계곡부 집수시설 자료가 온전하게 확인된 점에서 신라성곽의 집수지 축조 변천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핵심유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거열성 1차성과 2차성의 집수 시설 변천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거열성 1차성과 2차성의 집수지 비교>

구 분	1차성(1호 집수시설)	2차성
규 모	13.6×4.95×1.5m	상단(7.2×7.2m)×하단(5.3m)×2.7m
형 태	평면형태 장방형 / 단면형태 직선형	평면형태 방형 / 단면형태 제형
축조시기	6세기 중반	7c후엽~8c전엽
성 들	흑운모편마암, 세장방형	화강암, 장방형
축조기법	협축, 바른층 쌓기, 체성부와 집수시설 동시 축조	편축, 지대석, 퇴물림쌓기, 대규모 축대시설
수 구	성벽관통식	여수로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거창지역에는 현재 21개소에 이르는 성곽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과거 삼국 시대 거창지역이 지니는 지정학적·군사적 중요성을 잘 반증하고 있다. 거창은 신라와 백제가 서로의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주 교통로에 해당하며, 이중 거열성은 입지 및 규모를 볼 때 거창군을 대표하는 산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문헌기록 상에서 백제부흥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이후 증축된 2차성이 만홍사산성이란 명칭 및 축성시기 등 그 실체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어, 거열성은 보존 가치 및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에 해당한다. 특히 건흥산 정상부에 조성된 거열성은 나당전쟁과 및 거열주의 치소성과의 관련성을 통해서도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이라 할 수 있다.

1) 신라 9주의 하나인 거열주(居列州)의 치소성

- 9주의 치소성들은 신라의 성곽 중 최상위 등급에 속하는 성곽이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별표1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중 사적 관련 사항의 나 항목은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이다. 거열성은 거열주의 치소성으로 이 항목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가치 있는 문화재라 할 수 있다.
- 모든 성곽은 축성당시부터 위계가 있었다. 거점성들은 치소성을 겸했으며, 군현제가 정비된 이후 주-군-현의 위계를 따라 규모와 중요도를 달리했다. 거열성은 거열주의 치소성이었다. 이는 위계상 신라 성곽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열성은 사적지정기준 나 항목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삼국통일 및 나당전쟁 대비를 위한 역사의 현장

- 기록에 의하면 거열성은 663년 신라의 흠순과 천존이 백제로부터 공취했다는 기록이 있다. 일시적으로 백제의 영역에 속했던 거열성을 신라가 되찾게 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665년 거열주를 설치하고 673년 만홍사산성을 축성한 기록도 남

아있다. 이는 사적지정기준 다항목의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역사기록에 이름이 등장하는 소수의 성곽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한 가치 및 당위성을 지닌다.

이와 함께 거열성은 당군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백제부흥운동군에 의해 뚫렸던 함양-거창-고령 루트를 신라가 보완·방어하기 위한 거점지로서 중요성을 지니며, 거창지역이 지니는 지정학적·군사적 중요성 및 신라의 방어망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3) 삼국~통일신라시대 사회문화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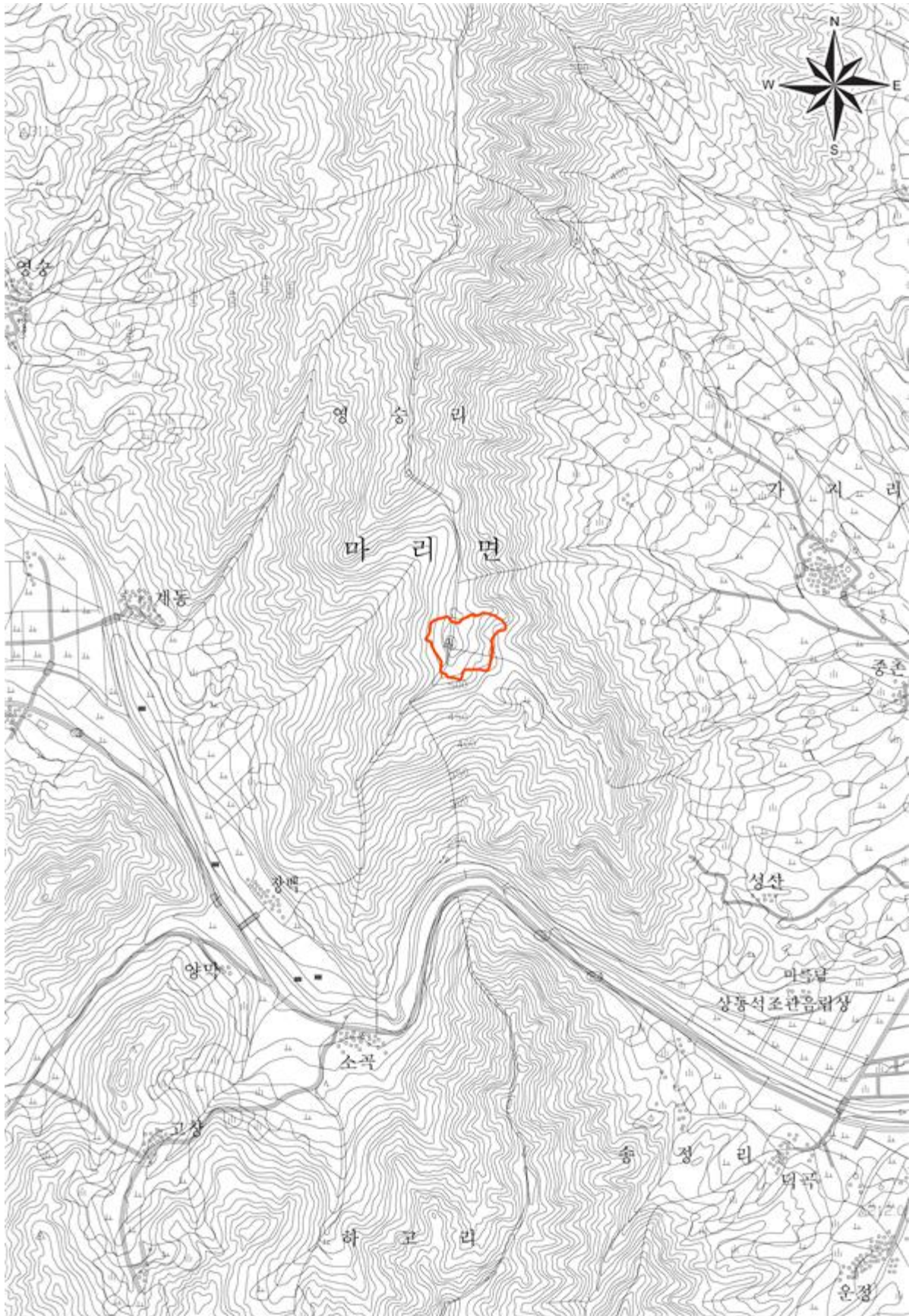
- 거열성은 축성시기를 달리하는 1차성과 2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성과 2차성의 축성법은 현저하게 다르다. 축성법에는 당대의 토목건축기술이 반영되어 있다. 역사적인 배경과 출토유물을 근거로 할 때 1차성과 2차성의 축성시기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거열성은 신라 축성법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표준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성곽유적에서 확인된 사례가 많지 않은 계곡부 집수시설이 1차성과 2차성에서 모두 확인되어, 성곽 연구사 및 수리사 연구를 위한 핵심유적에 해당한다. 거열성의 1차성과 2차성에서 확인된 집수시설이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축조수법으로 1차성에서 성기와 성근의 조성, 체성축조, 집수시설 축조, 외벽 하부 및 기저부 피복 마감, 2차성에서의 여수로의 설치, 대규모 축대시설, 영조척의 사용 등 토목 및 건축기술이 확인되어 고대 토목 및 건축기술의 원형 규명 및 복원, 변천과정 규명을 위한 최적의 유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1차성 집수시설에서는 6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하는 토기유물이 출토되었으며, 2차성 집수시설의 여수로에서 7세기 후엽~8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유물이 확인되어 거열성 1차성과 2차성의 집수지는 각 시기별 신라 석축산성의 축성기술과 계곡부 축조기법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 유적에 해당한다.
- 거열성에서 보이는 이러한 양상은 사적지정기준의 가항목인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을 충족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거열성을 신라의 흠순과 천존이 공취했다는 구체적인 인물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 사적지정 기준 다항목의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현존하는 성곽 중에서 이처럼 사적 지정기준으로 제시된 4가지 항목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성곽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거열성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축성당시의 명칭도 그대로 살아있고, 축성기록도 남아있는 극소수의 성곽이므로 희소성에 의한 가치도 뛰어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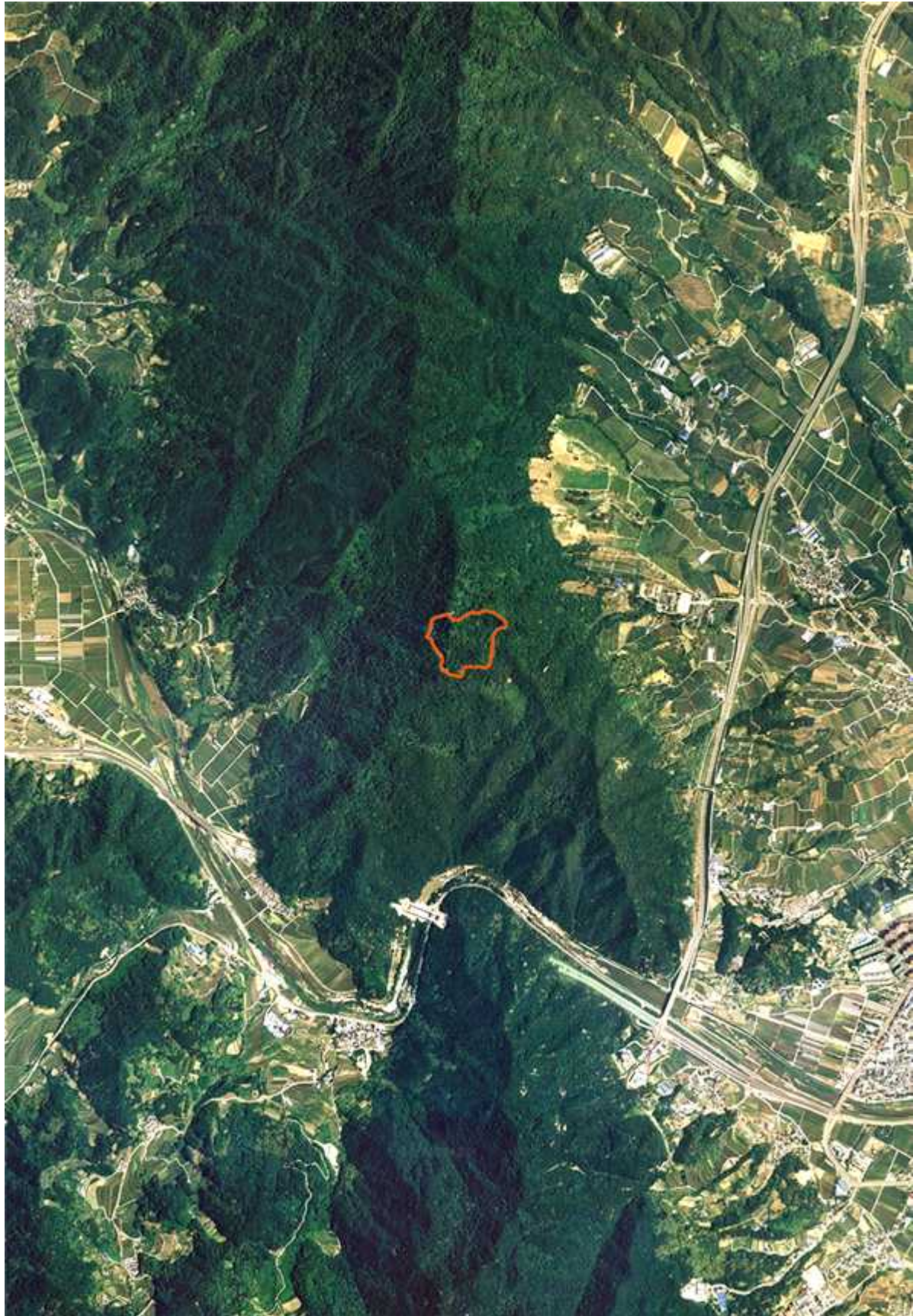
6. 지정 대상 및 범위

지정 신청면적 : 11필지 68,7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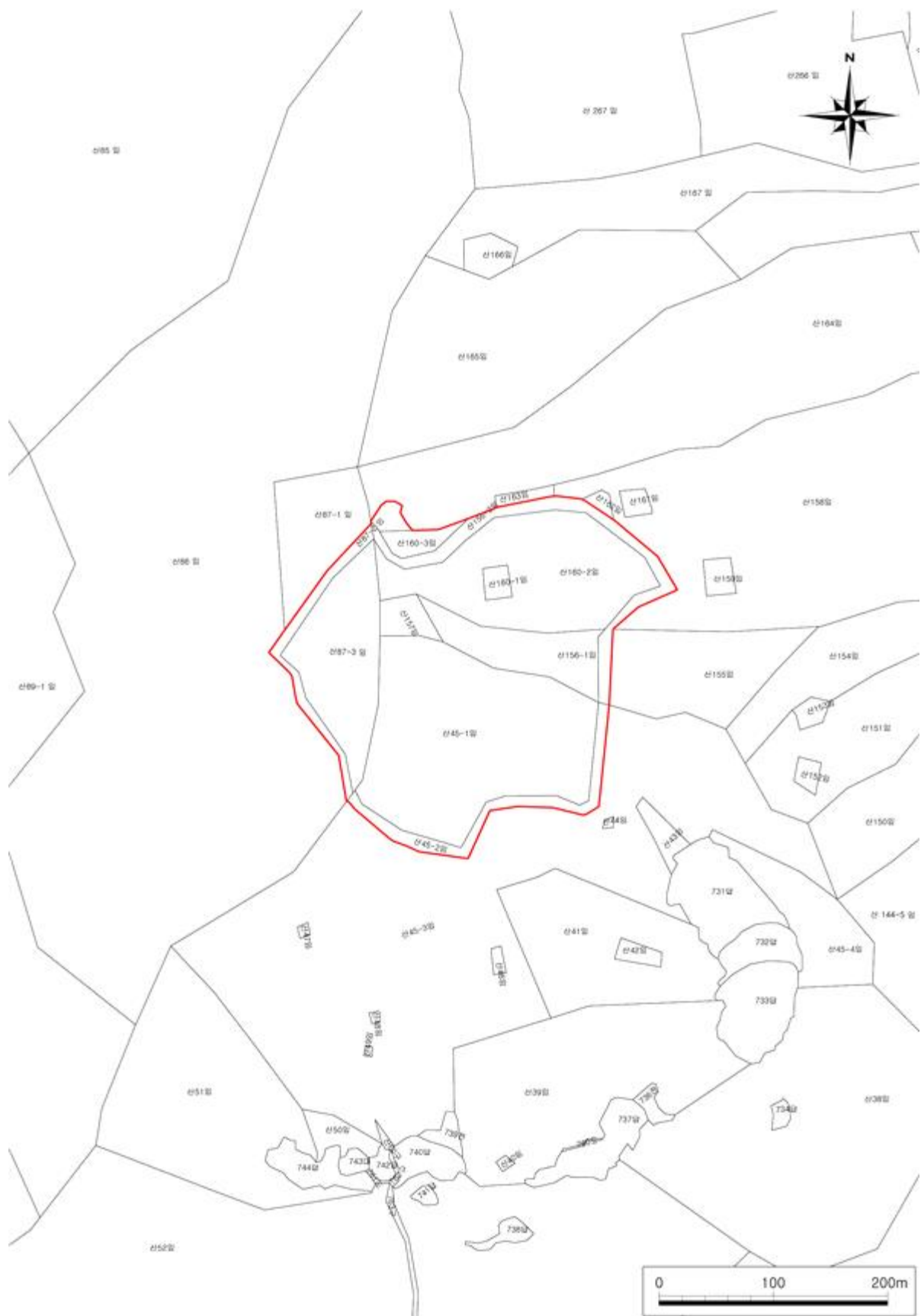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11필지		122,281㎡	68,746㎡		
1	거창읍 상림리	산45-1	임	24,397㎡	24,397㎡		
2		산45-2	임	4,364㎡	4,364㎡		
3	거창읍 가지리	산156-1	임	6,645㎡	6,645㎡		
4		156-2	임	1,884㎡	1,884㎡		
5		157	임	1,785㎡	1,785㎡		
6		160-1	임	694㎡	694㎡		
7		160-2	임	15,967㎡	15,967㎡		
8		160-3	임	1,190㎡	1,190㎡		
9		164	임	54,149㎡	614㎡		
10	마리면	산87-2	임	1,884㎡	1,884㎡		
11	명승리	산87-3	임	9,322㎡	9,322㎡		



거열성의 위치 및 국가사적지정 범위(1/25,000)



거열성의 위치 - 위성사진(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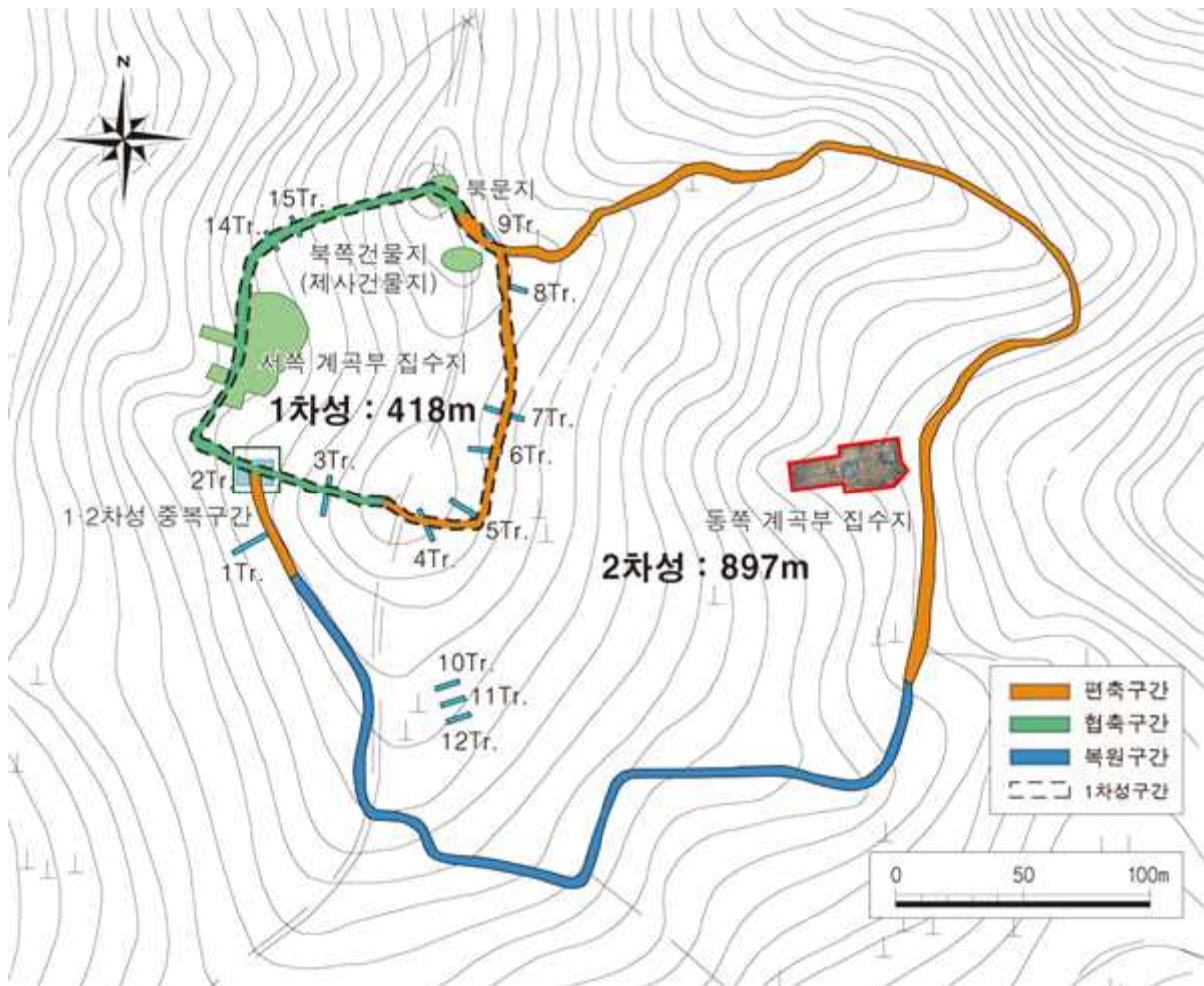
거열성 사적지정 신청범위-지적도(1/5,000)



거열성 사적지정 신청범위-지형도(1/5,000)



거열성 사적지정 신청범위-위성사진(1/5,000)



거열성 1차성과 2차성 위치도



거열성 전경(남동-북서)



서쪽 계곡부 1 · 2호 집수시설 및 체성 전경



서쪽 협축구간 체성(1 · 3: 계곡부 좌안 체성 전경 및 세부,
2 · 4: 계곡부 우안 체성 전경 및 세부)



서쪽계곡부 체성(1: 내벽 전경, 2: 외벽 전경, 3 · 4: 전체 전경, 5: 입수구 전경, 6: 퇴수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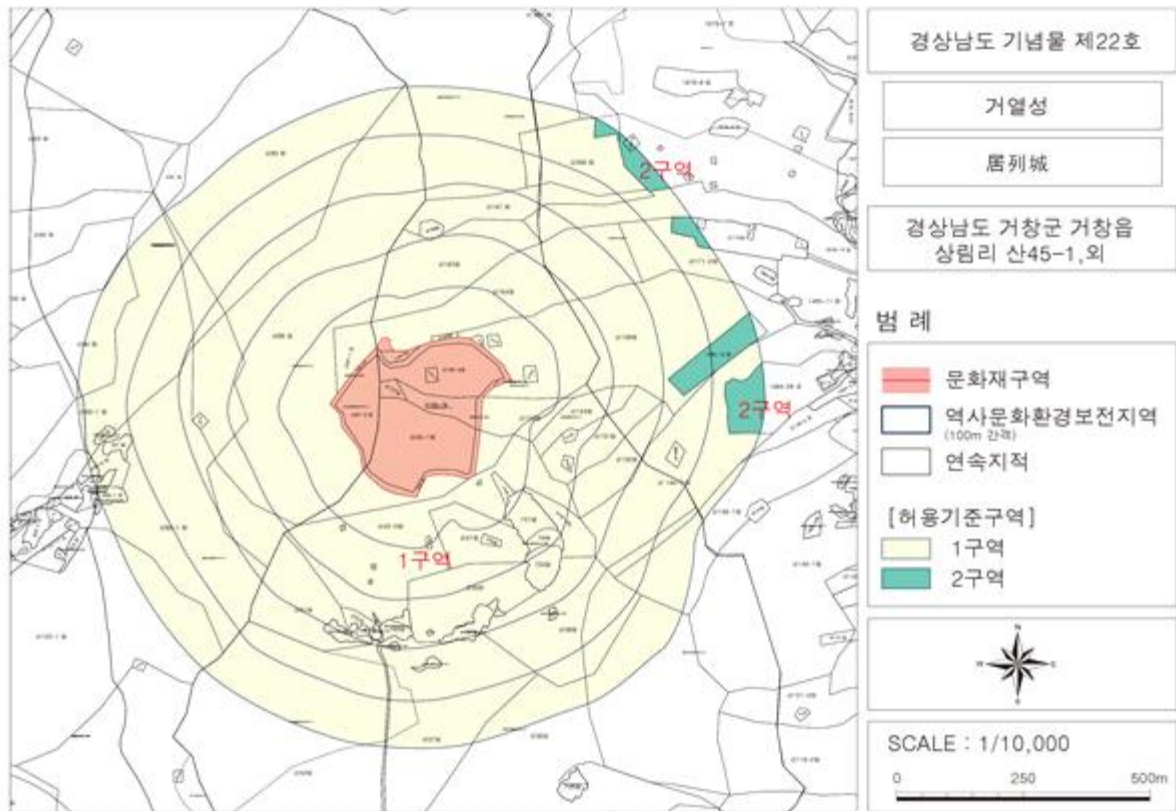
남쪽 편축구간 체성 복원전 전경1(1997년 거창 거열산성 지표조사)



남쪽 편축구간 체성 1999년 정비복원 후 전경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토지소유, 도시계획,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재검토 될 필요가 있음.



구분	범례	허용기준(안)	
		평슬라브	경사지붕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전문가 입회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함. ○ 원지형 보존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에는 관계전문가 입회하여 매장문화재의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가. 보존정비 및 활용계획

1) 기문화재 보존정비 및 향후 보존정비

(1) 거열산성군립공원 지정, 등산로 및 편의시설 정비

- 거열성은 1974년 12월 28일 경상남도기념물 제 22호로 지정되었고, 이후 1983년 11월 23일 건흥산 일원이 거열산성군립공원으로 지정됨으로서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열성이 조성된 건흥산 일원은 거창읍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주차장 및 등산로·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거창군민 및 등산객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거열성으로 등정하는 등산로에는 거열성의 일원의 풍부한 수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약수터와 이와 연계된 체력 단련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거열성은 체계적으로 조성된 등산로·산책로 및 편의시설을 통해 조석으로 많은 사람이 찾는 거창군의 대표적인 자연 쉼터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백제부흥운동 및 대당(對唐)전쟁을 대비한 역사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거열성 등산로 정비 현황 및 편의시설 전경

(2) 정밀지표조사 실시

- 거열성은 『삼국사기』 등의 문헌기록에서 그 실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어 경상남도기념물 제 22호 ‘거열성’으로 지정되었음에도, 축조기법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거창군에서는 유적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거열성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앞서 주)엠티건축사무소에 정밀지표조사를 의뢰하여 1997년 8월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거열성 정비 및 복원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고, 거열성의 현황에 대한 최초의 자료인 『거창 거열산성 지표조사』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3) 남쪽 및 서쪽 체성 구간 복원정비 사업

- 남쪽 편축구간의 체성은 거열성 체성 중 잔존상태가 가장 양호한 곳으로 『거창 거열산성 지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복원 정비가 이루어져 있다. 1997년 12월 30일 남벽에 대한 1차 정비 복원공사를 시작으로, 2000년 9월 5일까지 남벽 2차 복원공사가 진행되어 총 384m에 해당하는 체성이 정비 복원되었다. 이후 2003년 11월 거열성 서벽 55m에 대한 복원공사가 추가로 이루어졌다.

(4)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시굴조사와 자문위원회 개최

- 거열성의 남벽 및 서벽에 대한 복원 정비 사업 후, 보다 정확한 거열성의 복원을 위해 구체적인 축성방법·축성시기·축성주체 등 거열성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시굴조사가 2004년 11월 23일~2005년 2월 22일까지 이루어졌다. 정밀시굴조사의 자문위원회는 2005년 2월 실시되었으며, 정밀시굴조사 결과와 조사에 따른 향후 거열성의 복원 및 관리방안이 모색되었다. 자문위원으로는 심봉근(동아대학교교수), 임효택(동의대학교교수), 신창수(국립공주박물관장), 심정보(한밭대학교교수), 이호열(밀양대학교교수), 구본룡 거창박물관장이 참여하였다. 조사내용에 대한 자문위원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향후 거열성의 복원을 위해서는 복원에 앞서 시굴과 발굴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현재 남은 체성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체성의 복원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부분으로 한정하여 실시하고, 복원 시엔 산성 전문가를 감리에 포함시켜 보다 정확한 복원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5) 거열성 진입도로 개설사업

- 거열성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용이하기 위해 거창읍 상림리에서 대평리에 이르는 4.5km 구간(본선 4차로)에 대한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가야 문화권 특성에 맞는 역사문화 정비 및 관광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동서연계 가야문화 관광도로’에 해당한다. 사업의 실시에 앞서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가 실시 중에 있으며,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이 완료되며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용이해져 거창군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등산객이 찾는 거열성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거열성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시굴조사 자문회의 개최 전경

2) 향후 보존정비 계획(안)

(1) 체계적인 학술조사 및 복원작업

- 현재 거열성은 경상남도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되어 있어 지자체에 의한 보존관리 행위들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래에는 방문객들에게 거열성의 기본 형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무너진 체성부분에 대한 복원작업을 일부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 복원작업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학술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지 않고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자료에 의존하여 성급히 이루어졌다는 문제가 있다. 한번 복원작업이 이루어지면 향후 산성 구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도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산성의 복원작업은 신중히 행해져야 한다.
- 거열성의 보존·관리와 역사교육적·관광산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체성부분이나 성내 조사를 통해 발견된 유구에 대한 복원작업이 일부 필요로하나, 이 작업에는 철저한 조사연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거열성의 전 구역에 대한 정밀 학술조사를 먼저 진행하여 산성의 정확한 범위·세부구조·체성의 중복현황·잔존현황 등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특히, 산성 체성에 대한 3D 스캔 기록화 작업 등을 실시하여 기록의 상세 디지털화와 향후 복원계획 수립의 용이성을 같이 도모함이 필요하다.
- 이러한 구체적인 현황과약을 토대로 거열산성에 대한 보존·관리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이 계획에 따라 훼손이 심하거나 교육적 활용차원에서 반드시 필요

한 부분에 대한 복원작업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관광산업 차원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성급하고 과도한 복원작업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2) 거열성의 정비

- 현재 거열성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보존관리 행위를 실천해야 한다. 현재 산성은 거열산성군립공원 내에 있어 무분별한 주변 개발 행위나 대규모 유적 파괴행위가 발생할 여지는 적으나, 산성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관리행위는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산성내 잔존유구나 체성주변에 대한 주기적인 수목제거와 관리행위를 통해 수목이 초래할 수 있는 산성 체성부분이나 성내 유구에 대한 물리적 피해를 방지하고, 또한 산성구역에 대한 명확한 구획과 보호범위를 설정하여 산성의 추가적인 훼손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거열성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군립공원지역으로 연중 많은 등산객이 자주 내왕하면서 이들에 의한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산성 범위 내에 건홍산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고 체성주변으로도 많은 등산로가 등산객에 의해 무분별하게 나 있는 상태이다. 일부 등산로는 무너진 체성 부분에 그대로 만들어져 있어 지속적인 체성 파괴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현재 산성 주위로 무분별하게 나 있는 등산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체성 유구와 성내 잔존 유구에 대한 추가적인 훼손을 막아야 한다. 체성 복원구간이나 체성의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탐방로를 별도로 개설하고 이외의 등산로는 폐쇄하여 체성이나 잔존 유구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 한편, 거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거열성 내에는 거열성의 연혁 및 위치를 알리는 문화재 안내판이 배치되어 있다. 문화재 안내판은 유적 전체를 소개하는 종합안내판과 권역을 소개하는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길찾기 안내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의 안내판은 거열성의 연혁을 나타내는 종합안내판과 길찾기 안내판이 주를 이루고, 자연경관 및 문화재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안내판의 형태 및 크기가 일관성을 지니지 않는 점이 있다. 앞으로는 유적의 현황, 시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구현황(체성·집수시설·문지·건물지) 및 그 의의·역사적 사건 및 문헌기록·관련설화(선화공주)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거열성 내 적재적소에 이를 배치하여 거열성에 대한 등산객 및 방문객의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관람객의 연령·지식수준을 감안하여 정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판 기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남한산성 및 정양산성 안내판 설치 사례

- 즉 안내문안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여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며, 관람자의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기법의 가미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문안과는 별도로 거열성 전체 구간 및 건물의 배치·성벽의 입체지도 등을 삽입 할 수 있을 것이다. 안내판의 소재는 성곽유적인 거열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경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¹⁾

(3) 토지매입

- 국가사적 지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대상 유적지의 토지매입이다. 거열성이 조성된 건흥산 일원은 거열산성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열산성군립공원은 산 및 임야로 구성되어 주변에 주택 및 기타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민원발생 소지가 낮다. 이중 거열성 문화재구역의 토지 현황은 총 11필지로 경상남도기념물 지정범위는 68,746㎡이다. 특히 거열성이 경상남도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되면서, 거열성의 체성 전체부분에 해당하는 8,132㎡은 국가가 매입 완료한 상태이다.
- 이와 같이 현재 산성의 체성구역은 거창군이 매입하여 관리되고 있으나 성안구역의 경우 사유지로 남아 있어 향후 체계적인 보존·관리계획 수립과 실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향후 산성의 역사교육적 차원이나 관광차원의 활용에도 일부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성구역 내 미 편입사유지에 대한 지자체나 국가차원의 점차적 매입을 통해 종합적인 관리·활용계획 수립과 실행이 용이토록 해야 한다.

1) 문화재청, 2008,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



거열성 토지매입 현황

나. 문화재의 활용계획(안)

1) 역사교육적 활용

- 거열성이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과 가치는 역사 교육적 활용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역사 교육적 측면의 활용은 2가지 차원에서 가능하다. 먼저, 산성유적으로서의 거열성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활용하는 것이다. 거열산성이 보이는 산성으로서의 구조적 특징을 바탕으로 산성의 구조와 축성술을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현장교육의 장으로 충분히 활용가능하다. 또한, 주변의 다른 산성들과의

연계를 통해 산성 관련 비교연구의 대상으로도 충분한 교육적 활용가치가 있다.

- 또한, 백제부흥운동과 대당항쟁의 현장으로의 거열성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토대로 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의식과 자주의식 고양을 위한 정신 교육차원의 활용도 가능하다. 최근 들어 많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정신교육프로그램의 한 교육장소로 거열산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에게 동기 유발이 가능한 병영 체험 및 전쟁 체험장의 개설을 들 수 있다. 더불어 산성과 병영은 군사시설로서 현대 군인이 옛 선인의 병법 등과 같은 지혜를 배우고 체험하며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장소로 활용이 가능하다.

2) 관광 및 콘텐츠 산업적 활용

- 거열성은 군립공원 안에 있어 현재도 등산객들이 자주 방문하고 있지만 향후 거열성에 대한 관광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먼저, 거열성의 관광차원의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문객 편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산성유적의 경관보호와 원형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산성 정비작업과 병행하여 간단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이와 함께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거열산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를 담당하여야 한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은 상시 또는 예약제로 가능하며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유적 해설자료의 마련·배치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광자원화 작업을 통해 방문객에게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과 함께, 거열산성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유적의 보존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다음으로, 거열산성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과의 체계적인 연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거열산성 주변의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패키지 투어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며, 특히 거창군이 산성으로 유명한 것을 활용하여 거열산성과 주변 산성을 연계 탐방하는 산성 투어 프로그램을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운영함도 가능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인근의 많은 산성중에서 연계 가능한 대상지 선정과 연결로 조성방안 등 주변 산성과의 연계를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인근 산성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 한편, 거열성이 위치하는 마리면 영승마을에는 신라 선화공주에 얽힌 슬픈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 마을에서 전승돼 오는 선화공주 설화는 기존에 잘 알려진 『삼국유사』의 내용인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후일 백제 무왕이 되는 서동과 ‘서동요’를 통해 만나 함께 백제로 넘어가 왕비가 됐다고 하는 것과 달리, 단신으로 백제와 신라 국경선인 취우령을 넘으려다가 경비 군사의 검문을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첩자로 오인돼 고문 끝에 숨을 거두었다는 슬픈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전승 설화 또한 백제와 신라에 있어 거창지역이 지니는 지정학적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영승마을에서는 이 마을에 구전돼 오는 선화공주 설화를 바탕으로 그 넋을 달래

기 위해 매년 아홉산 선화공주 취우령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취우령제는 비운의 주인공인 선화공주의 원혼을 달래려는 취지로 열리기 시작했으며, 특히 가뭄이 심할 때면 마을 사람들이 취우령제를 기우제로 지내는데 제사가 끝나면 선화공주의 넋이 그 눈물을 비로 뿌려 내렸다고 한다. 취우령제는 기우제 형식의 전통 제사를 비롯해 선화공주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공연, 그리고 마리풍물패의 풍물놀이 등이 진행되며 마을사람들과 방문객들이 한데 어울려 정담과 음식을 나누는 잔치도 흥겹게 펼쳐진다.

- 이 취우령제와 선화공주의 이야기를 콘텐츠화하여 이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의 설화나, 전설, 인물에 얽힌 이야기 등을 콘텐츠화하여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곳이 많다. 한 예로, 경북의 안동에서는 하회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하회탈의 탄생 설화를 바탕으로 한 허도령과 김씨 처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를 담은 ‘부용지애’ 뮤지컬을 제작하였으며, 퇴계이황과 단양 태생의 관기 두향이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린 스토리텔링 역사극 ‘퇴계연가’를 창작하여 퇴계종택에서 매년 현장 공연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전해져 오는 설화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여 스토리텔링화하고 지역 특화콘텐츠로 개발한 좋은 사례이다.



선화공주 취우령제 전경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제 전경¹⁾

- 거창군에서도 이 선화공주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고 실경뮤지컬로 제작하여 영송마을이나 거열산성군립공원에서 공연하여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고 지역 특화 콘텐츠로 상품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취우령제를 지역 특화 콘텐츠로 상품화하여 점차적으로 축제의 규모와 내용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거창지역 전체의 이벤트로 만들 필요가 있다.
- 특히, 문헌기록을 통해 거열성이 3년간 백제부흥운동이 전개된 역사의 현장이자, 백제부흥운동군 700명이 신라군에 대항하다 순국한 장소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무왕 3년의 기록, 즉 663년 거창 거열성과 더불어 전북 남원으로 지정되는 거물성, 전북 장수군으로 지정되는 덕안성, 전남 구례군으로 지정되는 사평성의 백제부흥운동군이 모두 신라군에 의해 진압된 사실이 확인된다. 문헌기록을 통해 거열성이 함락된 시기가 음력 2월임을 명확하게 확인

1) 출처 : 함양군 홈페이지 <함양이야기>

할 수 있어, 이시기를 즈음하여 거열성 백제부흥운동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제를 기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모제를 통해 순국선열의 넋과 거열성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거열성과 함께 백제부흥운동군이 전개된 남원시·장수군·구례군의 관계자가 추모제에 함께 참여한다면 영호남 화합의 장으로서도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 인근 지역인 함양군의 경우 사근산성 순국선열추모위원회를 조직하고, 사근산성에서 왜구에게 전사한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제를 매해 개최함으로써 선열들의 원혼을 달래고 사근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함께, 함양군을 선비의 고장임과 더불어 애국충절의 고장으로 인식을 재고시키고 있는 점을 참조 해 볼 수 있다.

9. 종합의견

- 거창 거열성은 신라 9주의 치소성으로 추정되는 거창지역의 대표적인 고대산성으로, 1974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 거창 거열성은 그간 1997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4차례의 시발굴조사와 2차례의 학술대회를 통하여 그 역사적 성격이 대체로 밝혀졌다고 보여진다.
- 1호 집수지의 출토유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초축은 신라에 의해 6세기경에 축조되어 일시적으로 백제에 점령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신라에 의해 경영된 산성으로, 특히 이 산성은 <삼국사기> 문무왕 13년(673) 기록에 나타나는 ‘거열주 만홍사산성’으로 비정되는 바, 이 시기는 신라가 당나라에 대항하여 기존 성곽을 대폭 증축하거나 새로운 성곽을 축조하는 시기로, 거열성이 드물게 <삼국사기> 기록과 부합하는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나당전쟁시기 거열성 2차 성벽을 축조한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축성법 연구에서 시기적 기준지표가 되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라고 판단된다.
- 또한, 2차 성벽 안에 축조한 집수지는 급경사지에 만들었기 때문에 사력담과 유사한 집수지 보호 석축시설을 시공하였는 바, 이는 다른 성곽유적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한 공법의 집수지이다.
- 거열성은 1990년대 후반 외성의 남벽이 고증 없이 복원되면서 원형의 일부분이 변형되었으나 유적의 학술 성과와 신라의 축성 기술의 변천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 II권역에 속하는 4필지 535m²를 추가 지정하는 사항임
 - 2020년 제6차 회의(2020. 6. 10.)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예 고 일 : 2020. 7. 17.(문화재청 공고 제2020-233호)
 -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부터 30일 이상
 - 예고의견 : 해당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기존 지정 면적 : 1,439필지 400,023.4m²
 - 추가지정 : 4필지 535m²
 - 추가지정 후 면적 : 1,443필지 400,558.4m²
- (4) 지정 사유
 - 풍납토성 내 II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20.05.21.)
 - 해당지역은 서울 풍납동 토성의 성벽 복원·정비 완료지구 및 핵심시설지구(사적지정·매입 예정지에 해당)로 사적 추가 지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1-24	대	93	93		
2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2-9	대	212	212		
3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42-70	대	102	102		
4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53-20	대	128	128		
합계				535	535		

4. 강화 곤릉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곤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문화재보호구역(4필지 94,688㎡)을 지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20년 7차 위원회('20.07.08.) 검토를 거쳐 보호구역 지정예고
 - 공고명 : 강화 곤릉 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 예고(문화재청 공고 제2020-229호)
 - 예고일/기간 : 2020.7.17.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예고의견 : 해당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곤릉(사적 제371호 / 1992.03.10.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 일원
- (3) 신청내용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4번지 등 4필지
 - 내용 : 보호구역 지정 4필지 94,688㎡(문화재지정구역 4필지 1,572㎡)
- (4) 보호구역 지정 사유
 - 문화재지정구역의 진입로 등 주변이 모두 사유지임에 따라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및 복원·활용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

라. 참고사항

- (1) 지자체 의견
 - 봉분이 위치한 문화재지정구역은 정비되어 보존·관리되고 있으나 보호구역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주변정비가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진입로가 모두 사유지임에 따라 통행에 제한이 많고 정비도 이루어

지지 않아 관람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주차장도 없어 접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을 보전하고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수리 및 복원,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변 지역에 대한 문화재보호 구역 추가 지정을 요청하는 사항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강화 곤릉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20.06.05.(금)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문화재지정구역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강화 곤릉(江華 坤陵) 문화재보호구역

3. 입지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강화 곤릉은 고려 강종의 비인 원덕태후 유씨(?~1239)의 능으로 진강산 남쪽 능선에 위치하며 횡혈식 석실분으로 전체적으로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고려시대 강도시기 강화와 관련이 있었던 왕과 왕비 중 희종릉(강화 석릉, 사적 제369호), 고종릉(강화 홍릉, 사적 제224호), 원덕태후릉(강화 가릉, 사적 제370호), 강화능내리석실분(시 기념물 제28호)이 강화에 축조되어 있다.
- 주변은 모두 임야로 개경에 위치한 고려 왕릉에 비해서는 소박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강화나들길이 조성되어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고려 강종의 비인 원덕태후 유씨(?~1239)는 고종 26년(1239)에 승하한 후 원덕태후로 추존되었으며 이듬해인 1240년에는 정강(貞康)이란 시호가 추가되었다.
- 봉분과 석축, 곡장은 붕괴되어 폐허가 된 것을 1974년 보수하였으며 석조물은 모두 없어지고 묘표만 남아 있다. 봉분 뒤에 곡장 대신 토담을 둘러쌓아 놓았고 그 안에 원형 봉분이 있으며 봉분 하단에 돌레돌이 일부 복원되어 있다.
- 전체 규모는 남북길이 24m, 동서너비 19.6m이며 석실 내부에 관대를 설치하고 대형 문비석을 이용하여 석실을 막았으며 전면 묘도부는 할석을 채워 폐쇄하였다.
- 2004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2007년 정비공사를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다. 1단에는 봉분과 석실, 2단과 3단에는 정자각이 있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강화 곤릉 발굴조사 결과 고급 청자류와 금속류, 기와 등이 다수 출토되었으며 주변에서 망주석, 난간석, 석인상 등의 부재가 다수 확인되어 고려시대 문화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 고려 왕릉의 대부분이 개경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남한에 있는 왕릉으로 고고학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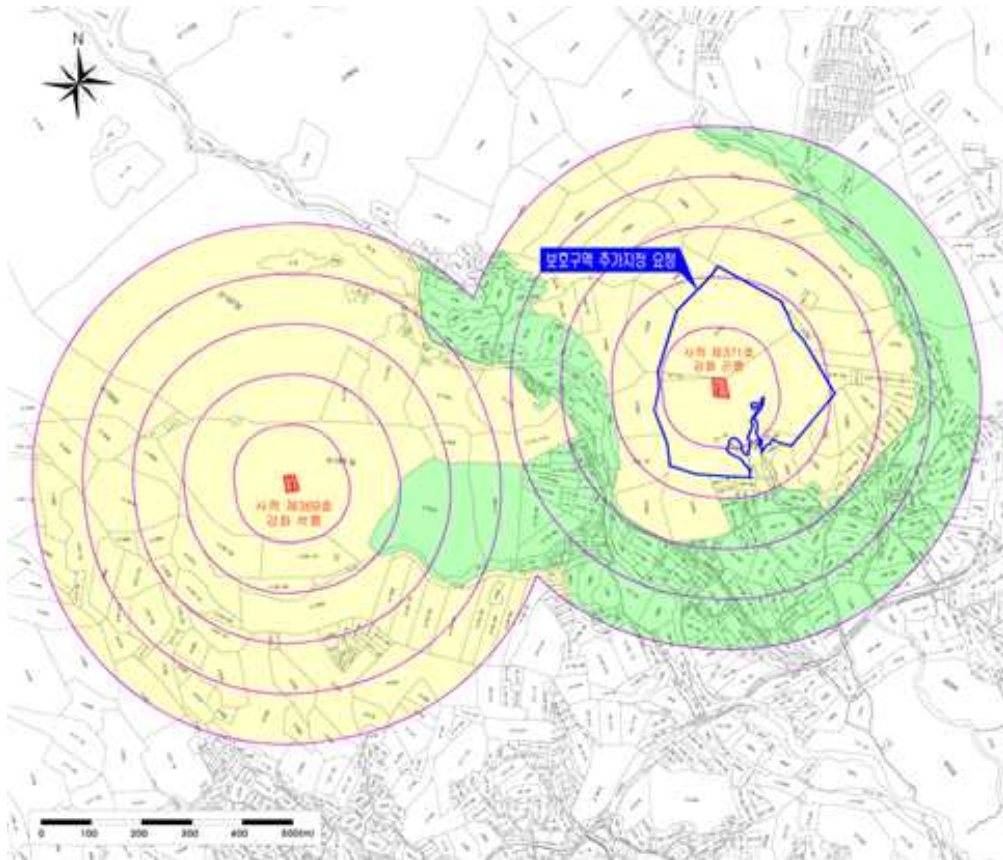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 『여조왕릉등록(麗朝王陵燈錄)』에 조선 현종대 강화유수 조복양에 의해 정비되었으며 이후 숙종1년(1675)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곤릉은 능의 형태만 겨우 남아있으며 정자각터는 전과 다름없었다고 전한다. 『고종실록』에는 고종4년(1867)에 고려 왕릉 57기의 능을 봉축하고 묘표석을 세우면서 곤릉 역시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보호구역추가 지정 면적 : 4필지 / 94,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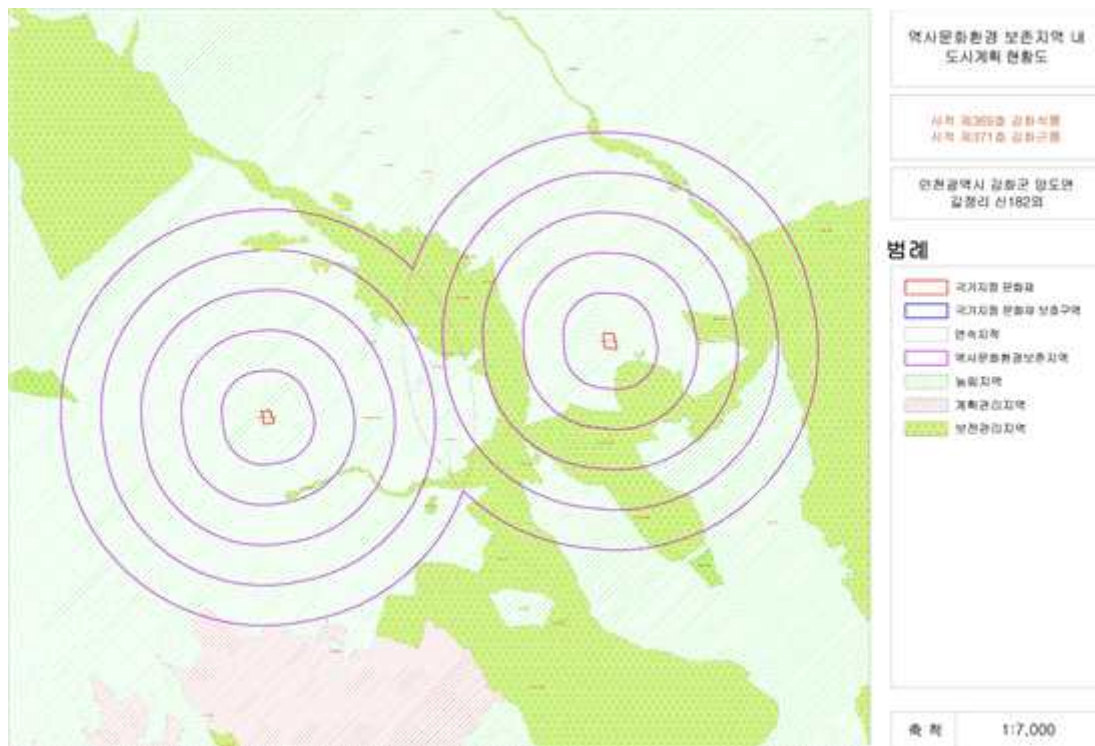
연번	주소	지목	지적면적 (㎡)	소유자	지정구역 (㎡, 기존)	보호구역 (㎡, 추가)
1	양도면 길정리 산75	임야	1,091		1,091	-
2	양도면 길정리 산74	임야	37,125		231	36,894
3	양도면 길정리 231-1	임야	55,340		242	55,098
4	양도면 길정리 231-2	임야	1,761		-	1,761
5	양도면 길정리 231-3	임야	943		8	935
	소계		96,260		1,572	94,688
	총계				96,260	



□ 위성사진 및 도시계획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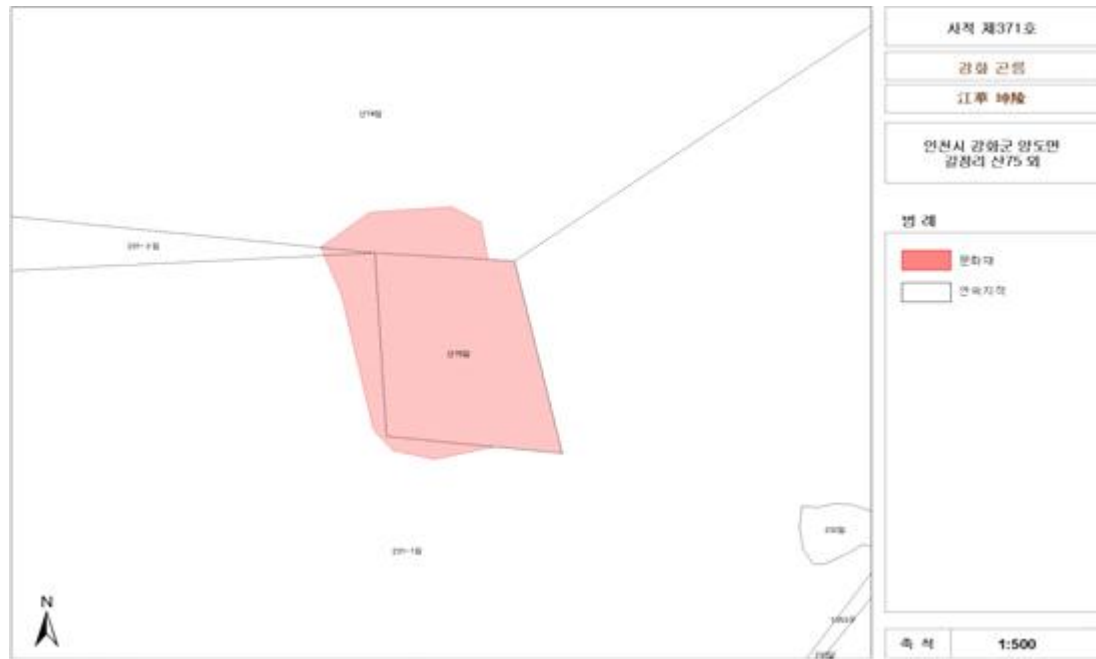


위성사진



도시계획 현황도

□ 문화재지정구역



문화재지정구역도



문화재지정구역 현황측량

□ 문화재 사진



□ 발굴조사 사진



전경



발굴조사지 전경



문비석



개석 상부(12각)



문비석 제거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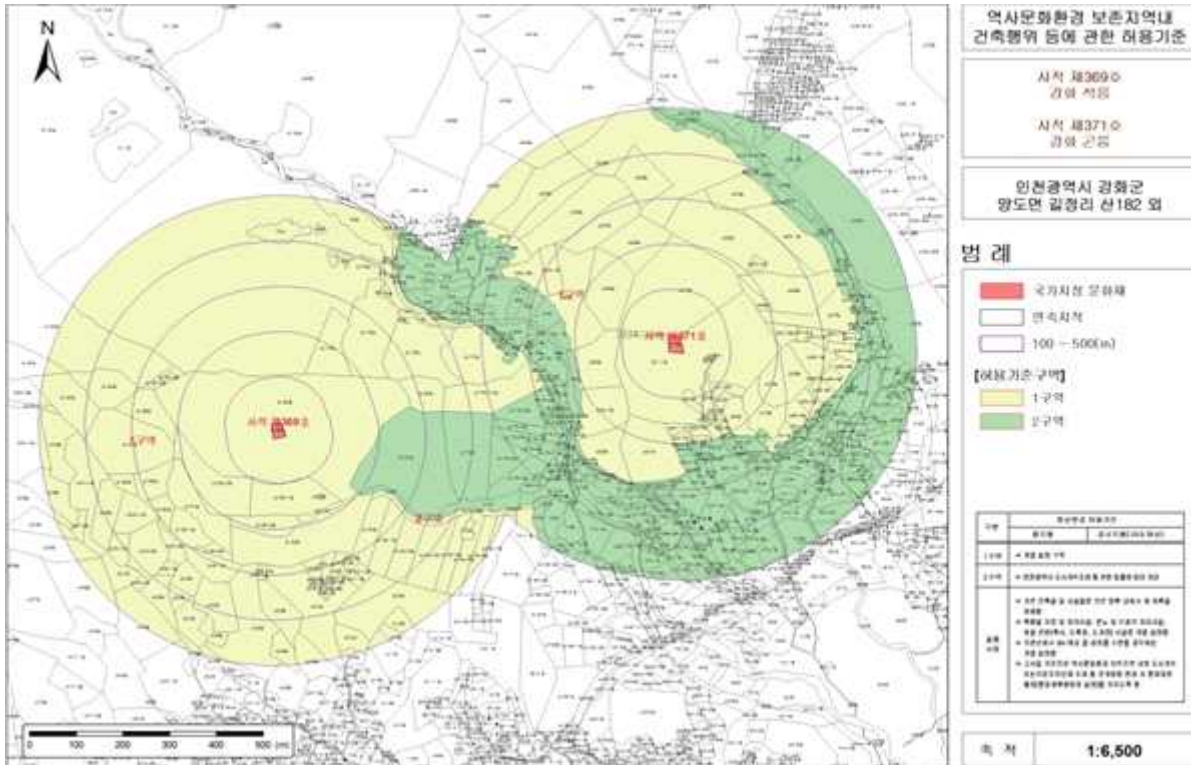
석실 북·동벽



출토유물 사진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

- 검토의견 : 현재 강화 곤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고분 내·외부에 설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현상변경허용기준이 고시되었음.
- 금회 건은 문화재지정구역은 변동이 없으며, 현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 기준도 변동사항 없음.



8. 보존 정비 및 활용 계획

-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및 주변 경관확보를 위해 『강화고려왕릉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연차별 보수 정비 및 학술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임.
-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매입 등을 통해 진입로와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관람객에게 편리한 관람시설을 제공하고,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임.

9. 종합 의견

-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건은 기존 문화재지정구역과 인접한 임야지형으로 문화재 보존 및 주변경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 강화 곤릉은 문화재지정구역만 설정되어 있고 보호구역이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문화재 보수공사나 주변 정비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진입로가 사유지로 통행에 불편이 많으며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 관람객의 방문이 어려운 실정임.
- 이번에 보호구역 추가지정을 통해 고려왕릉 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문화재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5. 경희궁지 주변 업무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주변 업무시설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희궁지 주변에 업무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 1980.09.16.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2-1
- (3) 신청내용<업무시설 신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209, 1-241{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95m 이격/4구역(평지붕 17m, 경사지붕 21m)}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828.4m²
 - 건축면적 : 407.59m² / 연면적 : 4,262.50m²
 - 규모/높이 : 지하4층/지상6층 / 27.3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보류 11명

6. 인천 계양산성 보호구역 내외 탐방로 정비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사적 제556호 「인천 계양산성」 보호구역 내외 탐방로 정비사업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인천 계양산성 보호구역 내외 탐방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인천 계양산성(사적 제556호 / 2020.05.22.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산10-1 45필지
- (3) 신청내용<인천 계양산성 탐방로 정비사업>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산10-1(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탐방로 정비 L=176m(W=1.5m)
 - 야자매트 설치, 계단설치 등
 - 나무 식재 총 45주(베롱나무, 소나무, 청단풍 등)
 - 사업예산 : 486,000천원(지방비: 100%)

라. 참고자료

- (1) 자문의견서('20.05.22./문화재위원 ○○○)
 - 수목식재
 - 주목은 산성의 경관과는 이질적 형태이므로 소나무로 교체 필요
 - 베롱나무를 일괄적으로 심지 말고 일부(1/3)는 청단풍 교체
 - 기타 내용은 설계서 내용대로 하여도 무방함
 - 탐방로 및 화강석 계단 설치
 - 화강석 계단설치는 이질적 경관을 형성하므로 계양산성 석축 재료와 같은 재질로 성돌 쌓기 형태로 조성

- 탐방로 조성 시 외탁부의 목책 설치는 공간을 양분하므로 설치 지양
- 쉼터 통보의 판석깔기는 야자매트 포장으로 교체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보류 12명

7. 광주 신창동 유적 내외 기존 고속도로 확장 및 정비

가. 제안사항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사적 제375호 「광주 신창동 유적」 내외에 기 조성된 고속도로를 확장·정비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신창동 유적 내외에 기 조성된 고속도로를 확장·정비하기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신창동 유적(사적 제375호 / 1992.09.09.지정)
 - 소재지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512-1 외
- (3) 신청내용<기존 고속도로 확장>
 - 위치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599 일원(문화재구역, 1구역, 2구역, 4구역)
 - 사업내용 : 기존 고속도로(동광주~광산) 확장 및 정비
 - 확장 및 정비 구간 : 1.85km
 - 확장 폭 : A구역 38.9m → 38.9m, B구역 25.9m → 35.3m, C구역 54.5m → 37.9m, D구역 57m → 44.6m,
 - 확장 차로수 : 4차→6차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부결 12명

8.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주택단지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택지조성 및 주택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택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허가('17.10.27.) 받은 바 있으나,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으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여 고발조치 및 처분을 받고, 그에 따라 변경하고자 재신청한 사항임
- 무단현상변경 적발 및 고발조치('20.05.18), 행정처분(기소유예, '20.07.03)
- ※ 참고로 부지 추가 확장은 과도한 형질변경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로 3차례에 걸쳐 부결되어 추진하지 않았음('17년 8차 소위원회('17.12.27), '18년 3차 소위원회('18.04.25), 18년 7차 소위원회('18.07.25.))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석장리 유적(사적 334호 / 1990.10.31. 지정)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장기면 석장리 98번지 외
- (3) 사업내용 <주택단지 조성>
 -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26-2, 산7-1(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5m 이격 /1, 3구역)
 - 신청내용(총 사업면적 11,272㎡)
 - 기 허가사항에서 대지 높이를 2~3m 높이고 최하단 자연석 쌓기를 보강토 옹벽으로 변경
 - 건축면적은 동일하되 건물위치의 일부 변경과 방향회전 있음
 - 지붕선에 맞춰 표현한 건축 배치도를 건축물 외복 중심선에 맞춰 표현

< 토목(변경 전·후 비교표) >

구분	기허가	재신청
비탈면 처리	역L형 옹벽(H=2.5m~4.0m, L=122m) 자연석 쌓기(H=1.0m~4.0m, L=404m)	일부 보강토옹벽 변경(H=0m~4.5m, L=269m) 일부 자연석 쌓기 조치(H=2.0m, L=326m)
부지 계획고	기존 지반에서 2m 높아짐	기 허가보다 2m 높아짐 (기존 지반에서 4m 높아짐)

< 그간의 경과 >

구 분	기 허가면적 (‘17.10.27.)	‘17.12.27	‘18.4.25	‘18.7.25	금회
석장리동 산7-1 (1구역)	3,526㎡	4,652㎡ (1,126㎡ 증가)	4,236㎡ (710㎡ 증가)	3,945 ㎡ (419㎡ 증가)	3,526㎡
석장리동 26-2 (3구역)	2,90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사업내용	○ 부지조성 : 주택 19동(각동 연면적 98.04㎡ 규모) - 대지 최고높이 2.5m - 각단 자연석 석축 - 최상부 옹벽사면 - 옹벽 122m(높이 2.5~4m)	주택 총25동 (연면적, 최고높이, 동일)	주택 총24동, (연면적95.34~116.4㎡, 최고높이 동일) 도로 71㎡ 증가, 녹지공간 352㎡ 감소	주택 총24동, (연면적95.34~116.4㎡, 최고높이 동일) 도로 12㎡ 증가, 녹지공간 303㎡ 감소	○ 부지조성 : 주택 19동(각동 연면적 98.04㎡ 규모) - 대지 최고높이 5.5m - 최하단 보강토 옹벽 - 최상부 옹벽사면 (완만하게 조성) - 보강토 옹벽 269m (높이 0~4.5m) - 석축 326m(높이 2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0.08.31./문화재전문위원 ○○○)

- 석장리에서 인지되지 않고 성토에 의한 지형변경이 최소화되어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석축의 첫단은 자연석 쌓기이나 보강토 옹벽블럭으로 변경된 점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2) 지자체 의견

- 해당지역은 공주 석장리 유적에서 약 405m 이격되어 있고 도로 및 고도 차가 커서 석장리유적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기존 허가받았던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만 대단위 개발사업임으로 경관 변화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계획 평면도 등 자료보완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보류 12명

9.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주택 대수선 및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주택 대수선 및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외에 위치한 단독주택 대수선 및 증축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일원
- (3) 신청내용<주택 대수선 및 증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615-94(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사업내용
 - 1층 : 기존 53.82㎡ → 59.80㎡(증 5.98㎡)
 - 2층 : 기존 49.75㎡ → 59.78㎡(증 10.03㎡)
 - 지붕틀 : 아스팔트 싱글 → 경량철골조, 징크판넬 설치

라. 참고사항

(1) 한양도성도감 의견('20.08.20.)

- 기존 건물의 벽체에 붙여 수십년전 1층, 2층의 수평 증축(16.21㎡)과 지붕의 높이를 증가(1.06m)시켜 사용하던중 노후된 건축물의 재정비를 위해 건축허가와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노후된 건축물의 재정비를 위해 기존 형태를 유지한 일부 증축이므로 별도 의견 없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3명

10. 홍성 홍주읍성 내외 복문 경관조명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복문에 경관조명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홍성 홍주읍성의 복원된 복문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홍성 홍주읍성(사적 제231호 / 1972.10.14. 지정)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 (3) 신청내용<복문 경관조명 설치>
 -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1-4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외벽라인바 50EA, 칼라투광등 21EA, 보안등 2EA, 비컨등 8EA 설치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원안가결 12명, 조건부가결 1명

11. 고성 문암리 유적 내외 상수관로 매설

가. 제안사항

강원도 고성군 소재 사적 제426호 「고성 문암리 유적」 내외 상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성 문암리 유적 내외 상수관로를 매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문암리 유적(사적 제426호 / 2001.02.05. 지정)
 - 소 재 지 : 강원 고성군 죽암면 문암리 1번지 외
- (3) 신청내용<상수관로 매설>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진리 4-1번지 등 3필지{문화재구역, 문화재구역으로부터 3m 이격/2구역(평지붕 5m, 경사지붕 7.5m)}
 - 사업내용
 - 상수관로 : L 98m, 상수도관(지름) : 32mm
 - 굴착폭 : 1,000mm, 굴착깊이 : 1,200m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 실시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12. 제주 고산리 유적 내외 야간 관광 태양광 가로등 설치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내외에 야간 관광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고산리 유적 내외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수월봉 및 선사 유적지, 지질공원 등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야간관광 편의를 제공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년 5차 위원회('20.05.13.)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고산리 유적(사적 제412호 / 1998.12.23. 지정)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28번지 외
- (3) 신청내용<야간 관광 조명 가로등 설치>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수월봉입구교차로~한경면 고산리 3616-3번지 일대(문화재구역, 1구역)
 - 사업내용

구 분	1차('20.05.13.) 부결	2차('20.09.09.) 금번 심의
설치개소수	37개소	총 28개소
설치거리	1.1km	1.1km
설치높이	7m	2m(21개소), 1.5m(7개소)
설치내용	LED 100W	태양광 LED 50W

(4) 신청인 의견

- 굴착작업 시 진동저감을 위하여 소형굴삭기를 사용하여 터파기를 시행하고, 터파기 구간에 암반 등이 발견되어 파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암반 속에 췌기를 삽입하여 파쇄하는 무진동 공법을 적용하고자 함.

- 관로설치 및 가로등 기초공사를 위한 터파기 굴착공정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매장문화재 발견 시 즉시 작업 중지 후 발견신고 등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0.08.31./문화재전문위원 ○○○)

- 야간 관광 조명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계획구간은 1.1km 정도가 되고, 그 중 500m 정도가 국가지정 문화재 구역을 거쳐서 설치할 계획임
- 야간 관광 조명 태양광 가로등 설치 계획구간에는 이미 높이 1.5m, 간격 4m로 가로등이 밀집되게 설치되어 있음.
- 야간 관광 조명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 기존 가로등과 혼잡한 경관을 주어 제주 고산리 유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2) 관계전문가 검토의견('20.03.30./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제주 고산리 선사 유적에서부터 창귀도 방향으로 1.1km 구간에 높이 7m의 가로등 37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안전·보안상 필요하나 유적과 연접하므로 굴착시 입회조사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관계전문가 검토의견('20.03/(전)제주도 문화재전문위원 ○○○)

- 수월봉 화산쇄설층의 문화재 구역 내에서 1m 굴착으로 진동에 따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가로등 설치하는 수월봉 야간관광 활성화와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가로등이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굴착작업에 대한 진동 저감 방안과 경관 전문가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후, 그 결정에 따라야 함.

(4) 관계전문가 검토의견('20.03/(사)제주지질연구소 ○○○)

- 해안도로를 따라 고산리 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수월봉 응회암 상부 지표에서의 공사는 신중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13.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주변 건축물 신축 등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사적 제114호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주변에 이순신 관련 체험관 건립을 위해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주변에 이순신 장군 관련 체험관 신축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사적 제114호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산58
- (3) 신청내용<체험관 신축 등>
 - 위치 : 전남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730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0m 이격 / 1구역(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 사업내용

구분	사업 규모	비고
이순신 체험관	- 5칸×3칸 / 95㎡ / 목조 / 팔작지붕/ 높이7.03m	
전시체험관	- 7칸×5칸 / 164㎡ / 목조 / 맞배지붕/ 높이6.9m	
주변정비	- 석축 및 계단, 담장, 조경 등	
판옥선 제작·설치	- 제작 후 체험관 건립 예정지 전면 바다에 전시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14. 순천 낙안읍성 내 드라마 세트장 임시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내에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세트장을 임시로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순천 낙안읍성 내에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세트장을 설치(촬영이 종료되면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순천 낙안읍성(사적 제302호 / 1983.06.14. 지정)
 - 소재지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서.남내리 299-1(문화재구역)
- (3) 신청내용<드라마 세트장 설치>
 - 위치 : 전남 순천시 낙안면 동.서.남내리 299-1(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드라마 세트장(초가 2동) 설치
 - 규모 : (초가집) 면적 78㎡ 높이 3.5m, (부엌) 면적 22㎡ 높이 2.6m
 - 디자인 : 기존 낙안읍성 내 초가 형태와 유사하게 설치
 - 설치기간 : 2020.9.14. ~ 11.30(약 3개월)
 - * 세트장 설치, 촬영 및 철거·원상 복구 포함
 - * 원상복구 관련 서약서 제출 완료(신청인→순천시)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15. 부여 나성 내 도로 확포장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58호 「부여 나성」 내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나성 내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년 8차 위원회('18.08.12.)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나성(사적 제5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565 외
 - (3) 신청내용<도로 확포장공사>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 10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월함로(면도1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 도로포장 B=12m(인도포함), L=242m, A=3,420㎡ / 자연석 쌓기 H=1.5m~2.0m, L=128m, 수로관 600C(600mm×600mm) L=128m 설치
- < 현지조사 후 변경사항 >

	당 초	변 경
사업기간	2020.10. ~ 2021.10.	2020.10. ~ 2021.10.
사업비	347,000천원	372,000천원
사업내용	도로포장(블럭) : T=6~8cm, L=242m, B=12m 옹벽블럭설치 : H=1.5~2m, L=128m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 L=128m, 600C(600×600)	도로포장(블럭) : T=6~8cm, L=242m, B=12m 자연석쌓기 : H=1.5~2m, L=128m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 L=128m, 600C(600×600)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0.08.31./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부여 나성의 지정구역과 연접지역에 기존 마을 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훼손정도를 고려할 때 정비될 필요가 있음
- 단 농경지 측에 생기는 옹벽을 쌓기보다는 자연석 석축으로 하여 경관 개선을 도모함이 좋겠음

(2) 지자체 의견

- 지역주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월함로(면도1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자 함
 - 현재 면도 101호선 1.02km 중 242m가 미개설되어 있는 상황으로, 미개설 도로의 일부분만 포장되어 있어 바닥면이 불규칙하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 통행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인 위험에 놓여 있음
 - 또한 도로사면 배수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집중호우 시 범람으로 인한 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임
- 해당 신청지역이 문화재 지정구역 내이긴 하나 지역주민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당해 문화재의 경관 및 보존관리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석축쌓기 방식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16.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 내외 도시계획도로 확장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 내외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 내외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20년 8차 위원회('18.08.12.) 보류 : 우회로, 주차공간, 화장실 등에 대하여 자료보완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공산성(사적 제12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산성동 산2번지 일원
- (3) 신청내용<도시계획도로 확장>
 - 위치 : 충남 공주시 옥룡동 363-50번지 일원

구분(해당지역)	길 이	면 적	비 고
문화재 보호구역	L=16.6m	A=6.7m ²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L=184.4m	A=1,851.4m ²	허용기준 5구역
고도지구(특별보존지구)	L=89.7m	A=959.3m ²	

- 사업내용 : 소로3-53호 확장 (연장 L=290.7m, 폭원 B=10m)
 - 기간/공사비 : '20.7월 ~ '24.12월 / 11.8억원
 - 왕복 2차로, 연장 290.7m, 폭 10m, 높이변화 0.25m, 절취 1.2m
 - 보완사항 : 우회로 개설, 주차공간 확보, 화장실 설치('21년 예산반영)
 - ※ 옥룡동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확장 필요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0.07.21./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공주 공산성 보호구역(옥녀봉성)과 고도 특별보존지구를 통과하는 왕복2차선 폭 10m의 도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나, 막다른 곳에서 우회로 설정, 주차 공간, 화장실 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리적인 계획이 될 것이라 사료됨

(2) 지자체 의견

- 공산성과 옥녀봉성 사이 진입도로로 주택들이 양쪽에 빼곡이 들어서 있어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옥녀봉성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조건부가결 13명

17. 공주 수촌리 고분군 주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주 수촌리 고분군 주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제460호 / 2005.03.03. 지정)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01번지 외 88필지
- (3) 신청내용<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위치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75-1, 275-5(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95m 이격/4구역(도시계획 조례))
 - 사업내용
 - 설비 용량 : 34.42W
 - 설치 취치 : 주택 지붕, 창고 지붕
 - 설치 면적 : 225㎡(주택 75㎡, 창고 150㎡)
 - 설치 높이 : 기존 건물 높이보다 2.4m 높아짐
 - 주택 지붕 높이 5.82m → 태양광모듈 설치 후 8.22m(2.4m 높아짐)
 - 창고 지붕 높이 6.89m → 태양광모듈 설치 후 9.29m(2.4m 높아짐)
 - 모듈 개요 : 경사각 15°
 - 외형크기 : 996mm × 1,972mm × 35mm(1장당 단위면적 : 1.96㎡)
 - 태양광 모듈 : 375W × 88매(13직렬 × 4병렬, 12직렬 × 3병렬)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0.08.31./문화재전문위원 ○○○)

- 수촌리 고분군에서 395m 이격(4구역, 도시계획 조례)에 기존 주택과 창고 지붕 위에 2.4m 높이의 프레임을 짜고 태양광을 수촌리 고분군 방향으로 설치하고자 함
- 높이도 높고 팬넬의 반사광이 고분군을 향하여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2) 지자체 의견

- 해당지역은 공주 수촌리 고분군과 약395m 이격되어 있고 기존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는 지역으로 본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 및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만 지형적으로 수촌리 고분군은 산지이고 사업지는 평야가 펼쳐진 곳으로 시야가 가려지지 않는 점이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부결 13명

【 검토사항 】

안전번호 사적 2020-09-018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 II권역에 속하는 1필지 208m²를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추가지정 : 1필지 208m²
- (4) 지정 사유
 - 풍납토성 II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20.09.02.)
 - 해당지역은 서울 풍납동 토성의 핵심시설지구(사적지정·매입 예정지에 해당)로 사적 추가 지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 원안가결 11명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명	주소
1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126-176	대	208	208		

2. 익산 쌍릉 내 대왕릉 정비계획 변경(안)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내 대왕릉에 대한 정비 계획 변경(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발굴조사 완료 후 정비 중인 익산 쌍릉(대왕릉)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검토받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19년 제9차 사적분과 회의(2019.9.18.)에서 ‘연구용을 제외한 인골을 별도 함에 넣고 목관을 복원하여 일정 제례의식을 통해 재봉안 후 폐쇄·정비’ 하는 대왕릉 정비계획이 가결된 바 있음.
- 위 정비계획에 대하여 ‘인골과 목함, 목관의 봉안 없이 폐쇄·정비’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쌍릉(사적 제87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석왕동 산55, 산56
- (3) 신청내용<대왕릉 정비계획 변경(안)>
 - 당초계획 : 인골을 별도 함에 넣고 목관을 복원하여 일정 제례의식(청주 한씨 문중)을 통해 재봉안 후 폐쇄·정비
 - 인골 : 향후 DNA분석 등을 위해 일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28점 선정)
 - 목관 복원 및 함 제작 : 별도 자문단을 운영하여 추진(제작 완료)
 - 연도 패쇄석 : 보강·보존처리 후 재사용(보강보·존처리 완료)
 - 봉분 : 판축다짐으로 정비(묘도부분 이외 정비 완료)
 - 변경계획(안) : 인골과 목함, 목관의 봉안 없이 폐쇄·정비
 - 인골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영구 보존, 목함과 목관은 전시관 등에 보관 또는 전시

(4) 신청사유

- 청주한씨 종중에서 ‘해당 인골은 종중의 입회·확인 없이 발굴조사기관이 빼낸 것으로, 치아가 여성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대왕릉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봉안을 반대하고 있어, 조사·연구·보존을 위하여 인골을 봉안하지 않고 대왕릉을 정비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0.07.23.)

- 2018년 법의인류학적 분석, 고DNA분석, 동위원소분석, 방사성탄소연대측정 2019년 연구결과 보고서 발간(현재 제2수장고 [향온향습실] 에 보관 중)
- 현재 古DNA 분석은 다량의 샘플에서 콜라겐을 추출한 후 진행하지만, 수습인골은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후속 분석을 보류한 상태
- 최근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NGS) 등 극미량 생체분자(고DNA·단백질·지방 등)의 분석기술이 급발전 중, 쌍릉(대왕릉) 인골의 미래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용 시료 보관이 매우 중요함
-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진행하여 영구 보관용 시료를 선별함
- * 고병리학·해부학적 특징이 뚜렷하거나, 향후 유전학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28점

(2) 지자체 의견

- 발굴조사 완료 후 원상 복구 중 묘도부분은 인골 등 봉안 여부 문제로 정비가 지연되고 있으나, 유적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 발굴 인골은 조사·연구·보존을 위하여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초 대왕릉을 시조묘로 모시는 종중을 고려하여 일부 시료를 남겨 놓고 봉안하려는 계획이었음. 그러나, 현재 종중측에서 인골을 재봉안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인골 모두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제작된 목함과 목관은 유적 전시관 등에 임시 보관한 이후 쌍릉 자료관 건립 시 전시 활용하고자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3. 경주 동궁과 월지 3호 건물 내 전시시설 리모델링 및 탐방로 정비 계획 (실시설계)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 3호 건물 내 전시시설 리모델링 및 탐방로 정비를 하고자 실시설계(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동궁과 월지 3호 건물 내 전시시설 리모델링 및 탐방로 정비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제18호 / 1963.01.21. 지정)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26번지 일원
- (3) 신청내용<3호 건물 내 전시시설 리모델링 및 탐방로 정비 설계안>
 - 기존 노후화된 3호 건물 내 전시시설 리모델링(1983년도 설치)

구 분	내 용
전시 목적	· 기존 모형 전시관을 개선하여 투명한 멀티비전을 통해 출토유물 및 유구사진을 실감나게 재현
주요 내용	· 동궁과 월지 모형 앞에 놓인 멀티비전을 통해 사용자 터치형 정보영상과 전시영상을 투명스크린으로 볼 수 있게 함
연출 매체	· 55인치 투명 OLED 멀티비전 모니터 (전시관 4면 활용) - 멀티·비전, 터치스크린, 모형 설치

○ 탐방로(연꽃단지내) 정비

구 분	내 용
위험구간 내 관람객 안전 휀스 등 설치	· T=30 야자매트 설치 H=600 로프휀스 설치(650M, 325경간) · T=30 야자매트 설치 태양광조명등 설치(110M, 55경간)
탐방로 확폭	· 주도로 : 기존 1.3M → (확대) 표준 폭 2.1M 이상 확보 (1.5~2.5M 내외) · 간선도로 : 기존 0.4M~0.7M) → (확대) 표준 폭 0.9M 이상 확보 (0.9~2.3M 내외)

(4) 신청사유

- 현재 3호 건물 내 전시시설의 노후(설치년도:1983년) 및 경역 확대에 따른 동선이 정비 되지 않아 관람객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3호 건물 내 전시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기존 탐방로에서 경역 확대 부분까지 동선을 확대하여 관람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또한 연꽃단지 내 탐방로 야간 관람 시 관람객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그에 따른 예방 대책(안전시설)이 시급함.

라. 참고사항

(1) 전문가 자문의견('20.08.26./문화재위원 ○○○, ○○○)

- 현 3호 건물 홍보관 리모델링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3호 건물 홍보관 내부 모형전시관 개선 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됨.
단, 외벽 부분에 맵핑은 동궁과 월지의 문화재의 가치 및 경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콘텐츠 및 설치 위치 등은 동궁과 월지 외 경주 지역 전체를 고려하여 계획 할 필요가 있음.
- 연지의 탐방로의 경우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야간 개장 및 활용 등과 관련 필요성과 이에 따라 동선체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필요하다고 할 경우 난간, 조명 및 기타 방안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안을 계획 할 필요가 있음.

(2) 전문가 자문의견('20.09.02./문화재위원 ○○○)

- 동궁과 월지 3호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전시 시설은 35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시설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시대와 잘 맞지 않음. 따라서 이를 리모델링 하고 첨단시설(디지털)로 설치한다고 사료됨.
- 탐방로 정비를 연꽃단지까지 개방할 경우 많은 관광객들로 인하여 탐방로 좁은 구간은 2m 정도의 폭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수로 부분은 수심이 깊지는 않으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웬스(예:로프 등)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야간 개방 시 어두운 곳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명시설을 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 보고사항 】

안전번호 사적 2020-09-021

1. 한국의 서원 둘레길 조성 보고

가. 제안사항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9개소 주변 둘레길 정비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주변 산책로를 정비하여 방문객에게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 * 2020년 세계유산 둘레길 조성사업(국비 1,620,000천원, 지방비 694,287천원)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소수·남계·옥산·도산·필암·도동·병산·무성·돈암서원)
 - 소재지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소백로 2740 등 9개소
- (3) 신청내용<한국의 서원 둘레길 조성>
 - 위치 : 대구시 및 경북, 경남, 충북, 전북, 전남 소재 영주시 소수서원 등 9개소 일대
 - 사업기간 : 2020년
 - 추진 경과 및 계획
 - 「세계유산 홍보 기반 마련 연구」 한국의 서원 둘레길 조성 연구를 위한 사전기획 수립('19. 12.)
 - 「세계유산 명품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중간보고회('20.7.)
 - 「세계유산 명품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20.8.)
 - 「세계유산 명품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20.8.)
 - 「세계유산 명품둘레길 조성」 실시설계 및 공사시행('20.9.~12.)
 -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둘레길 조성 실시설계, 시설물 제작 및 설치 시행
 - 사업내용 : 서원 주변 산책로 정비 및 안내시설 설치, 주요공간 휴게시설 마련 등

서원명	거리	주요 정비사항	노선도
소수서원	1.33km	· 기존 산책로 노면 정비(최소화) · 신설구간(150m) 유산구역 경계 정비 및 노선 신설(노폭 1.2m 이내) · 안내판 17개 계획(종합안내판 2개, 방향 안내판 5개, 자원해설판 6개, 간이/수목 안내판 4개)	
남계서원	0.96km	· 서원 배후 임야에 노선 신설(420m), 옛 농로 복원 정비(80m) · 주차장 연결로 신설, 옛주자장 부지 휴게시설 설치(휴게공간 마련) · 조망점 주변 소나무 후계목 속아내기 및 이식 · 현대식 건축물 경관차폐 수목식재 · 안내판 17개 계획(종합안내판 1개, 방향 안내판 4개, 자원해설판 4개, 간이/수목 안내판 4개)	
옥산서원	2.58km	· 사산오대 중심으로 오솔길, 농로길 등 이용 가능 노선 발굴에 따른 숲길 정비(목교, 경계돌쌓기, 돌붙임, 돌의자) · 농로구간 경계목 설치, 경계석 쌓기 노면 수평화 정비 · 안내판 25개 계획(종합안내판 1개, 방향 안내판 16개, 자원해설판 8개)	
도산서원	1.22km	· 기존 산책로 노면 정비(최소화) 및 노선 활용 · 낙동강전망대 지형 복구, 운영대 위 조망점 연결로 개설 · 도산서당 조망점 진입로 조정 및 돌문히기로 지형 보호 · 안내판 10개 계획(종합안내판 1개, 방향 안내판 3개, 자원해설판 5개, 간이/수목 안내판 1개)	

서원명	거리	주요 정비사항	노선도
필암서원	1.12km	· 기존 산책로 노면 정비(최소화) · 서원 배후산 자연스러운 오솔길 형태되도록 인력 시공 원칙(노면경계돌쌓기, 평탄다짐, 잡목제거) · 안내판 16개 계획(종합안내판 1개, 방향안내판 5개, 자원해설판 3개, 간이/수목안내판 7개)	
도동서원	0.92km	· 서원 배후 소나무숲 노면 평탄화 및 뒤편 채움돌 설치하여 탐방노선 제공. 셋길로 인한 훼손 예방 · 관수정 진입로 흙길 정비, 경사면 흠막이공으로 경사 완화 · 조망점 휴게시설 설치 · 안내판 19개 계획	
병산서원	0.80km	· 마을 진입로 경관정비(초화류식재, 경계목 정비) · 서원 주변 아카시나무 및 잡목 제거, 노면 정비(서원-낙동강-병산 경관 확보) · 안내판 13개 설치(종합안내판 2개, 방향안내판 2개, 자원해설판 5개, 간이/수목안내판 4개)	
무성서원	1.21km	· 서원 담장 옆 부지 경관개선(휴게시설 설치 및 울타리목 식재) · 경사면 포장로 미끄럼 방지 계획(노면 흠파기), 조망공간 노면 다짐 · 신설구간 0.32km 숲길 조성 · 안내판 26개 설치 *주의안내판 3개: 주민 사생활 보호 안내	
돈암서원	1.10km	· 농경지 보행로 신설에 따른 구거 경계석 쌓기, 지형복원, 노면평탄화 · 서원 뒤 임야(마을 방면) 노면 수평화(돌문히기, 노면다짐), 수목정비 · 안내판 17개 설치(종합안내판 1개, 방향안내판 9개, 자원해설판 4개, 기타안내판 3개)	

(4) 신청인 의견

-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이후 「한국의 서원」을 찾는 방문객이 급증하였음
- 방문객 대부분 체류시간이 짧은 경우 목적 방문으로 서원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
- 서원 방문객에게 서원 내부 관람과 함께 서원 외부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체류시간 증대와 서원의 공간적 가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함
- 한편, 코로나19로 국내 관광이 증가하고 비대면 관광시대로 변화하고 있음. 경관을 바라보는 둘레길을 활용해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

- 소수서원('20.06.29./○○대학교 ○○○ 교수, ○○대학교 ○○○ 교수)
 - 소수박물관은 램프를 이용하여 현대식 건물 체험을 유도
 - 기존 산책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만, 정비 범위를 최소화로 함
 - 탐방 순서를 취한대-광풍대-박물관-조망점-소훈대 순으로 하여 스토리텔링 완성
- 남계서원('20.06.15./○○대학교 ○○○ 교수, ○○대학교 ○○○ 교수)
 - 노약자도 다닐 수 있게 구배를 완만하게 하여 자연스런 산책로가 되도록 하고 부조화 되는 곳에는 차폐식수대 조성
 -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나 노면 정비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할 것
- 옥산서원('20.06.23./○○대학교 ○○○ 교수, ○○대학교 ○○○ 교수)
 - 현존 자연지형을 최대한 존치하는 방식으로 계획하며 회재 이언적의 유적 스토리텔링을 기반하여 산책로 의미를 부여
 - 자계 산길쪽 둘레길의 시원한 그늘에서 옥산구곡과 회재선생의 오대 이야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좋을 듯함
- 도산서원('20.06.29./○○대학교 ○○○ 교수, ○○대학교 ○○○ 교수)
 - 현재 조성된 도산서원 관람로만으로 충분한 산책거리를 확보하고 있음
 - 기존 산책로와 차별화 되도록 서원을 다른 시점으로 바라보는 조망점을 서원 내부 동선으로 유도하는 것을 고려할 것
 - 시사단은 경로가 노출될 때 탐방이 가능함을 안내할 것
- 필암서원('20.07.06./○○대학교 ○○○ 교수, ○○대학교 ○○○ 교수)
 - 신규 조성구간은 자연스런 오솔길 형태가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 조망점에서 자연스럽게 서원을 볼 수 있게 수목 정비. 잡목은 화재 예방 차원에서 정비 필요함
- 도동서원('20.06.29./○○대학교 ○○○ 교수, ○○문화유산 ○○○ 대표)
 - 안내판 설치 및 지점은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도록 함
 - 도동서원 배면 둘레길은 일정 이격거리를 두고 소나무숲으로 유도함
 - 조망점에서 보이는 강 건너 개구리섬 경관정비를 고려해볼만함
- 병산서원('20.06.29./○○대학교 ○○○ 교수, ○○대학교 ○○○ 교수)
 - 주차장에서 서원을 향해 가는 길 풍경이 좋음. 서원 담장을 도는 것은 특별한 유인요소로 '서원-병산-낙동강 조망 확보'가 필요함
 - 아카시나무 등 잡목이 서원 주변으로 무성하여 둘러싸고 있어 서원과 병산을 전혀 인식할 수 없음. 소나무 중심으로 정비 필요함
- 무성서원('20.06.18./○○문화연구소 ○○○ 이사장)
 - 산책길 조성은 서원을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고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원촌마을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한 후 마을길 활용이 좋을 듯함
- 무성서원('20.06.25./○○대학교 ○○○ 교수)
 - 가급적 서원 주변의 현재 이용 가능한 동선과 마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노선을 설정하고 상춘곡길과 연계시키는 것은 추후계획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선과 어우러진 경관정비 방안을 함께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돈암서원('20.06.17./○○대학교 ○○○ 교수, ○○대학교 ○○○ 교수)
 - 돈암서원과 사계 김장생 묘역을 연결한 기 조성길인 솔바람길에 편의시설을 보강하거나 산양루 옆 공간을 연못으로 조성하여 쉼터공간으로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듯함
 - 기호유학 서원의 성격을 십분 살리기 위해 계획 노선 그대로 둘레길 1코스로 활용하고 사계 김장생 묘역 일원을 둘레길 2코스로 만드는 것도 고려

마. 의결사항

- 보류
 - 자료보완 후 재보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보류 13명

2. 경복궁 내 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및 광화문 월대 등 주변정비사업 추진 보고

가. 제안사항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 주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및 광화문 월대 복원 등 주변정비사업(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 광화문 주변 도로선형 변경 계획’과 경복궁 광화문 월대 복원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회도로 개설 및 역사광장 조성’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건임.

<사업개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서울시 추진)

- ◆ 사업기간 : '17년~'21년(5개년) * 공사는 '20년~'21년 추진예정
- ◆ 사업내용 : 시민광장 조성 및 역사광장 임시조성
- ◆ 총사업비 : 488억원(시비 488)

※광화문 월대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 ◆ 사업기간 : '18년~'23년(6개년)
- ◆ 사업내용 : 문화재복원(광화문 월대 복원, 해태상 이전 등)<문화재청>
주변정비(사직·울곡로 도로 이설 및 역사광장 조성 등)<서울시>
- ◆ 총사업비 : 580억원(국비 290, 지방비 290)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제117호 / 1963.01.21. 지정)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
- (3) 신청내용<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우회도로 개설 및 역사광장 조성>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67, 1-68(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도로 선형 변경('T'자형→'Y'자형), 시민광장(27,230㎡) 및 역사광장(13,640㎡) 조성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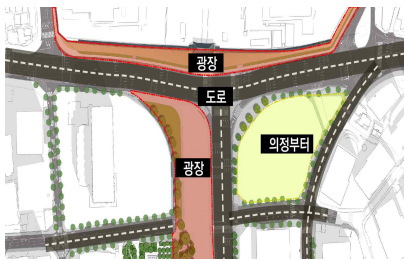
- 기존광장 확장, 도로 공간(세종대로) 재편(10차로→7~9차로, 길이 453m, 18,900m²)

· 아스팔트 도로 포장(2,872m²) 및 시민광장 내 화강석판석포장정비 등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_우회도로 개설 및 역사광장 조성>

- 도로(사직로~울곡로) 이설(길이 445.4m, 6,880m²) 및 역사광장 조성(해태상 이설, 삼군부터 유구보존지(74.92m²) 정비, 기존 아스콘 포장 철거 및 우배수 정비, 관목류 식재(모란, 진달래, 조팝나무) 405그루), 잔디식재 등)

(1단계) “T”형('20.9월~'21.6월)	(2단계) “Y”형 ('21.7월~)(월대복원)
○ 사직로 : 현행 유지 ○ 세종대로 : 서측광장 조성(10차로→7~9차로) - 시민광장 조성(27,230m²), 도로 정비(18,900m²)	○ 사직로 : “Y”형 (월대 우회) ○ 세종대로 : 서측광장 조성(10차로→7~9차로) - 역사광장 조성(13,640m²), 도로 정비(14,500m²)
○ 사업비 : 488억원(시비)	→ ○ 사업비 : 580억원(국비 290, 시비 290)



라. 참고사항

(1) 자문회의 의견('20.09.03./문화재위원 ○○○, ○○○)

- 광화문과 월대는 원래 하나의 건축물로서 월대는 광화문의 얼굴이며, ‘월대 복원’은 왕도정치와 시민주권을 연결하고 소통하는 역사적 가치와 화합·통합의 미래적 가치를 담는 상징적 표현임.
- 본 건은 서울시 자체사업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및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정비사업’의 ‘단계별 도로 선형(‘T’자형→‘Y’자형) 및 역사광장 조성 계획안’으로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시민불편 최소 및 역사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됨.
- 향후 우회도로 개설이 선행되고 난 후, 광화문 월대 발굴조사를 통하여 원지반을 확인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주변정비(우회도로 개설 및 역사광장 조성)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2) 향후 추진계획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 광화문광장 교통처리계획 교통안전심의('20.9월/서울지방경찰청)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추진('T'자형 도로선형 변경 및 시민광장 조성)
('20.하반기 ~ '21.하반기)

<광화문 월대 등 복원정비사업>

- 우회도로 개설 및 역사광장 조성 설계승인('20.9월/문화재청→서울시)
- 월대 복원을 위한 도로이설(임시우회도로 포함) 및 역사광장 조성 공사
추진('21. 6~7월/서울시)
- 광화문 월대 복원 발굴조사 및 복원설계('21. 하반기 ~ '22. 상반기)
 - ▶ 도로개설 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 광화문 월대 복원 공사 추진('22. 하반기 ~ '23.12월)

마.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접수 13명

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내에 옹벽 재설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45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서울시 중구	○○○	<보호구역 내 옹벽 재설치>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1가 11-211(문화재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토사유출에 따른 옹벽 등 시설물 재설치 - 블록담장 철거 후 옹벽 재설치 : 1m×20m	허가	'20.08.26.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강동구	○○○	<노후 상수도관 교체(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241-1도, 244-46도, 244-14도, 219-3도 (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변경사항 : 2개소 추가(D=300mm, L=50m / D=150mm, L=20m) ○ 허가조건 - 지하부 굴착 시 관계공무원이 입회합니다. - 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신고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조건부 허가	'20.08.20.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강동구	○○○	<소공원 임시 조성>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94-17 (문화재구역)(3권역) ○ 사업내용 : 보상완료부지 소공원 임시 조성 - 초화류 등 식재, 산책로 조성	허가	'20.08.2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서울시 강동구	○○○	<도시가스 관로 매설>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풍납동 157-2도, 450 도(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 이격) ○ 사업내용 - 도시가스 배관 부설 60m, 관경 110mm ○ 허가조건 - 지하부 굴착 시 관계공무원이 입회합니다. - 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신고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보존을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조건부 허가	'20.08.27.
사적 제14호 부여 능산리 고분군	충남 부여군	○○○	<발굴조사>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5-5 등 20필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목적 : 백제 사비기 능원의 종합학술연구 - 면적 : 63,962㎡ - 근거 : 백제왕도 핵심유적 부여지역 발굴조사 마스터플랜 및 부여연구소의 지하물리탐사 결과에 따른 발굴조사 - 기간: 2020.9.7.~2022.12.25.	허가	'20.08.14.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전북 익산시	○○○	<진입로 개설>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4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로 개설 - 규모: 19㎡(L=3m, B=6m)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허가조건 - 국토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구간에 대한 점용기간 만료('23.12.31.)일까지 허가함(국토관리청과 기간연장 협의 시 현상변경 허가 재신청)	조건부 허가	'20.09.0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88호 경주 성동동 전랑지	경북 경주시	○○○	<어린이보호구역개선 교통신호기 설치(화랑초)> ○ 위치 : 경북 경주시 구황동 861-2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378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 신호등 철주(H7.0m) 설치 : 4개 - 신호제어기 설치 : 1개 - 굴착 및 재포장 · 최대 굴착 깊이 : 1.28m · 아스콘: 16.5m, 49.5m² · 인도 : 31.5m, 39.9m² ○ 허가조건 - 굴착 시 참관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20.09.03.
사적 제89호 부여 석성산성	충남 부여군	○○○	<가족묘 부지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충남 부여군 석성면 현내리 산 77-1(문화재구역으로부터 17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가족묘 부지 조성시 절성토 규모 축소 · (기존) 절토10.9m 성토 7.3m · (변경) 절토 0.5m, 성토 1.3m * 부지조성 면적(100m²)과 위치는 동일	허가	'20.09.03.
사적 제109호 아산 맹씨 행단	충남 아산시	○○○	<단독주택 부지 조성> ○ 위치 : 충남 아산시 배방읍 중리 산25번지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0m 이격/5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4,714m² - 보강토옹벽 : 높이 0.5m~4.9m(최고), 길이 총 518m - 식생옹벽블럭 : 높이 0.5m~4.9m(최고), 길이 총 171m - 아스콘포장 : 2,246m² - 절토 : 2,960.8m³, 성토 : 12,966.0m³	허가	'20.08.21.
사적 제117호 경복궁	서울시 종로구	○○○	<방호용 이동식초소 설치>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 115-56, 세종로 1-7(1구역) ○ 사업내용 - 이동식 초소 설치 2개소(2.54m²)설치	허가	'20.09.0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17호 경복궁	서울시 종로구	○ ○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67, 1-68(1구역) ○ 사업내용 - 기존광장 확장, 도로 공간(세종대로) 재편(10차로→7~9차로, 길이 453m, 18,900㎡) · 아스팔트 도로 포장(2,872㎡) 및 역사광장 임시포장(화강석판석포장정비) 등	허가	'20.09.04.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인천시 강화군	○ ○ ○	<퇴수관 보수>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관청리 971-1, 964-1(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신청면적 : 4㎡ - 굴착깊이 : 1.1m - 사유 : 누수발생지점 보수	허가	'20.08.21.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경기도 오산시	○ ○ ○	<단독주택 신축(9동)(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332, 332-8(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8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당초 : 신청면적(6,372㎡), 건축면적/연면적(1,069.24㎡/1,310.56㎡), 층수/최고높이(지상2층/7.9m) - 변경 : 신청면적(6,798㎡), 건축면적/연면적(1,026.28㎡/1,260.64㎡), 층수/최고높이(지상2층/7.9m) - 변경사유 : 진입로 위치변경	허가	'20.08.13.
사적 제140호 포천 반월성	경기도 포천시	○ ○ ○	<등산로 정비>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산106-1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7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신청면적 : 154㎡ - 사업연장 : 81m - 주요내용 : 목계단 설치 215단(300×170×150), 로프웬스 43경간(경간폭 2.0m)	허가	'20.09.0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74호 경주 탈해왕릉	경북 경주시	○○○	<어린이보호구역개선 교통신호기 설치 (동천초)> ○ 위치 : 경북 경주시 구황동 960 일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14m 이격/5구역) ○ 사업내용 - 신호등 철주(H7.0m) 설치 : 4개 - 신호제어기 설치 : 1개 - 굴착 및 재포장 · 최대 굴착 깊이 : 1.28m · 아스콘: 26.5m, 106㎡ · 인도 : 20m, 25.3㎡ ○ 허가조건 - 굴착 시 참관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20.09.03.
사적 제237호 서울 경모궁지	서울시 종로구	○○○	<주차 차단기 설치>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2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주차차단기 설치	허가	'20.08.27.
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 유적	충남 부여군	○○○	<보호구역 내 컨테이너 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225-2(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용도 : 휴게공간 및 관리공간 - 규모 : 1동(3m×6m×1동) * 관련 : 허가번호 제2020-0414호 ('20.3.19.) ○ 허가조건 - 컨테이너 설치 허가기간 : 3년간	조건부 허가	'20.08.28.
사적 제249호 부여 송국리 유적	충남 부여군	○○○	<상수도관 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산24-20번지 일원(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 관로 (PE관, D15-50, L=225m) 설치 - 굴차 깊이 100cm ○ 허가조건 - 터파기 시 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조건부 허가	'20.09.04.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서울시 종로구	○○○	<문과시험 재현 행사>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번지 126호(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조선시대 과거제 재현행사 - 일시 : 2020. 9. 26.(토) - 장소 : 경희궁지 일원 - 임시시설 설치 : 어좌단 1식, 음향장비, 텐트, 의자, 테이블 등	허가	'20.08.20.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01호 부여 정림사지	충남 부여군	○○○	<백제문화재 개축>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254(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행사개최용 임시시설물 설치 - 규모 : 봉행무대(20m×12m×1개) 및 천막(3m×6m×2개) - 행사기간: '20.9.26.~10.4(기간 중1일) * 관련 : 허가번호제2018-1278호 ('18.9.14.) ○ 사유 -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회적거리두기 세부지침('20.07.03.)에 따른 조치	불허	'20.09.04.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도대기들 농로 정비>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동 33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토공 : 터파기 125m³, 되메우기 18m³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T=20cm), A=476m²(B=3m, L=156m)	허가	'20.08.12.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794-2(대), 794-1(전), 147-10(임)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구조 : 경량철골조, 징크판넬 - 건축면적 : 99.86m²(단독주택 58.05m², 농가형창고 41.78m²) - 건물높이 : 최고높이 5.55m - 전면 용벽 : 2단 · 보강토용벽 : (H) 0.8~2.8m, (L) 57.5m · 석축찰쌓기 : (H) 0.2~1.4m, (L) 79.1m ○ 변경사항 - 대지면적 증가 : 790m² → 951m² - 토목(2단 용벽) 수정 : 석축 → 법면 ○ 허가조건 - 굴착 시 입회조사	조건부 허가	'20.08.12.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휴게음식점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북 경주시 배반동 1003-2(문화재구역으로부터 24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건축구조 : 목조, 한식골기와 - 최고높이/연면적 : 6.62m/합계 198㎡ [(가동) 99㎡, (나동) 99㎡] - 건축규모 : 지상 1층, 2동 - 건축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변경사항 - 연면적 증가 : 198㎡ → 198.72㎡ - 최고높이 감소 : 6.391m → 6.39m - 건축물 동수 감소 : 2동 → 1동 - 사업기간 · 당초 : '20.02.01. ~ '20.12.31. · 변경 : '20.02.01. ~ '21.12.31.	허가	'20.08.24.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경북 경주시	○○○	<남산 칠불암길 도시계획도로(소2-139) 개설> ○ 위치 : 경북 경주시 남산동 211-6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42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 토공 : 흙막기 257㎡, 흙쌓기 80㎡, 사토 168㎡ - 배수공 : L형 측구 309.4m - 포장공 : 아스콘포장 표층(5cm, 1,556㎡), 기층(10cm, 749㎡), 보조기층(25cm, 212㎡) - 부대공 : 1식 ○ 허가조건 - 굴착 시 참관조사 실시	조건부 허가	'20.08.31.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26-10(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 신청면적 : 310㎡ - 건축면적 / 연면적 : 60㎡ / 60㎡ - 층수 / 최고높이 : 지상1층 / 5.8m	허가	'20.08.13.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농업용 창고 진출입로 개설>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유사리 만삼로 473-1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신청면적 : 344.21m - 도로폭 : 4m² - 포장재 : 콘크리트포장(두께 20cm) - 신청사유 : 농업용 창고개설	허가	'20.08.27.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단독주택(2개동)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146-7번지 외 6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71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신청면적 : 1,104m² - 건축면적/연면적 : 131.23m²/429.83m² - 층수/최고높이 : 지상3층/10.4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허가	'20.08.27.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단독주택(1개동)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153-2번지 외 2필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45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신청면적 : 727m² - 건축면적/연면적 : 51.5m²/154.53m² - 층수/최고높이 : 지상3층/11.03m - 구조 : 철근콘크리트	허가	'20.08.27.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경기도 광주시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 신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오랑리 320-1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2구역) ○ 사업내용 - 신청면적 : 1,400m² - 건축면적/연면적 : 396m²(2동)/396m²(2동) - 층수/최고높이 : 지상1층/8.9m - 구조 : 경량철골조	허가	'20.09.03.
사적 제319호 청주 신봉동 고분군	충북 청주시	○○○	<태양광시설 설치> ○ 위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57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40m 이격/4구역) ○ 사업내용 - 태양광시설 설치(104m²)	허가	'20.08.27.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84호 장성 입암서원	전남 장성군	○○○	<재난취약지구 정비> ○ 위치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철재난간(61m) · 구급함(2개소) 설치 및 안내판(4개소) 정비 - 기존 데크 정비(30.5m) 및 신설(4.5m) - 돌계단 설치(102m), 노후 타이어매트 정비(345단)	허가	'20.08.19.
사적 제399호 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	서울시 마포구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96번지 1호 절두산순교기념박물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가설건축물(18㎡) 1동 존치기간 연장 (~2022. 8. 11.까지)	허가	'20.09.01.
사적 제425호 부여 화지산 유적	충남 부여군	○○○	<보호구역 내외 스마트 가로등 설치>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136-1(문화재보호구역) - 충남 부여군 군수리 19-1(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 서동문화관 앞: 관로 2m, 전기관로 3m, 터파기 30cm, 1개 설치(H3.6m×W0.3m) - 서동공원 임시주차장: 관로 18m, 전기관로 23m, 터파기 30cm, 1개 설치(H3.6m×W0.3m) ○ 허가조건 - 터파기 시 전문가 입회하에 시행	조건부 허가	'20.09.04.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이동통신기지국 이설(허가사항 변경 허가)>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468-1(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2구역) ○ 사업내용 - 당초 : 신청면적(1.44㎡), 높이(20.5m), 근입깊이5m) - 변경 : 신청면적(1.44㎡), 높이(20.5m), 근입깊이5m) - 변경사유 : 설치장소 변경	허가	'20.08.1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인천시 강화군	○ ○ ○	<형질변경>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1007, 1007-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30m 이격/5구역) ○ 사업내용 - 신청면적 : 2,314m² - 성토높이/성토량 : 1.2m/2,776m³ - 신청사유 : 우량농지 조성	허가	'20.08.12.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설치>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19-22(문화재구역으로부터 2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신청면적 : 18m² - 건축면적/연면적 : 18m² / 18m² - 층수/최고높이 : 1층 / 2.6m	허가	'20.08.21.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인천시 강화군	○ ○ ○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신축>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21-20(문화재구역으로부터 6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신청면적 : 18m² - 건축면적 / 연면적 : 18m² / 18m² - 층수 / 최고높이 : 지상1층 / 2.3m - 구조 : 컨테이너 축조 ○ 허가조건 -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함	조건부 허가	'20.08.28.
사적 제475호 서산 부장리 고분군	충남 서산시	○ ○ ○	<발굴조사> ○ 위치 : 충남 서산시 음암면 부장리 219번지 2호, 산43-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발굴(시굴)조사 A=4,500m²	허가	'20.09.0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481조 부여 홍산현 관아	충남 부여군	○○○	<보부상 관련 행사 운영> ○ 위치 : 충남 부여군 홍산면 동헌로 38 (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행사기간 : 2020.9.11.~9.12.(2일간) - 시설물 : 주무대, 행사용 캐노피(60여개) 등 * 화기사용 : 7곳(전면 도로지역, 역사 문화환경, 문화재구역 아님) ○ 허가조건 - 행사기간 내 방문객 관련환경 저해 방지 - 행사기간 내 방문객 안전사고예방 철저 - 기 제출한 화기사용 지역 및 수량 외 화기 및 폭죽사용 금지 - 행사 전후 문화재 내 환경정리 철저 * 기허가번호: 제2019-431호(2019.4.18.)	조건부 허가	'20.08.21.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강원도 강릉시	○○○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자재창고 및 임시주기장 부지조성>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59-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신청면적 : 1,372㎡(부지면적 3,260㎡) - 자재창고 : 18㎡(300*600) ○ 허가조건 - 존치 기간은 2년으로 할것 ※ 동일 내용·신청자에게 기허가 한 사항임(허가기간 : '18.7.27~'20.7.26)	조건부 허가	'20.08.18.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강원도 강릉시	○○○	<강원도교육연수원 승강기 설치>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57-1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 승강기 설치 2식 · 건축면적 5,128,756㎠ (금회증축 27,276㎠) · 연면적 11,963,601㎠ (금회증축 63,275㎠) - 동별(층별) 내역 · 4동(나눔채) 승강기 건축면적(증축) 10.43㎠, 1,2층 · 5동(보람채) 승강기 건축면적(증축) 16.846㎠ 1,2,3층 ○ 허가조건 - 굴착시 전문가 입회조사	조건부 허가	'20.08.3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경북 경주시	○○○	<제2회 경주 황금정원 나들이 도시원에 활성화 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북 경주시 황남동 449, 446, 454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무대 : 약 10평(8.1m×5.4m×H0.9m), 음향, 영상 등 - 부스 : MQ텐트 15동(5×5m 6동, 3×3m 9동), 의자 200개 - 조형물 : 꽃 조형물 10개 및 화분 ○ 허가기간 : '20.9.15.(화) ~ 10.18.(일) ○ 변경사항 - 위치 : 경주시 황남동 449, 446, 454, <u>442, 166-8, 166-21번지 추가</u> - 이동식 화장실(6.2m×2.7m×H2.9m) 추가 ○ 허가조건 - 행사장 화기사용 금지 및 소화 장비(소화기 등) 비치 - 행사기간 내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관람 보장 - 행사전후 및 행사기간 내 문화재 구역 환경정리 철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최신 지침을 준수하여 행사일정 및 방역관리 최우선 고려할 것	조건부 허가	'20.08.12.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경북 경주시	○○○	<경주 중심상가 주차타워 건립> ○ 위치 : 경북 경주시 황오동 244, 243-3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19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 건축구조 : 철골구조 - 최고높이 : 10.9m - 건축규모 : 지상 2층, 1동 - 연면적 합계 : 4,791.96㎡ - 굴착깊이 : 원지반 기준 2m - 토공 : 흙막기 510㎥, 흙쌓기 181㎥, 터파기 602㎥, 잔토 931㎥ - 배수공 : 우수받이 26개소, 우수집수정 2개소, 우수관 L=226.5m, 우수관 L=15m - 포장공 : 아스콘포장 A=2,193㎡, 점토블럭포장 A=676㎡, 경계석 L=30m ○ 허가조건 - 시굴조사 시행	조건부 허가	'20.08.12.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경북 경주시	○○○	<한수원아트페스티벌 2020; 레지던시 페스타> ○ 위치 : 경북 경주시 노동동 30, 26, 인왕동 841-3(문화재구역) ○ 사업내용(대릉원 일원) - 레지던시 및 전시 · 가설전시관(35×12×H8m), 굴착없음 ※ 2020세계유산축전 허가 건물 사용 - 야외 작품 전시 : 2~3점 ○ 사업내용(동부사적지대) - 홍보 컨테이너 설치: 3×6m ○ 기간 - 전시 : '20.09.29.(화) ~ 10.18.(일) - 허가 : '20.09.01.(화) ~ 10.20.(화) ○ 허가조건 - 행사장 화기사용 금지 및 소화 장비(소화기 등) 비치 - 행사기간 내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관람 보장 - 행사전후 및 행사기간 내 문화재 구역 환경정리 철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최신 지침을 준수하여 행사일정 및 방역관리 최우선 고려할 것	조건부 허가	'20.08.24.
사적 제539호 부산 연산동 고분군	부산시 연제구	○○○	<옹벽설치 및 사면보강 공사>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산 123-3, 1113-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7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1. 구조물공: 판넬식옹벽(H=1.5~4.5m) 59.25㎡ 2. 우수공 가. 산마루측구(H=450mm) 57.6m 나. U형측구(0.3×0.3) 68.9m, (0.4×0.4) 32.5m 다. 집수정(0.6×0.6×0.8) 1개소, (0.9×0.9×2.0) 1개소 라. PE이중벽관(D500mm) 2.0m 3. 포장공: 콘크리트포장(t=0.15m) 28.9㎡ 4. 법면보호공 가. 녹생토(826.1㎡), 시드스프레이(187.1㎡) 나. 소일네일링(L=6.0m 16개, L=7.0m 11개, L=7.5m 55개, L=8.0 14개) 5. 대나무식재(H=3.5m): 38주 ○ 허가조건 - 신청지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시굴조사 등 관련 부서와 협의 할 것	허가	'20.09.02.

다. 의결사항

- 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 접수 13명